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7477

2019年　8月
博士學位論文

『소수록』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惠　英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수록』 연구

A Study on Sosurok

2019年 8月 23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惠 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수록』 연구

指導敎授 李 相 原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申請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4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惠 英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혜영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김 수 중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 수 신 해 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김 진 욱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엄 태 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 상 훈 (인)

2019年 6月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iii

Ⅰ. 서론 ····· 1

1.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사 검토 ····· 4
3. 연구 범위와 서술 방향 ····· 9

Ⅱ. 『소수록』의 서지적 특징과 창작 배경 ····· 11

1. 서지적 특징 ····· 11
2. 창작 배경 ····· 17

Ⅲ. 『소수록』의 성격과 편찬 의식 ····· 43

1. 잡록적 성격 ····· 43
   1) 전체 구성에 나타난 잡록적 성격 ····· 43
   2) <촌히영명긔명션이라>의 장르 착종적 성격 ····· 49
2. 애정담 수용의 특징 ····· 65
   1) 애정담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 ····· 65
   2) <논창가지미>의 전고 수용과 새로운 전형의 창출 ····· 72
   3) 『금고기관』의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 ····· 87
3.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징 ····· 99
   1) 『소수록』만의 독특한 표현 ····· 99
   2) 작품 간 유사 표현의 반복적 사용 ····· 106
   3) 시조에 나타난 특이 양상 ····· 116
4. 주제 지향과 편찬 의식 ····· 1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주제 지향 ····· 121
2) 편찬 의식 ····· 140

Ⅳ. 문학사적 의의 ····· 146

Ⅴ. 결 론 ····· 148

※ 참고문헌 ····· 15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소수록』의 내용과 주제 그리고 글의 종류 ····· 43
[표 2] <촌힌영명긔명션이라>의 구성과 주요 내용 ····· 55
[표 3] 『소수록』의 기녀 관련 한 · 중 애정담 전고 인용 사례 ····· 6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Sosurok

By Kim Hye-young
Advisor : Prof. Lee Sang-won, Ph.D.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re are some researches on *Sosurok*, a collection of works about Ginyeos, but thes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certain works in the collection rather than the entire collection to figure out its overall nature. In addition, they seem to have serious problems with the ways that they examined its nature.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exact nature of *Sosurok*.

Chapter II examined the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on and reviewed its creative backgrounds based on them. Haeju and Yanghandang are two places to pay attention to as its creative backgrounds. The investigator traced Yanghandang and found that it was Jikgoksanjang, a villa owned by Heungseon Daewongun in Yangju. It was thus estimated that the collection was compiled by individuals or a group of individuals that shared Haeju and Yanghandang in Yangju. This book is also characterized by its complex nature, including both poetry and prose works written both in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Its compiler must have possessed the ability of revealing its complexity in a masterly manner. The investigator explored individuals or groups with the highest possibilities of possessing such an ability those days and made an assumption that "Seungpyeonggye" could b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answer. The study traced the identities of a hero in the capital city and Okso that appeared as debaters in Work 2 and found that they were members of Seungpyeonggye. The former must have had negative perceptions of Ginyeos, whereas the latter must have been Oksoseon, who was a famed Ginyeo in Haeju as a favorite of Heungseon Daewongun and object of Ahn Min-yeong's love. The compiler seems to have been a member of Seungpyeonggye and had positive perceptions of Ginyeos unlike the hero in the capital city.

Chapter III looked into the nature of *Sosurok* as a collection of miscellaneous records and also genre-entangling collection. Its overall composition tells that it is a collection of 14 miscellaneous works in various formats including biographies of Ginyeos, essays in the letter format, Gasas in the letter format, Shijos, and Homyeonggis. Of the 14 individual works, Work 1 titled <촌히영명긔명션이라> was reviewed as it revealed the book's nature as a collection of miscellaneous works best. The results show that a majority of the works in the collection had a mixture of different styles within a text and exhibited a hybrid nature based on the mixture of different genr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surok* is characterized by its nature as a collection of miscellaneous works both at the overall level encompassing all of 14 works and at the individual work level.

The study then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lection in the acceptance of love stories and found that it usually cited Korean and Chinese love stories related to Ginyeos as its authentic precedents. Of these love stories, some have not been cited often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매유랑독점화괴> and <두십낭노침백보상> in *Geumgogigwan*, for instance, were cited repeatedly in many works of the collection and utilized very actively as a narrative principle of composing a story beyond a simple figure of speech.

Finally,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osurok* in description methods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found that some uniqu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expressions, which had not been us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and were found only in *Sosurok*, appeared in many of its works repeatedly. There were a lot of similar compositions and expressions between the works in the collection, and even 21 Shijos in the collection shared similar forms and sentimen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and results, the study demonstrated clearly that *Sosurok* was compiled by a single person. When the entire collection is reviewed from this perspective, it appears that its 14 works are in a structure of "narrative-main story-closing story" like a single book and oriented toward a single topic of advocating the existential value of Ginyeos. The compiler put together the 14 works based on a consistent structure and topic in organic relations, thus serving more than the roles of a mere ghostwriter to tell stories about Ginyeos for their authors. By taking advantage of the speaker's words and a narrative in each of the works earnestly sometimes and subtly other times, the compiler insisted that the negative perceptions of and biases against Ginyeos shared by a majority of people should be replaced with positive ones.

Chapter IV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Sosurok*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Its significance in the literature history stems from its position as the only collection of miscellaneous works in Hangul to inherit the tradition of Pilgis and Paeseols as collections of miscellaneous works in Chinese characters in the previous generation. It is also significant as a work of brothel literature depicting the entertainment culture of the middle and late 19th century and the unique sentiment of the people that enjoyed it.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이 논문은 기녀 관련 자료인『소수록』의 정확한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소수록』자료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지금까지 잘못 알려졌던 이 자료의 창작 배경과 잡록적 성격 그리고 편찬자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소수록』14편을 새로이 해석하고 이를 통해 이 자료에 드러난 편찬자의 편찬 의식과 문학사적 의의까지 알아보고자 한다.

『소수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이며, 1권 1책의 한글 필사본이다.[1] 정병설에 의해 그 원문의 일부가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고,[2]『나는 기생이다-소수록 읽기』에서 완역되었다.[3] 수록된 14편은 모두 19세기 중 · 후반 풍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 것들로, 당시 기녀와 기방 문화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기방 남녀의 애정담 등이 기록되어 있다. 때문에『소수록』은 소개 당시부터 기녀의 생활사와 기방의 풍속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당대가 금기시했던 것들 즉 사랑과 이별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남녀의 적나라한 개인감정의 표출과 돈과 신분 상승에 대한 기녀의 욕망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객의 비판적인 시선과 성적 갈망 등을 작품 속 화자인 기녀와 객의 목소리를 통해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녀 관련 자료에 비해『소수록』의 위치는 더욱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소수록』14편은 역대 기녀들의 실상을 상세히 밝힌 이능화의『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에도 없는 새로운 내용이고『소수록』소개 이후 발굴된 한재락(韓在洛, 1775~1883)의『녹파잡기(綠波雜記)』와도 그 결을 달리한다.『녹파잡기』

1) 국립중앙도서관에 2001년 5월 17일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정병설,「해주기생 명선의 인생 독백」,『문헌과 해석』15, 2001; 정병설,「기생이 본 다섯 유형의 남자」,『문헌과 해석』16, 2001.
3) 정병설,『나는 기생이다 - 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19세기 초 · 중반 평양교방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한문산문으로서 중국 여회(余懷)의 『판교잡기(板橋雜記)』의 영향 아래 있는 청루 관련 문학서라고 한다면,[4] 『소수록』은 19세기 중 · 후반 해주 교방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한글잡록으로서 당대 유흥문화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를 담고 있는 청루 관련 문학서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소수록』은 자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의 가치도 주목해야 한다. 소개자인 정병설도 한국문학사의 걸작이라고 극찬한 제1편 <춘히영명긔명션이라>의 경우 서사적 줄거리를 갖춘 장편이면서도 시조, 상사가, 달거리, 노정기 등 선행문학 양식과 한 · 중 기녀담 및 애정 서사 관련 전고를 적절히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문학작품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세련된 구성력과 수사법의 활용은 비단 이 작품에서만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개별작품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를 지닌 『소수록』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왔고 근 20년간 제출된 연구성과도 상당량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상당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자료에 관한 접근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자료의 소개 당시 방향은 『소수록』을 기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기녀문학 작품집'이라고 하였고 이 중 기녀가 화자로 등장하는 제1편 <춘히영명긔명션이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 등 주요 작품들은 '기녀 자술가(自述歌)'라고 하면서 기녀가 쓴 가사작품이라고 하였다. 최초 소개자의 이러한 관점은 이후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 즉 『소수록』을 가사 장르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심화한 연구들[5]과 기녀 존재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의식과 자기 서사 전략을 고찰한 연

4) 『녹파잡기』에 관한 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재락 지음, 이가원 · 허경진 옮김, 『녹파잡기 - 개성 한량이 만난 평양기생 66인의 풍류와 사랑』, 김영사, 2007; 안대회,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파잡기 연구」, 『한문학보』 14, 우리한문학회, 2006; 허경진, 「『녹파잡기』를 통해 본 강남 서적의 유입과 그 영향」, 『중국학논총』 29,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조상준, 「『녹파잡기』 속 경화세족과 어울리던 평양 명기들의 풍속연구」, 『아태연구』 제16권 제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9.

5) 박애경, 「조선후기 장편가사의 생애담적 기능에 대하여 - <이정양가록>과 <소수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박애경, 「'록자류'가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3; 송재연, 「『소수록』을 통해 본 기녀의 가사 창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학회 제45차 학술발표회 논문집』, 한국시가학회, 200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구들,[6] 그리고 기타 기녀의 생활사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연구들[7]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제출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양상에 포섭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연구는 최초 소개자의 견해를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출해 왔지만 결국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최초 소개자가 애기했던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최초 소개자가 소개 당시 제시한 『소수록』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 같은 관점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소수록』을 기녀의 자술이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 자료의 성격 또한 대체로 가사집 위주로 이해를 해 왔는데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가? 또 편찬자 문제와 관련해서 14편의 편찬자를 대체로 각 작품 속 화자로 보아왔는데 여기에도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근거는 충분한 자료적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는가?

이러한 본고의 문제 제기는 다수의 작품에서 반복되고 있는 『소수록』만의 독특한 전고와 유사 표현들, 제목과 구성에서 보이는 문제들, 수록된 14편 전편이 이제껏 알려진 바가 없는 신출 작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편은 하나의 주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선행연구의 관점이 전혀 해명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자료의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이와 같은 문

---

6) 박혜숙, 「여성 자기 서사체의 인식」, 『한국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02; 박혜숙, 「기생의 자기서사 - 기생 명선 자술가와 내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한국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02; 이화형, 「기생시가에 나타난 자의식 양상 고찰 - 작가의 자기 호명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학회, 2011; 김신영, 「기녀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자기존재의 표출방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황혜진, 「조선시대 기생의 몸에 대한 자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김정석, 「기녀가사의 내면 의식과 태도 고찰 - <ㅈ호영명긔명션이라>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박수진, 「『소수록』에 나타난 기생들의 내면 의식과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박수진, 「<ㅈ힙영명긔명션이라>의 욕망 구조 고찰 -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47, 온지학회, 2016; 박수진, 「나 아닌 또 다른 나 - 기생의 호명(呼名)」, 『문헌과 해석』 76, 태학사, 2016.

7) 신경숙, 「19세기 일급 예기의 삶과 섹슈얼리티 - 의녀 옥소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이기대, 「근대 이전 한글 애정 편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이형대, 「소수록」, 신경숙 · 이상원 · 권순회 · 김용찬 · 박규홍 · 이형대,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가 해결된다면 『소수록』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방향의 자료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성격을 지닌 자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개별작품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은 물론이고 그동안 쟁점으로 지속되어왔던 일부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소수록』에 관한 문제는 선행연구의 오류를 답습만 한 채로 이대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소수록』 연구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본고가 이 연구를 착수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이고 필요성이다.

2. 연구사 검토

『소수록』은 19세기 중 · 후반 기방문화 및 기녀와 관련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소수록』 관련 연구는 정병설의 소개 이후 상당기간 동안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꾸준하게 진행되어왔으며 그에 따른 연구성과도 꽤 여러 편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들 성과의 대부분은 연구의 질적 측면이나 방향성 측면에서 보자면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들 성과는 하나같이 자료의 근본적인 측면을 점검하지 않은 채 최초 소개자의 견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하였고 결국 선행연구의 자장 안에서 계속 반복·변주되는 유사한 성과만을 제출하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우선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최초 소개자의 『소수록』 소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정병설은 『소수록』을 기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기녀 문학 작품집'이라고 하였고, 이 중 주요 작품들, 즉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중가> 등 기녀가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들은 '기녀 자술가(自述歌)'라 명명하고 기녀가 쓴 가사작품으로 보았다. 요컨대 이 소개 내용은 '기녀'와 '자술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소수록』은 '기녀가 쓴 가사집'이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다. 소개 당시의 이러한 메시지는 후속연구에 충실히 반영되어 다음 세 가지 갈래의 논의로 이어진다.

먼저 가사 장르에 초점을 두고 『소수록』을 연구한 경우이다. 박애경은 조선후기 가사의 장편화를 다루면서 기녀의 생애를 담은 <소수록>을 연구하였고,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를 책의 제목 '소수록'과 동명의 가사로 보고 자전 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열의 '녹자류 가사'로 규정하였다.[8] 이 연구는 가사의 제목명이 '록'으로 끝나는 일군의 작품을 '녹자류 가사'로 범주화하고 58종의 가사를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대상자료로서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를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판단된다. 책의 제목 '소수록'과 작품명 '촌힉영명긔명션이라'는 이 책의 편집 체재로 보아 엄연히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 또한 순수한 가사작품이라고 보기에는 작품의 구성적인 측면을 보아도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자의 이 같은 견해는 이어지는 후속연구에 계속 여파를 미쳐서 '소수록'은 '촌힉영명긔명션이라'이고 최초 소개자가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 즉 '『소수록』은 곧 가사집이다'라는 인식을 여러 연구자에게 분명하게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연구, 즉 기녀 존재에 초점을 두고 19세기 중 · 후반 기녀의 의식과 그들의 자기서사 전략 양상을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박혜숙은 중세시대 여성, 특히 기녀계층의 자기서사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고찰하면서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를 검토하였다. 애초에 기녀 명선은 정절과는 무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술의 지향은 절개 있는 여성으로 이미지화하였는데, 이것은 기녀로서 자신을 부정하고 지금의 성공을 이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명선이 의도적으로 허구를 가미하여 구축해낸 서사라고 하였다.[9] 김신영은 기녀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자기 존재 표출방식을 고찰하면서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와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 그리고 제7편 <수숨셩충이 회양한당ᄒᆞ여 탄화로 졉불ᄂᆡ라>를 검토하였다. 기녀는 이들 작품에서 열(烈) 행위 혹은 자기 수용을 통해, 고사와 비유를 통해,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표출하고 있다고 보았다.[10]

이화형은 기생시가에 나타난 자의식 양상을 고찰하면서 현실적 갈등과 비애가 드러난 예로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를 언급하였고,[11] 황혜진은 기녀가 자기 몸에 대해 느끼는 자의식 양상을 고찰하면서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와

8) 박애경, 앞의 논문들.
9) 박혜숙, 앞의 논문들.
10) 김신영, 앞의 논문.
11) 이화형, 앞의 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를 검토하여 전작(前作)의 명선은 몸과 마음이 분리된 객체적 자의식을, 후작(後作)의 옥소는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주체적 자의식을 보여주었다고 했다.[12] 김정석 역시 기녀가사에 나타나는 내면의식과 삶의 태도를 분석하면서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를 검토하였다.[13]

박수진은 『소수록』에 수록된 전체 작품의 검토를 통해 기녀의 내면의식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소수록』을 당시 하위 주체의 일탈과 지배와 저항의 모습이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하였다. 또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의 검토를 통해 각 인물의 욕망구조를 살폈으며,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는 딱딱한 점고시간을 피하고자 하는 기녀들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서 놀이문화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14]

이상의 연구들은 나름의 고찰을 통해 기녀가 자신의 의식을 어떤 식으로 글로 표출해냈는가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제출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검토한 이유는 이들 연구가 다 같이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들 연구가 기녀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본적인 전제는 기녀가사라는 최초 소개자의 관점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선행연구의 자장 안에서 계속 반복 · 변주되는 유사한 성과만을 제출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이들 연구는 『소수록』에 14편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주요작품, 즉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 등 기녀가 화자로 등장하는 극히 일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는 『소수록』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이 『소수록』의 맨 처음에 배치가 된 점과 분량이 가장 많다는 점, 그리고 서사적 줄거리를 가진 장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구성력과 세련된 수사법의 활용으로 수준 높은 문학성까지 획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작으로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작품이다. 게다가 실제 해주 기녀 명선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높은 사료적 가치까지

12) 황혜진, 앞의 논문.
13) 김정석, 앞의 논문.
14) 박수진, 앞의 논문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니고 있어 주목받아 마땅한 작품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소수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모조리 특정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과연 특정 작품에 편중된 연구로써『소수록』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가?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연구자가 특정 작품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작품을 유난히 강조했던 최초 소개자의 영향을 또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소수록』과 관련하여 이전의 성과와는 다른 새로운 측면들을 좀 더 보려고 한 논의도 있었다. 비교적 최근에 제출된 박수진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결론 부분에서 보여주는 약간의 새로움을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초 소개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에 포함시켜 검토하였다.

이 밖에 기녀의 생활사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남는다. 신경숙은 조선후기 일급 여악 예기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다루면서 의녀 옥소선과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의 명선과의 관계망을 통해 기녀의 일상을 조망하였다.[15] 이 논문은 기녀를 성적 대상 혹은 유흥의 대상이 아닌 예술인으로서도 바라봐 줄 것을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기대는 근대 이전에 작성된 한글 애정 편지에 주목하고 기녀가 써서 주고받은 편지로 제5편 <ᄃᆡ다졍ᄉᆡ자ᄒᆞ여 작구압가인셔라>와 제6편 <답중>, 그리고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 제12편 <단충이라>와 제13편 <답이라>를 검토하여 결과를 제출하였다.[16] 하지만 결과로 제출된 편지의 성격 역시 최초 소개자의 해석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논문의 공통된 문제는『소수록』연구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다른 이야기 즉 기녀의 생활사 전반을 이야기하면서『소수록』의 일부 작품들을 끌어와서 참고 수준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성과 역시『소수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논의들이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지금까지 연구한 논문들은 꽤 장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했지만 근본적으로 최초 소개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작품에서 얻은 결론들을 일반화하여『소수록』전반을 파악하려고 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

15) 신경숙, 앞의 논문.
16) 이기대, 앞의 논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편 비록 몇 편에 불과하지만 최근에 제출된 일부 논문들은 기존 연구들과는 완전히 관점을 달리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록』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김혜영은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소수록』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작품까지 해석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먼저 『소수록』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이 자료의 성격은 가사집이 아닌 기녀 관련 '잡록'이라는 것과 그 내용상 기녀의 자기서사가 담긴 것은 사실이나 기녀가 직접 쓴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일인의 남성 작자에 의해 편집 내지는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또 '양한당'이란 장소의 추적을 통해 이 자료의 창작 배경에 흥선대원군과 옥소선이 자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17]

또한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에 등장하는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관에는 일인의 남성 작자가 자신의 소설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작품 속에 새로운 전형들을 창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다.[18] 논자의 이 같은 견해는 기존 연구와는 시각을 달리한 것으로서 자료 자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수록』을 기녀가 쓴 가사라는 관점을 벗어나 일인이 편집 내지는 창작한 독서물로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출된 이상원의 견해도 눈길을 끈다. 이상원은 선행연구에서 소외되었던 개별작품에 관심을 가지고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와 제12편 <단충이라> 그리고 제13편 <답이라>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청룡가인과 선달님의 정체는 각각 안성을 근거지로 둔 안성사당과 청주지역의 판소리 명창일 가능성이 높으며, 편지 내용은 두 사람이 이별의 아픔을 공유하고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였다.[19] 이 견해는 작품의 정밀한 독해를 통해 화자의 정체와 작품 성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 이를 계기로 『소수록』의 나머지 작품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동시에 『소수록』 전반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논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본고가 가지는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17) 졸고, 「『소수록』의 성격과 작자 문제」, 『어문론총』 61,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18) 졸고, 「『소수록』의 소설 수용과 그 의미 - <논창가지미>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14.
19) 이상원,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학회, 201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따라서 본고는 기녀 관련 잡록인 『소수록』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선행연구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 자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및 서술 방향

본고의 연구 범위는 『소수록』 14편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특별히 『소수록』의 잡록적 성격에 대해 논하는 Ⅲ장 1절 2항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소수록』의 전고 수용의 특징에 대해 논하는 Ⅲ장 2절 2항에서는 그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ᄉᆞᆷ명긔로 논충가지미라>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소수록』은 기존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룬 바가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소수록』은 대체로 기녀의 자술 및 기녀 관련 가사집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필자는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이 자료의 꼼꼼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수록』은 일인의 남성 작가가 기녀 존재 가치를 높이고 찬양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14편의 글을 엮은 것이라고 보았고 가사집이 아닌 잡록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다음의 논리과정을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소수록』의 서지적 특징과 창작 배경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는 『소수록』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작업이다. 서지적 특징에서는 이 책이 보여주는 모든 특징들을 고찰하되 특히 이 책의 편찬자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창작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동시에 살피되 특히 공간적 배경에 집중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책의 성격과 편찬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 공간적 배경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Ⅲ장은 『소수록』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과 편찬 의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소수록』의 성격을 잡록적 성격, 애정담 수용에 나타난 특이 양상, 구체적인 서술 셋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한 『소수록』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 책의 편찬자가 지향하는 주제와 편찬 의식을 정리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장은 Ⅱ장과 Ⅲ장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소수록』의 문학사적 의의를 3가지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Ⅴ장은 결론으로서 본론에서 서술한 내용을 요약 · 정리하고 향후 기대하는 측면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소수록』의 서지적 특징과 창작 배경

1. 서지적 특징

『소수록』은 천민계층인 기녀와 그들이 몸담고 있는 기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가진 자료이다. 아직까지 이 책과 관련된 기록이나 언급은 전혀 발견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오로지 『소수록』에 실린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이 책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록』의 성격과 편찬자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이 책의 서지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국면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소수록』은 19세기 중 · 후반 기녀 및 기방문화와 관련된 글들이 수록된 한글 잡록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이며, 1권 1책의 한글 필사본이다. 크기는 세로×가로가 28.4×20.0cm이다. 분량은 표지를 포함하여 총 64장이고 본문은 125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제(標題)는 '쇼수록 뎐'으로, 내제(內題)는 '쇼슈록'으로 적혀 있고 뒤표지에 '消愁錄'이라고 흐리게 쓴 한자 표기가 발견되었다. 이 책에는 글의 종류가 다른 총 14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각 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제1편 <ᄎᆞᆫᄒᆡ영명ᄀᆡ명션이라>	(1～34)[20]
제2편 <ᄌᆞᆼ안호걸이 회양ᄒᆞᆫ당ᄒᆞ여 여슈ᄉᆞᆷ명ᄀᆡ로 논ᄎᆞᆼ가지미라>	(34～52)
제3편 <죵순이라>	(52～56)
제4편 <찬일도미ᄋᆡ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	(56～58)
제5편 <ᄃᆡ다졍ᄉᆡ자ᄒᆞ여 작구압가인셔라>	(58～62)
제6편 <답ᄌᆞᆼ>	(62～69)
제7편 <수ᄉᆞᆷ셩ᄎᆞᆼ이 회양한당ᄒᆞ여 탄화로졉불ᄂᆡ라>	(69～76)
제8편 <쳥누ᄀᆡ우ᄀᆡ라>	(76～82)
제9편 <단ᄎᆞᆼ화답이라>	(82～83)
제10편 <답죠라>	(84～85)

20) 괄호 안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 (85~106)
제12편 <단충이라> (106~107)
제13편 <답이라> (107~118)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 (118~125)

책의 구성은 14편의 작품이 '소슈록 뎐'이란 표제 아래 서문 · 발문이 없이 본문 내용만 125면의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 1면 첫째 줄의 '쇼슈록'은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줄에 "츈히영명긔명션이라"라고 독립적으로 쓰여 있고 셋째 줄부터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후 13편의 소제목과 본문이 이 같은 방식으로 필사된 것으로 보아 '쇼슈록'은 책의 제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책의 제목 '쇼슈록'은 '시름을 해소하는 기록'이란 의미의 '消愁錄'이다. 뒤표지에 흐리게 남아있는 한자 표기가 이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21]

사진 1. <앞표지>

사진 2. <뒤표지>

21) 하지만 편찬자가 쓴 것인지 후대의 소장자나 필사자가 가필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음 인터뷰 내용을 보면 정병설은 소개 당시 이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수록'은 한글 표기로만 되어 있으나 내용이 거의 상사(相思)와 관련한 것이어서 '소수록'이란 제목은 쓸쓸한 회포를 없애버린다는 의미의 '消愁錄'으로 보인다'고 정병설 교수는 밝히고 있다." <중앙일보>, 2001년 3월 29일자 기사 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렇다면 시름의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할까? 편찬자일까, 아니면 독자일까? 『소수록』에 수록된 14편은 모두 기녀와 관련된 글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전적으로 기녀의 입장을 옹호한다거나 그들의 삶과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편찬자와 관련된 시름이라기보다는 기녀들의 시름이라 보는 편이 적절하다 하겠다. 따라서 편찬자는 기녀들이 자신이 편찬한 이 책을 읽고 그들의 시름이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제목을 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면인 125면의 필사기 뒤에는 '쳠수록'이라고 적혀 있다. '쳠수록'은 '쇼슈록'과 연관된 표기로 판단되며 '消愁錄'과 상반된 '시름을 더하는 기록'이란 의미의 '添愁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아마도 원본에는 없던 것을 동객과 같은 후대의 필사자나 향유자 중 어떤 이가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의 감상평을 추기(追記)한 것으로 보인다.[22]

필사기인 '갑오졍월이십오일동긱필셔'의 갑오년은 이 책이 1942년에 도서관에 들어갔다는 점과[23]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의 내용 중에 청(淸)나라의 연호인 '대청도광이십오(1845년)'란 기록을 통해 '1894년'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필사자 '동객'[24]은 東客, 洞客, 僮客 등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객(客)'은 기생집 주위를 떠도는 남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25]

『소수록』의 필체는 일관되지 않아서 여러 명이 필사를 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ㄹ'과 'ㅂ' 그리고 'ㅎ' 등에서 보이는바 독특한 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객' 한 사람이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정은 최소한 동객을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 곳의 수정된 필체를 보면 필사자 동객과 또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필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

22) '첨수록(添愁錄)'과 관련하여 이미 흥미로운 견해가 제출된 바가 있다. 이상원은 "한편 『소수록』을 한 명의 남성 작가가 집필한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책의 말미에 낙서하듯 써놓은 '쳠수록'은 굉장히 흥미롭게 해석될 수 있다. 남성 작가는 하층 여성들이 이 글들을 읽으면서 근심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수록(消愁錄)』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작 독자인 하층 여성들은 읽어 보니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해지더라는 의미에서 『첨수록(添愁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원, 앞의 논문, 각주 48번.

23) 이 책은 조선총독부도서관에 쇼와 17년(1942년) 10월 5일에 들어간 것으로 도서관 인장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정병설, 앞의 책, 13면.

24) '동긱'은 장소명일 가능성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병설의 주장에 따라 필사자로 보기로 한다.

25) 정병설, 앞의 책, 1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필사자 동객은 현재 남은 유일본과 동일한 형태의 『소수록』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이를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6편 <답중>의 끝부분(영인본 66~68면)을 보면 두 군데서 잘못 전사한 흔적을 크게 남기고 있는데, 가령 앞과 동일한 표현이 다시 나오자 착각을 하고 또다시 앞의 문장을 전사했다가 이를 삭제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26]

『소수록』은 『나는 기생이다 - 소수록 읽기』에 함께 실린 <군산월애원가>, <별실자탄가>, <녹의자탄가> 등의 여타 기녀 관련 가사와 비교를 해 보아도 작품 수준이 상당히 높다. 작품에 적절히 인용된 전고를 보면 편찬자는 상당히 폭넓은 독서 이력을 가진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한 · 중 애정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작품의 수준에 비해 필사본에는 전고의 오기(誤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이로 보아 필사자 '동객'은 『소수록』을 단순 필사한 인물로서 『소수록』의 편찬자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소수록』의 필사 방식은 일반적인 가사집의 형태보다는 필사본 소설의 형태와 더 닮아있다. 보통 가사의 경우 필사는 한 면에 단을 나누어 필기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소설은 단을 나누지 않고 내용을 연달아 필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가사의 경우 단을 나누지 않고 연달아 필기하는 방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한 면에 단을 나누어 필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27] 그런데 이 책은 19세기 독서문화의 한 축을 보여준 '세책본(貰冊本)'과 많이 닮아있다.

'세책본'은 세책 가운데 필사본으로 유통된 고소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세책본'만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28] 그러한 형태적 특징 중에 『소수

---

26) "ᄂᆡ 역시 구구한 죠로셰ᄉᆞᆼ에 마음이 쇼연할 ᄲᅮᆫ 아니오라, 진실한 ᄌᆡᄌᆞ 업시미 평ᄉᆡᆼ 유한이오니, 춤으로 남을 위ᄒᆞ여 죽난 ᄉᆞ람이 이슬진던 ᄂᆡ 비록 쇼쇼한 안여ᄌᆞ나 남을 홀노 죽게 할 거시 아니오라, 츅영ᄃᆡ의 옛일을 효측ᄒᆞ여 여류잔명을 홍노 갓치 여기렷만"을 "ᄂᆡ 역시 구구한 죠로셰ᄉᆞᆼ에 마음이 쇼연할 ᄲᅮᆫ 아니오라, 진실한 ᄌᆡᄌᆞ 업시미 평ᄉᆡᆼ 유한이오니, 춤으로 남을 위ᄒᆞ여 죽난 ᄉᆞ람이 이슬진던 ᄂᆡ 비록 쇼쇼한 안여ᄌᆞ나 남을 홀노 죽게 할 거시 아니오라, 진실한 ᄌᆡᄌᆞ 업스며"라고 적어서 이 부분을 통째로 삭제한다는 표시를 남겨두고 있다.

27) 예를 들어 『주해 고가요 기초』의 부록으로 실린 원전 영인 자료를 보면, 가사의 경우는 한 면에 단을 나누어 필사되었고, 고소설이나 단형 서사물의 경우는 단을 나누지 않은 필사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원 · 김진욱 · 김미령 지음, 『주해 고가요기초』, 보고사, 2009.

28) 김동욱은, "표지를 삼베 같은 것으로 싸고, 위에서 둘째 장책 구멍에 끈이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설, 희서 같은 것이 쓰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특성을 간략하게 드러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책장을 넘기는 부분의 1, 2행은 다른 행에 비하여 1~3자 정도 덜 쓰여 있고, 매 행은 대략 13~14자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11~18자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②각 권은 매면 11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나 간혹 7~9행, 10행 또는 12행 또는 13~14행, 특이하게 8~12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료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록』은 책장을 넘기는 부분의 1, 2행이 다른 행에 비해 1~3자 정도 덜 쓰여 있는 점, 매행이 대략 18자 정도인 점, 매면 11행으로 이루어진 점, 끝에 추가의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이 비슷하다. 그러나 '세책본'보다 분량이 거의 2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꼭 '세책'의 용도로 필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편찬자나 필사자가 독자를 위해 '세책본'의 구성 체재를 본뜬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단 예외적으로 시조 작품과 '호명기'를 필사한 방식만은 다른 작품을 필사할 때와 구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29] 아마도 편찬자는 가창을 위한 내용은 따로 구별하려는 의식이 있었기에 이처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편의 소제목의 표기 방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제목은 한글로 표기하였으나 원래는 한문 문장에 토가 달린 한문현토체(漢文懸吐體)라는 것을 알 수 있다.[30] 이런 표기 방식은 14편의 소제목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으며, 이들 제목은 마치 한문 문집의 시(詩) · 문(文) · 잡저(雜著) 등의 제목처럼 작품의 내용이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서술 중에도 이러한 한문식 표현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31]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는 편찬자가 평상시 사용했던 언어 습관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문학에서 한문과 한글의 문체 선택은 단순히 표기수단의 차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르 선택과 창작 계층 및 향유 계층의 문학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32] 『소수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편찬자가 기녀 독자를

도 나타난다. ③각 장의 앞면 상단에 해당 장수를 한자로 표기하나, 해당 장수 표기가 전혀 없는 자료들도 있다. ④한 권의 장수는 대부분 30장 내외로 이루어졌으나, 자료에 따라서는 24~6장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많게는 40장 내외로 된 것도 있다. ⑤각 권의 끝부분에는 '차쳥하회ᄒᆞ라' · '차간하문ᄒᆞ라' 등과 같이, 뒷이야기의 내용을 듣거나 또는 보라는 용어가 다양한 형태로 출현한다. 예를 들면 '분남할지어다', '분남ᄒᆞ라', '분셕하문ᄒᆞ라', '분셕하회ᄒᆞ라', '분셕ᄒᆞ라', '분셕ᄒᆞᆯ지어다', '분하ᄒᆞ라', '분힉ᄒᆞ라', '셕남하문ᄒᆞ라', '셕남하라', '쇽쇽하문ᄒᆞ라' 등이 그것이다. ⑥필사기는 대개 "셰지무신 삼월일 향슈동 필셔"와 같이 그 간기(刊記)와 간소(刊所)가 명시되어 있다. ⑦권말의 서술이 다시 한번 이하 권의 서두에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되어 나타나는 면모를 띠고 있다.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總量 · 刊所(刊記) · 流通樣相을 중심으로」, 『古小說硏究』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448~449면 재인용.

29) 『소수록』에 수록된 시조 21수와 제14편 <힉영명긔졈고호명긔라>의 40명의 해주 기녀 이름은 모두 새로운 행에서 시작하고 있다.

30) 단 예외적으로 제6편 <답중>과 제11편 <쳥뇽가인한충가>에는 토가 붙지 않았는데, 이는 필사 과정의 실수라기보다는 편찬자가 작품의 내용을 잘 드러내기 위해 처음부터 일부러 토를 붙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1) 이러한 한문식 표현의 한 예로 제11편의 화자인 청룡가인의 "ᄂᆡ곳지어(至於) 님의고지/ 불과빅니 ᄂᆡ외여날"이라고 말한 것을 들 수 있겠다.

32) 장성남, 『대한매일신보 시가 연구』, 보고사, 2010, 19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해서 한글잡록을 지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습관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쓰던 한문 소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것이 제목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작품의 소제목 명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수록』의 주요 작품들을 가사라고 보려면, 우선 14편의 소제목은 '-가(歌)', '-사(詞)', '-별곡(別曲)', '-곡(曲)'으로 끝나는 가사 제목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33] 그런데 14편의 소제목을 보면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만 순한글 '-가'로 끝나고 있고 나머지 13편의 제목은 가사의 제목과는 유사성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상당수 작품이 문체적 측면에서 가사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가령 제4편 <찬일도미인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와 제7편 <수숩셩충이 회양한당ᄒᆞ여 탄화로 졉불니라>[34]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사체 형태로 서술되어 있으며 나머지 작품들에도 이러한 가사체 형태의 서술은 상당한 분량이 산재(散在)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의 경우만 제목에서 가사의 형태를 갖춘 것을 보면, 편찬자는 가사인 작품과 가사가 아닌 작품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편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수록된 14편이 오로지 『소수록』에만 실려 있는 신출 작품들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순수 창작물로 이루어진 문집이 아닌 편집물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는 흔치 않다. 구체적인 예로 14편에 등장하는 시조 21수만 보아도 기존의 어떤 가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출 시조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더구나 이들 시조는 전체 시조 간 형태와 정감이 유사하다는 공통점까지 지니고 있어 이 책의 편찬자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상으로 이 책의 서지 사항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국면들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소수록』은 단순하게 접근할 자료가 아닌 정말 독특한 성격을 지닌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록』은 '시름을 해소하는 기록'이란 뜻의 '消愁錄'임이 뒤표지의 한자 표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소수록』은 가사집보다는 세책본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특히 기녀와 관련된 특이한 한 · 중 애정담이 전고로 많이 인용되었다. 셋째 『소수록』은 한글로 기록되었지만 14편의 소제목과 작품 전체 서술에서 한문

33) 이임수, 『한국시가문학사』, 보고사, 2014, 279~281면.
34) 두 작품은 3 · 4조나 4 · 4조의 완전한 가사체 음수율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련 문체나 표현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소수록』에 수록된 상당수의 작품이 문체적 측면에서 보면 가사체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사라고 할 만한 작품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로 한정되었다. 다섯째 수록된 14편은 시조 21수를 포함하여 모두 신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이제 이렇게 추출된 서지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소수록』의 성격과 편찬자 문제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하겠다.

2. 창작 배경

14편 작품 중에는 시간적 배경의 추정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에는 해주 기녀 명선이 '대청 도광 25년(1845년)'에 정인을 만났다라고 밝히고 있고,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에는 20세인 청룡가인이 '무신년(1848년) 이월'에 정인을 만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도 수록된 40명의 기녀 이름에 주목해 보면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1880년 12월에 초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객 안민영(安玟英, 1816~1885년 이후)의 개인 가집 『금옥총부(金玉叢部)』엔 4인의 해주 기녀, 즉 은향, 연연, 옥소선, 도화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 중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에는 은향과 연연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옥소선과 도화의 이름만 보인다.[35] 그런데 은향과 연연에 관한 기록은 『금옥총부』 162번과 78번 주기(註記)를 통해 확인된다.[36]

> 1
>
> 나는 정묘년(1867년) 봄에 박선생경화(朴先生景華) · 안경지(安慶之) · 김군중(金君仲) · 김사준(金士俊) · 김성심(金聖心) · 함계원(咸啓元) · 신재윤(申在允)과 함께, 대구의 계월(桂月) · 전주의 연연(姸姸) · 해주의 은향(銀香) · 전주의 향춘(香春) 및 일등 공인 한 패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에 올랐다. 이 때에 곧 백화가

35) 40명 해주 기녀 이름이 실려 있는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의 아홉 번째에는 "**도**리춘풍 ᄌᆞ랑 마쇼/ **화**노ᄒᆞ면 졉불니라/ 여류광음 덧업시니/ ᄆᆡ양으로 미들숀가/ **도화**"가, 서른두 번째에는 "**옥쇼**을 부난곳시/ **션**동의 유련쳐요/ 쳥숑 녹임ᄒᆞ난/ 학의깃시 분명ᄒᆞ다/ **옥쇼션**"이 실려 있다.

36) 이하 『금옥총부』의 숫자는 인용 작품의 가번(歌番)임을 미리 밝혀 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투어 피고 만산에 붉고 푸른 빛들이 서로 어리어 그림 같았으니, 이것이 이른바 가히 만날 수 없는 좋은 경치 속의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삼일을 질탕히 지내고 돌아왔는데, 송파진에 이르러 배를 타고 내려오다 한강에서 뭍에 내렸다. (<금옥총부>)[37]

2
해주의 기녀 연연(娟娟)이가 정축년(1877년) 진연 때에 올라왔기에, 벽강(碧江) 김군중(金君仲)과 더불어 며칠 밤 동안 노래와 거문고의 모임을 가졌다. (<금옥총부>)[38]

1은 안민영이 해주의 은향과 1867년에 만난 것을 기록한 것이고, 2는 역시 안민영이 해주의 연연과 1877년에 만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로 보아 옥소선과 도화가 실려 있는 '해주 기녀 점고'의 내용은 최소한 은향의 기록이 보이는 1867년 이후, 연연의 기록이 보이는 1877년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39]

일부 작품에 한정된 시간적 배경의 파악과 추적이긴 하지만 『소수록』은 대략 1845년부터 1877년 이전까지의 일들을 수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의 편찬은 가장 늦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제14편 <희영명긔졈고호명긔라>와 거의 동일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40] 따라서 이 책의 편찬 시기는 1867년~1877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소수록』의 창작 배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장소는 두 곳이다. 먼저 주목할 장

37) "余於丁卯春 與朴先生景華 安慶之 金君仲 金士俊, 金聖心, 咸啓元, 申在允, 率大邱桂月, 全州姸姸, 海州銀香, 全州香春, 一等工人一牌, 卽上南漢山城, 時則百花爭發 萬山紅綠 相暎爲畵 是所謂不可逢之勝槪佳會也 三日迭宕而還 到松坡津 乘船下流 漢江下陸", 『금옥총부』 162번 부기, 이하 본고의 『금옥총부』 현대역은 안민영 원저, 김신중 역주, 『역주 금옥총부』, 박이정, 2003을 따를 것이고, '(< >)'의 표시는 인용문의 작품명이다.

38) "海州妓娟娟 於丁丑進宴時上來 而與碧江金君仲 有數夜歌琴之會", 『금옥총부』 78번 부기.

39) 물론 『금옥총부』에는 옥소선과 도화에 관한 기록도 등장한다. 옥소선에 관한 시조는 『금옥총부』 22, 53, 113, 121, 123, 125, 129, 143, 163, 179번에 10회에 걸쳐 등장하며 시간적 배경을 밝힌 작품들도 몇 수 있다. 1873년 이전 궁중 진연에 참석했다가 해주로 내려간 후 이해 봄에 다시 올라와 운현궁의 대령기생으로 입역하고, 그해 가을 탈면되어 내려갔다는 기록과 1876년엔 안민영이 병중인 옥소선을 만났다는 기록, 1877년엔 안민영이 옥소선과 헤어져서 몹시 아팠다는 기록 그리고 1880년 단애대회(丹崖大會)에서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도화에 관한 시조는 『금옥총부』 84번에 1수가 등장하나 시간적 배경은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옥소선과 도화가 나란히 제14편 <희영명긔졈고호명긔라>에 실릴 수 있는 시기는 옥소선이 안민영과 어울리며 전국적으로 한창 이름을 알리던 시기이기도 한 은향과 연연의 기록을 제외한 시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40)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후 서술을 통해 그 근거가 계속 보강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는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와 제14편 <힉영명긔졈고호명긔라>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해주 감영'이다. 이 두 편의 소제목엔 '힉영명긔'라는 동일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힉영(海營)'은 황해도 해주 감영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장소는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와 제7편 <수숨셩충이 회양한당ᄒᆞ여 탄화로졉불ᄂᆡ라>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양한당(養閑堂)'이란 당호(堂號)이다. 이 두 편은 '양한당'이란 장소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수삼'이라는 기녀 숫자와 '기녀 존재 가치'와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이라는 대화의 화제까지 동일하여 두 작품 간 연관성은 매우 긴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3편 <죵순이라>도 등장인물 간 '기녀 존재 가치'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토론 형식의 글이므로 이들 작품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제4편 <찬일도미인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도 앞편에서 주장했던 '가인천하보물론'의 직접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작품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판단된다.[41] 따라서 모두 4편이 '양한당' 관련 작품에 해당된다.

이처럼 『소수록』의 여러 작품에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는 '해주 감영'과 '양한당'은 창작 배경은 물론 편찬자 추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 중 '해주 감영'은 해명할 필요가 없고 '양한당'에 대해서는 따로 추적이 필요할 듯하다.

'양한당'이란 당호는 전국에 여러 곳이 확인되지만, 『소수록』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두 곳으로 압축된다. 먼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위치한 박윤원(朴胤源, 1734~1799)의 '양한당'이 있고,[42]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장소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사패골의 문태영(文泰榮, 1863~1933년)의 '양한당'이 있다.

이 두 장소 중 서울 구로구 궁동에 위치한 박윤원의 '양한당'은 박윤원의 생몰 시기로 볼 때 그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경기도 의정부시의 '양한당'만 남는다. 제2편의 제목에 등장하는바 '장안호걸'[43]의 주요 활동 권역은 서울 시내와 서울 근교일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 의정부시는 그 주요 활동 권역으로 충분히 가능성

41) 정병설도 그의 단행본 현대역 부분에서 제3부 "기생이 보는 눈, 기생을 보는 눈"이라는 주제 아래 작품 제2, 3, 4, 7편을 연이어 배치하였다. 정병설, 앞의 책, 170~212면.

42) <양한당좌우잠(養閒堂座右箴)>은 말년에 박윤원이 아우 박준원(朴準源, 1739~1807)과 함께 머물던 당(堂)에 적은 잠(箴)으로, 이때 형제가 머물던 당의 이름이 '양한당'이다. 朴胤源, 「箴」, 『近齋集』 卷之二十二, 『한국문집총간』 250, 한국고전종합DB 참조.

43) '장안호걸'은 왈자의 미칭이다. 왈자는 일정한 직업 없이 노는 부류로서 이들을 구성하는 주부류는 다음과 같다. 기술직 중인의 일부; 역관, 경아전층: 서리 · 겸인, 액예: 대전별감 · 무예별감, 군교: 군영 장교 · 포교, 관서 하예: 승정원 사령 · 의금부 나장, 시전상인: 이른바 전시정(廛市井)이다. 강명관, 『조선후기 여항문학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7, 12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있는 지역이다. '양한당'에 관한 정보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직동교 옆에 세워진 '문태영 선생 공덕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덕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생의 자는 화일(華一), 호는 영제(甯齊)로 1863년에 태어나 1933년에 71세로 서거하시었다. 1900년 종사관으로 처음 벼슬에 올라 이후 6품까지 승품하셨지만 관직에 뜻이 없어 사퇴하셨다.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가문의 화합을 위한 사업과 남을 위한 선행에 힘쓸 따름이었다. 선생이 이곳 곧은골에 세우신 '양한당(養閑堂)'에는 한때 권좌에서 물러난 흥선대원군이 머물기도 하였다.[44]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는 흥선대원군이 지난날 상당 기간 머물렀다는 '직곡산장(直谷山莊)'이 있던 곳이다. '직곡산장'은 당시 이 일대가 '직동(直洞)' 혹은 '직곡(直谷, 곧은골)'으로 불렸기에 그 지명을 따서 붙인 것이다. 그러나 위의 문태영 공덕비의 내용에 따르면, 이 '직곡산장'은 원래 정식 명칭이 '양한당'으로 이 건물은 문태영이 지은 것이고, 흥선대원군은 이것을 잠깐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직곡에 머물렀을 때 문태영은 겨우 12살이었는데, 이 이전에 문태영이 '양한당'을 건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영효(朴泳孝, 1861~1939년)가 지은 문태영 묘비문의 기록엔 문태영의 가산(家産)이 나아진 것은 수십 년 후의 일이라는 내용에서 공덕비의 기록이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흥선대원군이 떠난 후에 문태영이 직곡산장을 인수하였다는 현지 증언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흥선대원군이 머물렀던 '직곡산장'은 원래 흥선대원군 소유의 '양한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45]

따라서 각종 기록에서 '양주 직동의 작은 별장(楊州直洞小庄)'[46] 또는 고종의

---

44) 현재 직동교 옆에 세워진 공덕비를 설명한 표지문의 내용은 의정부문화원에서 자료 제공을 한 것이다.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시정40년사』제1권,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2004, 767~768면.

45) 훗날 직곡산장의 주인이었던 문태영과 흥선대원군의 관련성에 대해 의정부시에서 최근 발간한 『의정부시사』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사』 6,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2014, 108~121면.

46) "玉露에 눌린 꼿과/ 淸風에 나는 닙흘/ 老石에 造化筆노 깁 바탕에 옴겨슨져/ 美哉라/ 寫蘭이 豈有香가만은 暗然襲人허더라. 석파대로께서는 난을 치는 솜씨가 묘경에 이르러 일세를 독보하셨다. 계유년 봄에 양주 직동의 조그마한 별장에서 편히 쉬시며 틈틈이 난을 치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삼으셨는데, 나 역시 따라 머물며 〈난초사〉 3절을 지어 그것을 관현에 올렸다[石坡大老 以寫蘭透妙 獨步一世 癸酉春 偃息於楊州直洞小庄 有時寫蘭 以補消遣之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친정(親政) 선포 이후 흥선대원군의 거처를 양주의 '행차소(行次所)'[47]로 표현한 것은 바로 '양한당'임을 알 수 있다.[48]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친정이 선포된 1873년 11월부터 1875년 6월까지 고종과 정치적 힘겨루기를 하며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기거했던 것으로 보인다.[49] 이처럼 『소수록』의 주요 공간으로 등장한 '양한당'이 흥선대원군 소유의 별장임을 감안한다면 이 책의 편찬 역시 흥선대원군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따로 추적이 필요치 않았던 '해주 감영' 역시 이 책의 편찬과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앞에서 파악했던 서지적 특징들은 편찬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14편의 소제목에 보이는 한문현토체와 본문 여기저기에서 한문 관련 문체나 표현법이 사용된 것을 보면, 『소수록』의 편찬자는 원래 한문에 익숙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한문에 익숙했던 사람이 14편을 모아 한글잡록을 편찬했다는 사실이다. 가령 한문에 익숙했던 사람, 즉 상층계층의 남성이라면 잡록을 지을 때 표기 문자로 당연히 한문을 선택하지 한글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굳이 한글 텍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대개 집안의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50] 『소수록』의 편찬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문에 익숙했던 편찬자가 자신의 편찬 의도에 따라 해주 기녀들을 위해 한글로 잡록을 지은 것

資 而余亦倍留 作蘭草詞三絶 被之管絃].", 『금옥총부』, 3번.

47) 『승정원일기』에 갑술년(고종 11, 1874) 8월 13일, 9월 14일 자 기록에 고종이 축출당해 양주에 기거하고 있는 대원군에게 도승지를 보내 문후할 것과 의관을 보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있다.

48)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최근에 공개된 일본 동양문고 소장 『조선인양팔백(朝鮮印樣八百)』의 인문도 덧붙이고자 한다. 『조선인양팔백』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사용하던 인장 829방이 실려 있는 인보(印譜)로서 이 중에는 대원군(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인장 90방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표제 옆에 '大院君印譜'라는 소제목까지 붙어 있다. 『소수록』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다른 문예물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인물들이 작품 속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가령 제1편 <츈히영명긔명션이라>의 논평 부분에 "인싱 ᄉᆞ셰의 너의 옥부향신을 졉지 못ᄒᆞ며 단정옥노을 맛보지 못할진딘 셰숑의 난것시 허수ᄒᆞ고"라는 표현 중에 '단정(丹井)'과 '옥로(玉露)'라는 단어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작품 속에 이 두 단어가 같이 쓰인 예도 없거니와 따로 쓰인 예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조선인양팔백』의 인장 중 '丹井玉露'라는 인문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을 요한다.

49) 흥선대원군이 직곡산장에 머문 기간은 8개월에서 많게는 1년 6개월 정도까지 추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 앞의 책, 108~109면.

50) 홍대용의 경우 자신의 중국 견문 기록을 남성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문본 『연기』를, 집안의 여성 독자들을 위해서는 한글본 『을병연행록』을 남긴 사례가 있다.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 듯 보이지만 한문과 한글 모두에 능해야 가능한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수록』이 세책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작품에 허다하게 인용된 소설 관련 전고들을 보면 편찬자는 소설의 특징이나 소설적 관습에도 익숙했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책에 인용된 적지 않은 전고를 이 자리에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인용된 전고들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상층계층들이 많이 읽었을 법한 일반적인 소설들은 물론이고 일반화 · 보편화 되지 않았던 소설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51] 편찬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소설 독서를 했던 사람이고 소설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소양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수록』에 수록된 대다수 작품이 문체적 측면에서 보면 가사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전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러 작품에서 시조가 인용되고 있는데 그 시조가 기존의 어떤 가집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편찬자가 직접 지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가사나 시조는 모두 시가 쪽의 영역이다. 이는 편찬자가 시가와 관련해서도 이 방면에 지식적 측면이나 활용의 측면에서 상당한 소양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소수록』은 운문과 산문 양쪽에 다 능해야만 하고 한문과 한글 모두 능한 사람에게서 나온 산물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야말로 양수겸장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만 이 책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처럼 양수겸장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그런 그룹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당대 최고의 풍류 마당이나 풍류 문화가 아니라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지는 조건은 『소수록』의 주요 공간으로 등장했던 '해주 감영'과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양주의 '양한당'을 함께 공유했던 인물이나 그룹이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당대에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그룹으로 누가 있을까? 『소수록』의 창작 시기와 관련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풍류 그룹은 바로 승평계일 것이다.

승평계(昇平契)는 조선후기 가곡사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가단(歌壇)으로 박효관(朴孝寬, 1800~1881년경)과 안민영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예인들이 그들의 정신적 · 물질적 후원자인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 1820~1898)을 위해

51) 전고와 『소수록』의 특징에 대해서는 3장 2절에서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성한 풍류 그룹이다.[52] 승평계의 활동 시기는 대체로 1867년 안민영이 권력의 실세였던 대원군을 만난 것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53] 핵심 인물들의 죽음과 후원자인 흥선대원군의 타계를 기점으로 해체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54] 이 중 승평계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역시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가장 위세를 떨쳤던 고종 초기 약 10년여의 기간일 것이고, 여기서 좀 더 확장하여 본다면 『금옥총부』가 편찬되던 1880년대 초 · 중반까지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렇다면 승평계는 어떤 이들이 모인 그룹일까?

> 운애(雲崖) 박선생(朴先生)은 평생 동안 노래를 잘 불러서 당세에 명성이 높았다. 물 흐르고 꽃 피는 밤과 달 밝고 바람 맑은 새벽마다 술동이를 갖추어 두고 악기를 어루만지며 목구멍으로 맑고 밝은 소리를 굴러 내면 모르는 사이에 대들보의 티끌이 날려내고 흘러가는 구름 멈추우니 비록 옛날의 이구년(李龜年)의 뛰어난 재주라 하여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교방(敎坊)과 구란(句欄)의 풍류재사(風流才士)와 놀기 좋아하는 남녀들로서 선생을 추앙하고 존중하지 않는 이가 없어 이름과 자를 부르지 않고 박선생이라 불렀다. 당시 우대(友坮)의 여러 노인들 또한 모두 당세에 알려진 호걸지사(豪傑之士)인데, 이들이 계(稧)를 만들어 노인계(老人稧)라 하였다. 또한 박한영(朴漢英), 손덕중(孫德仲), 김낙진(金洛鎭), 강종희(姜宗凞), 백원규(白元圭), 이제영(李濟榮), 정석환(鄭錫煥), 최진태(崔鎭泰), 장갑복(張甲福)은 당시의 호화로운 풍류를 즐기고 음률에 통달한 이들이고, 최수복(崔壽福), 황자안(黃子安), 김계천(金啓天), 송원석(宋元錫), 하준곤(河駿鯤), 김흥석(金興錫)은 당시의 명가(名歌)이다. 오기여(吳岐汝), 안경지(安敬之), 홍용경(洪用卿), 강경인(姜卿仁), 김군중(金君仲)은 당시의 명금(名琴)이고, 김사준(金士俊), 김사극(金士極)은 당시의 가야금(伽倻琴) 명수(名手)이다. 이성교(李聖敎), 김경남(金敬南), 심노정(沈魯正)은 당시의 명소(名簫)이고, 김운재(金雲才)는 명생(名笙)이요 안성여(安聲汝)는 양금(良琴)의 명수(名手)이다. 홍진원(洪振源)과 서여심(徐汝心)은 당시의 세상에 쓰이지 아니한 문인이고, 대구기(大邱妓) 계월(桂月), 강릉기(江陵妓) 행화(杏花), 창원기(昌原

52) 본고의 '승평계'와 관련된 서술 내용은 다음 논문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 언어학회, 2003; 김용찬, 「안민영과 승평곡」,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안민영과 흥선대원군」,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53) "니 일즉 꿈을 어더/ 文武周公을 뵈온 後에/ 前身이 況兮吉人이런가 心獨喜而自負ㅣ러니/ 果然的/ 我笑堂上 봄ㅂ룹에 當世英傑을 뫼셧거다. 내가 신축년(1841년) 겨울 꿈에 내 방에서 문·무·주·공을 모시고 나서 마음으로 혼자 기뻐하며 자부하였는데, 정묘년(1867년) 이후부터 석파대로를 오래도록 모셨으니, 이 어찌 꿈의 조짐이 영묘하게 감응한 것이 아니겠는가[余於辛丑冬 夢部文武周公於私室 而心獨喜而自負 自丁卯以後 長侍石坡大老 是豈非夢兆之靈應歟]?", 『금옥총부』 168번.

54) 김석배, 앞의 논문, 255~25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妓) 유록(柳緣), 담양기(潭陽妓) 채희(彩嬉), 완산기(完山妓) 매월(梅月)과 연홍(蓮紅)은 명희(名姬)이며, 천홍손(千興孫), 정약대(鄭若大), 윤순길(尹順吉)은 당시의 현령(賢伶)이다. 계를 만들어 승평계(昇平稧)라 하고 오직 즐기며 잔치하는 것을 일로 삼았는데 선생이 사실상 우두머리였다. 나는 이 길을 아주 좋아하여 선생의 풍류를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마음을 비운 채 서로 따른 것이 지금까지 삼십 년이 되었다. 아! 우리들이 살아서 거룩한 시절을 만났고 함께 태평성대에 올랐도다. 위로는 국태공(國太公) 석파대로야(石坡大老爺) 합하(閤下)가 계시어 몸소 온갖 정사를 돌보시니 풍문이 사방을 움직여 예악법도(禮樂法度)가 찬란하게 다시 펴졌고, 音樂과 律呂에 관한 일에 이르면 더욱 밝았다. 어찌 만나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겠는가. 나는 고무되어 일어나는 생각을 금치 못하여 외람되고 참월함을 피하지 않고 이에 신번(新飜) 수결(數闋)을 지어 성덕을 노래하여 하늘을 본뜨고 해를 그리는 정성을 부쳤다. 그러나 재주가 모자라고 아는 것이 보잘 것없어 말이 대부분 비속하였다. 삼가 선생에게 나아가 질정을 구하여 윤색(潤色)하고 존삭(存削)한 후에야 완벽을 이룰 수 있었다. 이에 명희와 현령들이 관현(管絃)에 올려 다투어 노래하고 번갈아 화답하니 또한 한 시대의 멋진 일이었다. 이에 곡보(曲譜)의 끝에 기록하여 훗날의 동지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았고 이런 즐거움을 누렸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선생의 이름은 효관(孝寬)이고 자(字)는 경화(景華)이며, 운애(雲崖)는 국태공(國太公)이 주신 호(號)이다. 성상(聖上) 십일년(十一年) 단양절(端陽節)에 경호(鏡湖)에서 돌아온 나그네 안민영(安玟英) 자(字) 성무(聖武) 호(號) 주옹(周翁)이 서(序)하노라. 계해년(癸酉年, 1873년) 오월(五月) 하한(下澣). (<승평곡>)[55]

인용문은 승평계를 조직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1873년 안민영이 만든 개인 가집 『승평곡(昇平曲)』의 '후서' 전문을 가져온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당시 승

55) 雲崖朴先生 平生善歌名聞當世 每於水流花開之夜 月明風淸之辰 供金樽按檀板 喉轉聲發 淑亮淸越 不覺飛楔塵遏流雲 雖古之龜年善才 無以加焉 以故敎坊句欄 風流才士 野流士女 莫不推重之 不名與字而稱朴先生 時有友坮某某諸老 亦皆當世聞人豪傑之士 結稧曰 老人稧 又有朴漢英 孫德仲 金洛鎭 姜宗凞 白元圭 李濟榮 鄭錫煥 崔鎭泰 張甲福 盖當時豪華風流通音律者也 崔壽福 黃子安 金啓天 宋元錫 河駿鯤 金興錫 盖當時名歌也 吳岐汝 安敬之 洪用卿 姜卿仁 金君仲 盖當時名琴也 金士俊 金士極 盖當時伽倻琴名手也 李聖敎 金敬南 沈魯正 盖當時名簫也 金雲才 名笙也 安聲汝 良琴之名手也 洪振源 徐汝心 盖當時遺逸風騷者也 大邱桂月 江陵杏花 昌原柳緣 潭陽彩嬉 完山梅月 蓮紅 盖名姬也 千興孫 鄭若大 尹順吉 盖當時賢伶也 設稧曰 昇平稧 惟歡娛燕樂是事 而先生實主盟焉 余酷好是竊慕先生之風 虛心相隨將三十年于茲矣 噫 吾儕生逢聖世 共躋壽域而上有 國太公石坡大老爺 閤下 躬攝萬機 風動四方 禮樂法度燦然更張 而至於音樂律呂之事 尤皦如也 豈非千載一時也歟 余不禁鼓舞作興之思 不避猥越 遂作新飜數闋 歌咏聖德 以摹天繪日之誠 然才踈識蔑 語多俚陋 謹以就質于先生 潤色之存削之然後成完璧 於是 名姬賢伶 競唱迭和 亦一代勝事也 爰錄于曲譜之末 使後來同志之人 知吾儕之生斯也 先生名孝寬 字景華 雲崖 國太公所賜號也 上之十一年 端陽節 鏡湖歸客 安玟英 字聖武 號周翁序 癸酉 五月 下澣. 김석배, 앞의 논문, 259~260면 재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평계 구성원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좌장(座長): 박효관.
● 운영자(運營者): 안민영.
① 호화풍류통음률자(豪華風流通音律者): 박한영, 손덕중, 김낙진, 강종희, 백원규, 이제영, 정석환, 최진태, 장갑복.
② 명가(名歌): 최수복, 황자안, 김계천, 송원석, 하준곤, 김홍석.
③ 명금(名琴): 오기여, 안경지, 홍용경, 강경인, 김군중.
④ 가야금 명수(伽倻琴 名手): 김사준, 김사극.
⑤ 명소(名簫): 이성교, 김경남, 심노정.
⑥ 명생(名笙): 김운재.
⑦ 양금 명수(良琴 名手): 안성여.
⑧ 여항 시인(閭巷 詩人): 홍진원, 서여심.
⑨ 명희(名姬): 대구기 계월, 강릉기 행화, 창원기 유록, 담양기 채희, 완산기 매월과 연홍.
⑩ 세악수(細樂手): 천홍손, 정약대, 윤순길.
● 후원자(後援者): 흥선대원군.

승평계는 좌장격인 박효관과 실질적인 운영자 안민영을 중심으로 가곡과 관련한 여러 그룹이 함께 했다. 이 계의 구성원은 총 40인으로 여항 명가(名家) 31인과 명희 6인 그리고 세악수 3인으로 이루어진 매우 화려한 풍류 모임이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최고의 후원자이자 좌상객인 흥선대원군이 존재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은 당대의 놀이 문화 즉 풍류와 관련해서 내로라하는 최상급의 예인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금옥총부』를 통해서도 그 면면이 확인된다. 모임의 중심인물들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장인 박효관은 자(字)가 경화(景華), 호는 운애(雲崖)인데, 운애는 대원군이 내린 호이다. 오동래(吳東萊, ?~?)에게 가곡을 배워 당대 제일의 가객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인왕산 아래 필운대(弼雲臺)에 은거지인 운애산방(雲崖山房)이라는 풍류방을 마련하고, 노인계와 승평계를 조직하여 그 맹주로서 가곡 풍류판을 주도하였다. 이 때문에 당시 그를 따르던 풍류재사(風流才士)나 야류사녀(冶遊士女)들은 그를 존경하여 '박선생'이라 불렀다고 한다. 만년에는 제자 안민영의 도움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받아 『가곡원류(歌曲源流)』를 편찬하였다.[56]

박효관은 그 유명세에 비해 생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에 대해 전하는 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한때 서울 오군영(五軍營) 소속 수군(守軍)이면서 가객으로 활동했다는 것과[57] 다른 하나는 호조(戶曹) 서리(胥吏)를 지낸 적이 있다는 것이다.[58] 그러나 어느 쪽도 분명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만년에 공식적인 직함으로 궁을 지키는 위장(衛將)이라는 무반 직책을 거쳐[59] 종2품 관직인 동추(同樞) 직책을 수행하면서 가객으로 활동하였다는 기록은 확인된다.[60]

안민영은 자(字)가 성무(聖武)・형보(荊寶), 호(號)는 주옹(周翁) 또는 구포동인(口圃東人)인데, 구포동인은 대원군이 내린 호이다.[61] 승평계를 움직인 실질적인 운영자로 성품이 호방하고 풍류를 좋아하여 당대 최상급의 풍류객, 예인들과 어울리며 가곡 풍류판을 주름잡았다. 그는 박효관의 제자로 노래를 잘 짓고 음률에 정통했다. 박효관의 『가곡원류』 편찬을 도왔으며 개인 가집 『금옥총부』와 『승평곡』을 편찬하였다.[62] 흥선대원군을 만나기 전인 안민영의 생애 전반기 역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한때 지방 관아의 서리를 지낸 적이 있다고 하나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른 나이에 박효관을 만나 그를 존경하고 따랐으

56) 김석배, 앞의 논문, 266~267면.

57) "좌상을 역임한 박영원의 겸인이자 호조서리로 재력가였던 이윤선은 자신의 재종매 혼인에 박효관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이때(1863년) 박효관은 이윤선에게 수군이라는 직함으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아, 그가 오군영 출신일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성무경, 「『금옥총부』를 통해 본 '운애산방'의 풍류 세계」, 『반교어문연구』 13권, 반교어문학회, 2001, 123면, 각주 12번 일부를 인용함.

58) '대원군 막하에서 정춘풍, 안민영 등과 함께 놀던 가객이다. 소시에 통동 김판서의 사랑을 받아 일시 성천에 귀양갔다가 다시 호조의 요직에 오른 일도 있다.(악사 하규일씨의 말)'라고 한 것은 김석배가 그의 논문에서 김태준, 『조선 고대 음악가 열전』, 『중앙』, 1934년 6월호와 장사훈, 『여명의 양악계』, 세광출판사, 1991, 53~54면을 참고하여 정리한 각주 내용이다. 김석배, 앞의 논문, 267면, 각주 29번 일부를 재인용.

59) 『승정원일기』에서 갑자년(고종 1, 1864) 9월에 경복궁 위장, 을축년(고종 2, 1865) 1월에 경복궁 위장 체직, 무진년(고종 5, 1868) 3월에 경희궁 위장 등을 맡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60) "동추 박효관의 자는 경화이고, 호는 ○○이다[朴同樞孝寬 字景華 호○○]."라는 『금옥총부』 93번 부기와 필운대(弼雲臺)의 각자(刻字)가 있는 옆쪽 바위에 각석(刻石)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박효관은 계유년(고종 10, 1873)에 종2품 벼슬인 동추(同樞)라는 직책을 맡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남, 「박효관의 필운대 풍류와 이유원의 역할」, 『한국시가연구』 36, 한국시가학회, 2014, 184~185면.

61) "구포동인은 석파대로께서 내려주신 호이다. 내가 삼계동집에 있을 때 동원 뒤에 '口'자 모양의 포전이 있었기에 구포동인이라 칭하셨다[口圃東人 石坡大老所賜號也 余在三溪洞家時 東園後有口字圃田故稱口圃東人]."., 『금옥총부』 92번 부기.

62) 김석배, 앞의 논문, 267~26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며 그가 했던 가악 활동에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여 후에 그것을 작품으로 남겼음이 『금옥총부』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생애 후반기는 흥선대원군에게 의탁하여 그를 모시면서 박효관을 도와 가객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흥선대원군을 위해 했던 주된 역할은 운현궁의 가곡연회나 풍류놀이를 책임진 일종의 '연행 기획자'와[63] 국가 진연 의식에 필요한 여악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 관아를 돌아다니며 가무에 뛰어난 명희를 발굴하여 서울로 추천하는 '여악 매니저' 역할이었다.[64]

①은 상당한 재력가들이자 음률에 밝은 중인계층의 풍류객들이다. 후원자이자 좌상객으로서 승평계 내에서 박효관과 안민영 다음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65] 이들 중 박한영은 자는 사준(士俊)이고 호가 연호(蓮湖)로 안산 제일의 별장을 가진 부호였다.[66] 『금옥총부』에 총 7회에 걸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안민영과 매우 각별했던 사이로 짐작되며 한때 평양에서 종6품의 무관직인 감목관(監牧官)을 지냈던 것으로 확인된다.[67] 강종희는 자(字)는 경학(景學)이고 호는 목산(木山)으로 종2품 벼슬인 동추(同樞)를 지냈다.[68] 이제영은 자가 공즙(公楫)으로 여항 시인이기도 했다.[69] 장갑복은 대원군의 심복이었다.[70]

②는 가곡의 명창들이다. 이들은 때로는 좌상객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을 '가객(歌客)'으로 불렀던 것은 기예(技藝)를 업(業)으로 하지 않았고, 기예 또한 문기(文氣)가 있어 품위 있는 예술을 창조하는 예술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71] 최수복은 오동래에게 가곡을 배웠고 하준곤에게 가곡을 전수하였다. 하준곤은 명완벽에게 전수하였다. 이들의 가곡 계보는 최수복→하준곤→명완벽→하순일 · 하규일→이병성 · 이주환이다.[72] 황자안은 박효관과 동년배의 가객으로, 자

63) 조태흠, 「안민영 시조의 연행 양상과 그 의의」,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2011.
64) 신경숙, 「안민영 사랑 노래의 생산적 토대」, 『한성어문학』 2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5, 81~101면.
65) 김석배, 앞의 논문, 268면.
66) "연호 박사준의 별장이 안산 제일의 경개이다[蓮湖朴士俊別業 爲安山第一景槪]", 「금옥총부」 74번 부기.
67) 『금옥총부』 32, 42, 74, 119, 129, 130, 133번 부기에 박사준과 관련된 기록이 보인다.
68) "동추 강종희의 자가 경학이고, 호는 목산이다[姜同樞宗熹 字景學 號木山].", 『금옥총부』 87번 부기.
69) "이제영은 자가 공즙인데, 당세의 풍소인이다[李濟榮字公楫 是當世風騷人也].", 『금옥총부』 178번 부기.
70) 대원군의 명으로 천주교 신자 남종삼(南宗三)의 집을 염탐하여 천주교 탄압의 계기를 마련한, 대원군이 신임하는 심복이었다. 박제형 저, 이익성 역, 『근세조선정감』 上, 탐구신서, 1975년, 54면.
71) 김석배, 앞의 논문, 26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안(子安)은 그의 자이다.[73]

③~⑦은 기악의 명인들로 풍류 마당에서 기악 연주를 하면서 가곡을 즐긴 부류이다. 거문고 명인들은 소위 여항의 '율객(律客)'들이고 가야금 명수는 장악원 소속의 악공들이다.[74] 그 외 악기 명인들은 모두 가곡 연주에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인물들이다. 이들 중 안경지는 안민영과 한집안 사람으로 12살 때부터 거문고를 배운 명금이다. 안민영과 더불어 가곡 풍류판에서 50여 년을 함께 한 사이로 안민영이 『금옥총부』에 그의 죽음을 애도한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75] 종4품 무관직인 첨사(僉使)를 지냈다.[76] 김윤석은 자가 군중(君仲)이고 호는 벽강(碧江)으로 궁을 지키는 위장(衛將)이라는 무반 직책을 거쳐 만년에 종2품 관직인 동추를 지냈다.[77] 『금옥총부』에 총 9회에 걸쳐 등장하고 30여 년을 교유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역시 안민영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된다.[78]

⑧은 "세상에 쓰이지 아니한 문인" 즉 중인계층의 여항 시인들로 풍류 놀음에서의 감흥을 한시로 읊거나 가곡창에 필요한 시조시 창작에 일조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79] 이들 중 홍진원은 후에 박효관에게 가곡을 배워 명가(名歌)로 이름을 알렸으며 경복궁 위장을 지냈다.[80]

⑨는 궁중의 각종 진연 의식에 참여했던 정재기(呈才妓)들로 승평계 풍류 마당에서 가무를 담당했다.[81] 이들은 지방에서 뽑혀온 선상기(選上妓)로 보통 약방과

---

72) 장사훈, 『국악 명인전』, 세광음악출판사, 1989, 55면.
73) 『금옥총부』 178번 부기.
74) 김석배, 앞의 논문, 270면.
75) "十二에 學琴ㅎ니/ 琴韻이 冷冷이라/ 七十年 繡筵 우에 몃 사람을 悅樂헌고/ 至今에 水流雲空ㅎ니 못ㄴ 늣겨 ㅎ노라, 나는 첨사 안경지와 단지 종의(宗誼)만 자별하였던 것이 아니라, 화류장에서 서로 따른 지가 오십여 년이다. 을유년(1885년) 봄에 미양(微恙)으로 세상을 떠나니, 참으로 눈물이 가슴에 가득함을 느낄 뿐이다[余與安僉使敬之 非但宗誼自別 相隨於花柳場 爲五十餘年 而乙丑春에 以微恙化去 良覺淚盈襟耳].", 『금옥총부』 120번.
76) "첨사 안○○의 자는 경지이고, 호가 춘원이다[安僉使○○ 字敬之 號春園].", 『금옥총부』 50번 부기.
77) 『승정원일기』에 병자년(고종 13, 1876) 4월 이후 다수의 기록에서 경희궁, 경복궁 위장, 오위장, 동추 등을 맡았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옥총부』 94번 부기에도 "동추 김윤석의 자는 군중이고, 호는 벽강이다[金同樞允錫 字君仲 號碧江]."라는 기록이 보인다.
78) 김윤석과 관련된 기록은 『금옥총부』 42, 78, 92, 94, 113, 115, 118, 162, 178번에 보인다. 이 중 『금옥총부』 115번 부기에 "내가 벽강 김윤석과 서로 따른 지가 삼십 년인데, 정의가 두터워 일찍이 하루도 잠시 떨어지지 않았다. 계미년(1883년) 봄 군중과 수동(壽洞)에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아침에 부음을 들었으니, 현실인가 꿈인가[余與金允錫君仲 相隨三十年 誼漆情膠 未嘗一日暫離 癸未春與君仲會飮於壽洞 而翌朝聞訃 眞耶夢耶]?"라는 기록이 보인다.
79) 김석배, 앞의 논문, 273면.
80) 『승정원일기』에 정축년(고종 14, 1877) 12월에 경복궁 위장을 제수받은 기록이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상방으로 배치되어 경기(京妓)로 역을 수행하면서 따로 기방(妓房)을 열거나 여항의 연행 공간을 찾아가 기악을 베풀기도 하였다.[82]

⑩은 오군영 소속 세악수 출신들로 당대 최고의 기악반주자들이었다. 이들은 ③~⑦의 연주자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악기를 주로 연주하였고 특히 가곡 반주에 뛰어나 여항의 음악 수요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노비 출신인 장악원 악공들과는 달리 평민 출신이 주를 이룬다. 천홍손은 용호영 소속의 피리전공자였고 정약대는 어영청 소속의 대금 전공자였다. 그리고 윤순길은 훈련도감 소속의 대금 전공자였다.[83]

한편 박효관 그룹과 흥선대원군의 연결고리로 흥선대원군의 겸인(傔人)으로 이름을 떨쳤던 이른바 '천하장안'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각계각층의 출신들을 개인적 · 사조직적으로 운용하였는데, 그 구성원은 운현궁의 겸인들과 중인 신분에 속하는 상궁들, 내시, 6조 각사의 집리들, 각 지방 관아 서리들이었다.[84] 이 중 흥선대원군이 가장 믿고 부리는 자들은 바로 천하장안, 즉 천희연(千喜然), 하정일(河靖一), 장순규(张淳奎), 안필주(安弼周) 등이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들의 권세가 도성을 압도하여 고관대작들도 예로써 이들을 대우하는 등 아첨할 정도였다고 한다.[85]

특히 하정일은 흥선대원군과 박효관 그룹을 연결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가곡 창자의 계보를 이은 하준권 · 하순일 · 하규일과 같은 집안 사람으로,[86] 안민영은 그와 30년 동안 교유하였다고 『금옥총부』에서 밝히고 있

---

81) 김석배, 앞의 논문, 273면.

82) 신경숙, 「안민영 예인집단의 좌상객 연구」,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연구학회, 1999, 234면.

83) 세악수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신경숙, 「안민영과 예인들 - 기악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2000.

84) 안외순, 「대원군의 사회적 기반과 지지세력」, 『동방학』 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0, 236~240면.

85) 대원군이 자기집 부림꾼으로서 가장 신임하는 자는 천희연(千喜然), 하정일(河靖一), 장순규(張淳奎), 안필주(安弼周) 네 사람인데 세상에서 천하장안이라 일컬었다. 그 밖에 이승업(李承業), 유재소(劉在昭)는 모두 권세가 도성을 압도하여 고관대작들도 또한 예대(禮待)하여서 아첨하였다. 그리고 장순규는 전적으로 원납전 일을 주선하였다. 그런고로 그물에 걸린 자는 반드시 장에게 청촉(請囑)하여 액수를 줄이려고 하였다. 장은 중간에 서서 해결하는 척하면서 뇌물을 헤아릴 수도 없이 거두었다. 장이 이런 까닭으로 탐색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여 먼저 새를 숲에다 몰아넣고는 뒤쪽으로 그물을 슬쩍 틔우니 도성 사람으로서 옆 눈으로 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천하장안의 누이동생이 모두 상궁(尙宮)으로 되어 왕의 좌우에서 모시는 연고로 대원군의 신임하는 바 되었고…(후략). 박제형 저, 이익성 역, 앞의 책, 58면.

86) 신경숙, 앞의 논문, 24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87] 안민영과 하정일의 이러한 각별한 친분은 1867년 안민영이 꿈에도 그리던 당대 정치 권력의 최고 실세인 흥선대원군을 만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88]

안민영과 흥선대원군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박효관 그룹의 후원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안민영은 이후 스승인 박효관과 함께 운현궁을 위한 각종 연회를 담당했고 흥선대원군 역시 이들에게 각각 '구포동인'과 '운애'라는 호를 지어주며 각별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1
主翁의 微하므로
委質於又石하야
德池에 沐浴 감고 人風에 술을 ㅱ니
ㄴ 이제
德門人 되얏슨져 樂又樂을 하노라

내가 석파대로를 모시고 노닌 지가 지금 몇 수년이 되고 우석상서 또한 두텁게 대하여 주시기로, 마음으로 느끼어 지었다. (<금옥총부>)[89]

2
즐거워 우슘이요
感激하야 눈물이라
興으로 노ㄹ여늘 氣運으로 춤이로다
오늘날
歌與舞 笑與淚는 又石尙書 쥬신 ㅂ라

병자년(1876년) 유월 이십구일은 곧 내 회갑일이었다. 석파대로께서 나를 위해 공덕리 추수루에 회갑연을 베푸시고, 우석상서께서 기악을 널리 부르도록 하시어 진종일 질탕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사람마다 얻을 수 있는 바이겠는가?

87) "하가덕 정일은 ○자가 성초이고, 호는 ○○이다.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으며, 성품이 본래 강의하고 과감하여 일에 임하여서는 주저함이 없었으니, 가히 일대의 쾌장부라 이를 수 있다. 나와는 삼십 년을 경애하였다[河加德靖一 ○字聖初 號○○ 孝親友弟 而性本剛毅果敢 臨事無疑 可謂一代快丈夫也 與余敬愛三十年].",『금옥총부』34번 부기.

88) 김석배에 따르면 장순규(張淳奎)와 안필주(安弼周)는 각각 승평계 일원인 장치은, 안경지와 동일인물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꼭 하정일이 아니더라도 천하장안 중 한 사람을 통해서 안민영이 흥선대원군을 만났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하겠다. 김석배, 앞의 논문, 256면, 각주 11번 참조.

89) "余侍遊石坡大老 今幾多年 而又石尙書 亦厚待之 心感而作",『금옥총부』19번 부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금옥총부>)[90]

3

고종 원년에 대원군이 비양을 얻어 서리 시인 조기완이 칠송정(七松亭)의 맹주가 되어 위항시인이 많이 모여 만리장성집이라 속칭하였다. 대원군은 위항시인을 위하여 경복궁을 증축하는 김에 황폐한 칠송정을 수축하여 주었다. 이곳에서 서리 시조 작가 박효관, 안민영, 김윤석, 하규일 등이 모이어 가곡원류를 편찬함으로써 시조 문단에 탁미적 성관을 이루었다.[91]

1과 2는 안민영과 홍선대원군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노래이다. 1의 밑줄 친 '委質於又石'이란 표현에서 '委質'이란 말은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안민영은 홍선대원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위해 복무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미천한 자신을 홍선대원군과 이재면이 받아 주어 각종 연회와 풍류마당에서 마음껏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즐길 수 있었던 고마움을 '德門人'이란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안민영은 홍선대원군을 만난 이후 어느 시점에서부터 운현궁에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홍선대원군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를 따르고 추종했을 것이다. 이는 박효관이 쓴 『금옥총부』의 서문 내용인 "주옹이 그 지기인이 되어 먼 행차를 자주 따라다녔으며 그를 위하여 신가 수백 수를 지었다[周翁爲知己人 長常陪過而爲之作數百闋新歌]"라고 말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2는 홍선대원군과 이재면이 1876년 6월 안민영의 회갑을 맞아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어준 것을 노래한 것이다. 9년 가까이 홍선대원군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한 각종 연회와 풍류를 책임져 온 안민영이 반대로 자신의 회갑 날에 홍선대원군과 이재면의 배려로 잔치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진종일 노래와 춤으로 보낼 수 있었던 자신의 회갑 날은 안민영 생애에 잊지 못할 하루로 기억되어 있다. 그는 그날의 소회를 행복에 겨워 웃음이 나는 한편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운현궁의 문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때 홍선대원군은 정치적으로 실세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면을 통해 안민영의 회갑연을 준비하도

90) "丙子六月二十九日 卽吾回甲日也 石坡大老 爲設甲宴於孔德里秋水樓 命又石尙書廣招妓樂 盡日迭宕 是豈人人所得者歟"『금옥총부』18번 부기.
91) 신경숙, 앞의 논문, 253면을 재인용.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흥선대원군이 안민영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 예라 할 수 있다.

③은 박효관이 『가곡원류』를 편찬할 수 있도록 흥선대원군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는 후대의 기록을 가져온 것이다. 흥선대원군은 1865년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여항 시인들의 시사(詩社)를 격려하기 위해 칠송정(七松亭)을 수리해 주었고 칠송정시사(七松亭詩社) 회원들은 이곳을 '만리장성집'이라 불렀다고 한다. 칠송정에는 여항 시인들뿐만 아니라 흥선대원군과 가깝게 지냈던 박효관 · 안민영 등의 가객들도 모여들어 여항문학의 꽃을 피웠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칠송정시사 회원들은 시사의 중심인물이었던 오횡묵(吳宏默, 1834~?)이 백운동에 새로 집을 짓자 모임 장소를 그곳으로 옮겨갔다고 한다.[92] 그리하여 이곳은 박효관 그룹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3대 가집의 하나인 『가곡원류』가 편찬되었다고 한다. 흥선대원군의 시사와 가단에 대한 후원은 자신이 사적으로 운용했던 세력인 중간계층의 예술 모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가단 쪽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음악과 관련한 그의 풍류애호와 박효관 그룹에 대한 총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이들은 최고 좌상객이자 왕실 후원자인 흥선대원군과 그의 장남 이재면의 정신적 · 물질적인 후원 아래 흥선대원군의 거처인 운현궁(雲峴宮)을 비롯하여 그의 별장이 있는 공덕리 아소당(我笑堂), 삼계동 석파정(石坡亭), 양주 직곡산장 등을 중심으로 풍류판을 벌이면서 가곡을 마음껏 즐겼다. 다시 강조하자면 승평계 그룹과 흥선대원군이 함께 어울려 풍류판을 벌인 이들 장소 중 하나인 양주 직곡산장이 바로 『소수록』의 '양한당'이다. 따라서 '양한당' 관련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들 역시 흥선대원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2편에서 양한당에 모여 논쟁을 벌이는 '장안호걸'과 '명기'는 바로 앞서 언급한 승평계의 일원(一員)일 가능성이 높다. 이 중 '장안호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명기 중 한 명은 해주기녀 옥소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 181수의 시조가 실려 있는 안민영의 『금옥총부』에는 자신과 함께 한 예인들을 노래한 작품과 이에 대한 부기가 풍성하게 실려 있다. 이 중 안민영이 가장 많이 노래한 것은 '기녀에 대한 찬미와 애정'이다. 『금옥총부』에는 43명 기녀의

92) 허경진, 『조선위항문학사』, 태학사, 1997, 31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실명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을 노래한 작품은 60수가 넘는다. 특히 해주 기녀 옥소선을 향한 연모의 시조는 10수로 다른 기녀에 비해 그 수량이 단연 압도적이다. 이를 보면 안민영은 옥소선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었던 것 같다. 또한 옥소선은 흥선대원군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운현궁 대령기생으로 뽑힌 정황도 확인된다.

> 해주의 옥소선이가 지난번 진연 때에 올라왔었는데, 재예가 출중하고 색태가 비범하여 당세의 명희로 사람들이 추허(推許)한 바 되었다. 석파대로께서 그를 더욱 총애하여 그 이름을 불러 '옥수수(玉秀秀)'라 하였는데, 옥수수라는 것은 속칭 '강냉이(江娘)'이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를 옥수수라 불렀다. 나는 화산(華山) 손오여(孫五汝) · 벽강(碧江) 김군중(金君仲)과 더불어 날마다 옥수수와 함께 연몌(連袂)하기를 밤낮으로 계속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정의가 두터워져 서로 떨어질 수가 없었으나, 일이 다하여 내려갔다. 그 후 계유년(1873년) 봄에 석파대로께서 내의녀의 자리에 입역을 명초(命招)하시어 삼행수(三行首)에 이르렀다. 그해 가을 역에서 탈면(頉免)되어 내려보냈으나, 그 후로도 서신은 끊어지지 않았고, 또한 수차 운현궁에 올라왔던 일이 있었다. 병자년(1876년) 겨울에 다시 일이 있어서 그 삼증(三憎)이와 함께 올라왔는데, 용모가 점점 상하고 목소리는 실낱같아서 중병이 든 사람 같았다. 언뜻 보고 놀랐으나, 오랫동안 적조하였던 나의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지난날 웅장화용(雄粧華容)으로 요염한 노래를 부르던 때보다 더하였다고 이를 따름이다. (<금옥총부>)[93]

해주 감영의 향기인 옥소선은 1868년 의녀로 뽑혀와[94] 서울 내의원에서 경기로 입역하면서 가금(歌琴)의 탁월한 기량과 뛰어난 외모로 당시 명희로서 이름을 날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흥선대원군 역시 '옥수수'라는 애칭으로 그녀를 부르며 총애하였고, 안민영을 포함한 운현궁의 모든 이들도 '옥수수'라는 애칭을 따라 부르며 그녀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흥선대원군의 총애는 1873년 봄, 옥소선을 비교적 빠르게 내의원 행수 자리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에 탈역되어 본향인 해주로 돌아가게 되나 이후 1880년까지 그녀의 서울행

93) "海州玉簫仙 於向年進宴時上來 才藝出類 色態非凡 以當世名姬爲衆所推許 而石坡大老 益寵愛之呼其名曰玉秀秀 玉秀者 俗稱江娘也 人皆呼之玉秀秀 余與華山孫五汝 碧江金君仲 逐日連袂與玉秀秀晝以繼夜於斯之際 情膠誼漆 不能相捨而過事下去 其後癸酉春 石坡大老 命招入役于內醫女座 至三行首 當年秋 頉役下送 而其後書信不絶 亦有數次上來於雲宮者矣 丙子冬 又有事 與其三憎上來 而容 貌稍損 聲音如縷 有若重病中人矣 一見驚訝 然以吾久阻欣愛之心 猶勝於昔日雄粧華容艶歌之時云爾", 『금옥총부』 112번 부기.

94) 신경숙, 앞의 논문, 47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수없이 이어진다. 아마도 그녀의 서울행은 각종 궁중 연회와 승평계와 같은 크고 작은 풍류 모임에서 그녀의 재예를 필요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승평계의 일원으로 활동했으며 흥선대원군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 옥소선은 『소수록』의 '옥소'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그 중 **옥소**/ 암연이 좀쇼ᄒᆞ고/ 단구을 미긔ᄒᆞ여/ 징징이 이른말이/ 희미한 임ᄌᆞ ᄂᆡ들/ 이ᄂᆡ말숨 드려보오/ 일월정화 산천수긔/ 남ᄌᆞ홀노 타고날가/ 우리근본 ᄉᆡᆼ각ᄒᆞ면/ ᄉᆞ황궁시 ᄋᆡ로셔/ 졀약타가 득죄ᄒᆞ여/ 인간의 ᄂᆡ치신이/ 젹강션이 업신후야/ 졍한남편 뉘이실이/ 왕숀으로 벗슬숨고/ 호긱으로 이웃ᄒᆞ여/ 고루거각 금중안의/ 나의옥식 시려만이/ 수힝션ᄌᆞ 안일진ᄃᆡ/ 호화를 이닷할가/ 고금을 헤알이면/ 여웅이 그뉘시오/ …(중략)…/ 고루거각 놉푼집의/ 가붕이 만ᄌᆞᄒᆞ여/ 비반이 낭ᄌᆞᄒᆞ며/ 술존이 교작졔와/ 녹음방쵸 장졔ᄉᆞᆼ의/ 답쳥ᄒᆞ여 논일젹의/ ᄉᆡᆼ황양금 필의졋ᄃᆡ/ 우리로 ᄯᆞᆨ못ᄒᆞ면/ 흥미가 무엇시며/ 추월광농 영충시와/ 만뇌구적 무인졔의/ ᄉᆞ충으로 문을막고/ 금금을 제친후의/ 잉셩갓튼 고은쇼리/ 오음의 비승ᄒᆞ고/ 빅옥갓튼 말근살은/ 월식싸라 영지우니/ 은금이 무엇시며/ 경지파ᄉᆞᆫ 잇길숀가/ 남ᄌᆞ의 일시호화/ 우리밧게 ᄯᆞ잇난가/ …(중략)…/ 셰강쇽박 이셰ᄉᆞᆼ의/ 쳥누의 협양한명충이/ ᄯᆡ마다 이슬숀가/ 가인이 업다마오/ ᄌᆡᄌᆞ난 그뉘시오/ 구름ᄯᆞᆺ 물마음은/ 품수한 셩정이요/ 중낭부 이랑쳐난/ ᄌᆞ연ᄒᆞᆫ 힝실이라/ 그린눈셥 추파미난/ ᄉᆞ람을 낙시ᄒᆞ고/ 야롱회음 묘한ᄐᆡ도/ 함인ᄒᆞ난 굴함이라/ 영식교어 낭낭어난/ 현인ᄒᆞ난 단약이요/ 호치단순 고은쇼리/ 미혼ᄒᆞ난 진이로다/ 노류중화 웃지마쇼/ 썩고져 다썩거며/ 중낭부 이랑쳐나/ 엇고져 다어들가/ 공경지ᄉᆞᆼ ᄯᆞᆺ업거든/ 무뢰탕ᄌᆞ 졍이슬야/ 허다광곤 호긱더라 / 화류중 깁품ᄯᆞᆺ들/ 아난다 모로난다 (<소2, 35~41>)[95]

인용문은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ᄒᆞᆫ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에서 장안호걸과 기녀 존재 가치에 대해 논쟁을 한 3인의 명기 중 유일하게 편찬자가 이름을 밝힌 '옥소'가 논박하는 내용 중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은 바로 앞에서 먼저 장안호걸이 '기녀 요물론'을 주장하며 비판하자 이에 옥소가 나서서 낭랑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옥소는 자신들은 적강 선녀에 비견되는 우월한 존재로서 결코 남자나 나라를 망치는 요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은 남성들의 풍류와 일시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매우 효용성 있는 존재로서 남성들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녀를 손가락질하는 장안호

95) 여기 '소2'는 『소수록』에 수록된 14편 가운데 제2편을 가리키고, '35~41'은 전체 125면 가운데 35~41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하 같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걸을 비롯한 남성들을 향해 기녀와 기방유흥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질책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보이는 옥소의 태도는 매우 논리적이면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는 장안호걸의 기녀 비판에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하여 장안호걸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하고 있다. 결국 이 논쟁에서의 승리는 옥소를 포함한 3인의 명기가 거머쥐게 되는데, 이러한 옥소의 당당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중세사회의 억압받는 기녀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새로운 모습이다. 그렇다면 옥소의 이러한 자신감과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소수록』 편찬자의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제목과 본문 내용 등에서 보이는 '명긔'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기녀들이 평범한 수준의 기녀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던 바다. 게다가 3인의 기녀 논객 중 편찬자가 유일하게 옥소라고 이름을 밝히면서 장안호걸에 맞서는 첫 번째 반박 주자로 내세운 것을 보면, 옥소는 『소수록』의 편찬 당시 이미 장안 제일의 기녀로 소문이 나 있었던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성 화자인 장안호걸을 상대로 하여 이 정도의 발언권을 가지려면 '명기'라는 자격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할 듯하다. 명기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든든한 배경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고, 한편으로 이 정도 발언을 해도 괜찮을 만한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옥소는 옥소선일 확률이 매우 높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옥소선은 당시 최고 권력자인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아 단기간에 기녀들의 수장인 삼행수가 된 전력을 가진 데다가 장안호걸과는 같은 승평계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상당히 돈독한 친밀감마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96]

4

션연ᄒᆞ다 미ᄐᆡ도야/ 아로식인 옥이로다/ 중단이 젹중ᄒᆞ고/ 체지가 합도로다/ 달갓치 둥근낫슨/ 복디가 완연ᄒᆞ고/ …(중략)…/ 단아 포셕은/ 눈가운ᄃᆡ 미화로다/ 보리 경쳡은/ 금누 반비요/ 무수 젼젼은/ 한궁 비련이라/ 가셩은 졍아ᄒᆞ여/ 단구의 봉이울고/ 어음은 징징ᄒᆞ여/ 옥반을 울니난듯/ 추파을 일젼ᄒᆞ면/ 중부가 질식ᄒᆞ고/ 향구을 잠기ᄒᆞ면/ 호걸이 낙박이라. (<소4, 56~57>)

96) 정병설도 '옥소'의 당당한 말투로 보아 옥소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추정을 한 바 있다. 정병설, 앞의 책, 17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희기 눈 갓트니
西施에 後身인가
곱기 ㅁ 갓트니 太眞에 넉시런가
至今에
雪膚花容은 너를 본가 허노라

해주 옥소선을 찬미함. (<금옥총부>)[97]

6
푸른 빗치 ㅉ 쇠 낫스되
푸루기 ㅉ 쇠셔 더 푸르고
어름이 물노 되야스되 차기 물에서 더 차다더니
네 엇지
一般 靑樓人으로 ㅉ 여나미 이 가트뇨

해주의 옥소선이가 나와 비록 정의가 있다고는 하나, 사람을 논하는 붓끝에 이르러 어찌 일호라도 사사로운 정이 있겠는가? 내 소견으로는 과연 이러한 포폄에 부합할 따름이다. (<금옥총부>)[98]

4는 제4편 <찬일도미인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에서 남성 화자가 어떤 기녀의 외모와 노래 그리고 춤의 아름다움에 대해 세세히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가져온 것이다. 남성 화자는 기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뚜렷하고 얼굴은 복스럽고 몸매는 딱 적당하다고 말한다. 생략된 부분에서는 기녀의 윤기 나는 검은 머리, 선이 예쁜 귀밑머리, 샛별 같은 까만 눈동자, 백옥 같은 흰 귓불, 앵두 같은 입술, 가지런한 하얀 이, 죽순 같은 고운 손가락, 작고 앙증맞은 예쁜 발, 끊어질 듯한 가는 허리 등을 찬양한다. 그리고 단정하게 앉은 기녀의 모습은 눈 가운데 매화와도 같고 가벼운 걸음걸이는 금으로 만든 연꽃 위를 걸어 다녔던 반비(潘妃)와 같으며 노랫소리는 봉황의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하다고 한다.

또한 기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을 울리는 듯하고 그녀의 은근한 눈빛은 마주하

97) “讚海州玉簫仙”, 『금옥총부』 부기 53번.
98) “海州玉簫仙 與我雖有情誼 然至於論人筆端 豈有一毫私情乎 以吾所見 果合於此貶耳”, 『금옥총부』 부기 163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면 숨이 멎을 듯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가 말이라도 걸어오게 되면 남성들은 모두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처럼 남성 화자는 온갖 수식어구를 동원하여 어떤 기녀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재예의 탁월함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녀는 누구일까?

5와 6은 안민영이 『금옥총부』에서 옥소선을 노래한 10수 중 2수를 가져온 것이다. 5는 부기에 "해주 옥소선을 찬미하다[讚海州玉簫仙]"라고 밝히고 있어 안민영이 찬미한 여인의 아름다움은 바로 옥소선을 두고 노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안민영이 본 옥소선은 눈같이 희고 꽃과 같이 고와서 전대 미녀인 서시와 양태진이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한다. 6에서 안민영은 '청출어람(靑出於藍)'의 고사를 활용하여 옥소선의 가무(歌舞)가 스승의 가르침을 뛰어넘어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기에 자신이 내린 옥소선에 대한 평가는 그녀와의 친분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금옥총부』의 옥소선을 찬미한 내용은 제4편 <찬일도미인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의 기녀 예찬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옥소는 옥소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

> 경진년(1880년) 가을 구월 운애(雲崖) 박선생(朴先生) 경화(景華)와 황선생(黃先生) 자안(子安)이 일대의 명금(名琴) 명가(名歌) 명희(名姬) 현령(賢伶)과 유일풍소인(遺逸風騷人)을 청하여 ○○○○○○○○산정에서 단풍과 국화를 관상하며, 옛 ○○을 배워 ○○을 하였다. 벽강(碧江) 김윤석(金允錫)은 자가 군중(君仲)인데, 일대의 묘경에 이른 명금이다. 취죽(翠竹) 신응선(申應善)은 자가 경현(景賢)인데, 당세의 명가이다. 신수창(申壽昌)은 양금(洋琴)의 독보적이다. 해주의 임백문(任百文)은 자가 경아(敬雅)인데, 당세의 명소(名簫)이다. ○○ 장○○은 자가 치은(稚殷)이고, ○○ 이제영(李濟榮)은 자가 공즙(公楫)인데, 당세의 풍소인이다. 마침 이즈음에 해주의 옥소선(玉簫仙)이가 올라왔는데, ㉠**이 사람인즉 단지 재예와 색태가 일 도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금(歌琴)을 쌍전하여, 비록 옛날에 이름을 날린 자를 다시 살아오게 할지라도 선두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명희이다.** 전주의 농월(弄月)이는 열여섯의 어여쁜 얼굴에 가무가 출중하여 가히 일대의 명희라 이를 수 있다. 천흥손(千興孫), 정약대(鄭若大), 박용근(朴龍根), 윤희성(尹喜成)은 현령이다. 박유전(朴有田), 손만길(孫萬吉), 전상국(全尙國)은 당대 제일의 창부인데, 모흥갑(牟興甲), 송흥록(宋興祿)과 더불어 서로 표리를 이루며 나라 안을 떠들썩하게 울린 사람들이다. 아아! 박경화(朴景華)와 황자안(黃子安) 두 선생은 구십의 노인으로, 호화로운 성정이 오히려 청춘의 강장했던 때보다 덜하지 않아 이러한 오늘의 모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있었는데, 명년에도 또 이러한 모임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다. (<금옥총부>)[99]

인용문은 안민영의 개인 가집 「금옥총부』 179번 부기로 안민영 생애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대했던 1880년 9월 '단애대회(丹崖大會)'의 풍류현장을 기록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당시 모임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모임의 최고 좌상객인 박효관과 황자안 그리고 이들이 참석하는 풍류현장이면 어디든지 함께했던 풍류 가객 안민영, 안민영과 지음(知音)으로 30년을 함께한 명금 김군중, 여항 시인이자 때로는 이들의 풍류현장에서 좌상객이 되어 주었던 이제영, 세악수 출신의 일등 악공으로 천홍손, 정약대, 윤희성 등은 이미 앞에서 언급했던 승평계의 회원들이다. 이들 외에 새로운 인물들은 명가 신응선, 양금의 명수 신수창, 명소 임백문, 여항 시인 장치은, 명희 해주 옥소선, 전주 농월, 현령인 박용근, 판소리 명창인 박유전, 손만길, 전상국 등이 기록되어 있다.

풍류 모임의 구성원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이들 참가자 중 판소리 창자를 제외한 대다수는 분명히 승평계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100] 참가자 명단을 보다시피 승평계의 수장인 박효관을 비롯한 안민영, 황자안, 김군중, 이제영 등 승평계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승평계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옥소선을 소개하는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밑줄 친 ㉠을 보면, 안민영은 "이 사람인즉 단지 재예와 색태가 일 도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금(歌琴)을 쌍전하여, 비록 옛날에 이름을 날린 자를 다시 살아오게 할지라도 선두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니, 참으로 나라 안에서 제일가는 명희이다[此人則非但才藝色態之雄於一道 歌琴雙全 雖使古之척名者復生 未肯讓頭 眞國內之甲姬也]."라고 하면서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유독 긴 서술로 그녀를 칭찬하고 있다. 여기서

99) "庚辰秋九月 雲崖朴先生景華 黃先生子安 請一代名琴名歌名姬賢伶遺逸風騷人 於○○○○○○○山亭 觀楓賞菊 學古○○○○碧江金允錫字君仲 是一代透妙名琴也 翠竹申應善字景賢 是當世名歌也 申壽昌是獨步洋琴也 海州 任百文字敬雅 當世名簫也 ○○장○○字稚殷 ○○李濟榮字公楫 是當世風騷人也 適於此際 海州玉簫仙上來 而此人則非但<u>才藝色態之雄於一道</u> 歌琴雙全 雖使古之척名者復生 未肯讓頭 眞國內之甲姬也 全州弄月二八丰容 歌舞出類 可謂一代名姬 千興孫 鄭若大 朴龍根 尹喜成 是賢伶也 朴有田 孫萬吉 全尙國 是當世第一唱夫 與牟宋相表裏 喧動國內者也 噫朴黃兩先生 以九十耆老 豪華性情 猶不減於靑春强壯之時 有此今日之會 未知明年又有此會也歟", 『금옥총부』 179번 부기.

100) 김석배, 앞의 논문, 26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주목할 부분은 “일 도에서 뛰어”난 명희라는 표현이다. 이는 제4편의 제목에 등장하는 “일도미인”와 매우 유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일도(一道)’라는 특정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제4편의 남성 화자가 찬미한 기녀는 옥소선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소수록』의 제14편 <힉영명긔졈고호명긔라>의 40명 해주 기녀 중 서른두 번째에 “옥쇼을 부난곳시/ 션동의 유련쳐요/ 청숑 녹임ᄒᆞ난/ 학의깃시 분명ᄒᆞ다/ 옥쇼션”이라는 가사체 호명기까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편에서 논객으로 등장했던 옥소는 제4편의 “일도미인”와 함께 옥소선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2편에 등장하는 명기와 관련해서 이상의 검토를 통해 다는 아니지만 옥소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앞에서 그 정체를 특정할 수 없었던 장안호걸에 관해 검토해 보면, 당연히 승평계 그룹 가운데 핵심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 장안호걸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수록』과 유사한 표현을 쓰면서 유사한 정감의 시조를 창작했던 안민영을 비롯한 그의 주변인을 중심으로 장안호걸을 추정해 보면, 안민영의 『금옥총부』 편찬을 도왔고[101] 옥소선과도 함께 친하게 지냈으며[102] 해주와 관련된 기록[103]을 가진 벽강 김군중, 안민영과 김군중 그리고 옥소선과 함께 어울린 기록이 남아있는 손오여,[104] 승평계의 풍류현장을 그린 기록에 언제나 등장하는 여항 시인 이

101) “내가 고무되어 작흥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외람됨을 피하지 못한 채, 벽강 김윤석 군중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이에 신번 수십 수를 지어 성덕을 노래하고 읊조림으로써, 모천회일하는 정성을 의탁하였다. 또 전후의 만영 수백 수를 모아 한 편을 이루었는데, 삼가 선생에게 나아가 물어 그것을 취사하고 윤색한 연후에야 완벽하게 되었다. 이에 명희와 현령들이 그것을 관현에 올려 다투어 노래하고 번갈아 화창하니, 또한 일대의 승사였다[余不禁鼓舞作興之思 不避猥越 與碧江金允錫君仲相確 迺作新飜數十闋 歌詠盛德 以寓摹天日之誠 又輯前後漫詠數百闋 作爲一篇 謹以就質于先生 存削之潤色之然後 成完璧 於是名姬賢伶被之管絃 競唱迭和 亦一代承事也].”, 안민영「자서」.

102) “나는 화산(華山) 손오여(孫五汝) · 벽강(碧江) 김군중(金君仲)과 더불어 날마다 옥수수와 함께 연메(連袂)하기를 밤낮으로 계속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정의가 두터워져 서로 떨어질 수가 없었으나, 일이 다하여 내려갔다[余與華山孫五汝 碧江金君仲 逐日連袂與玉秀秀晝以繼夜於斯之際 情膠誼漆 不能相捨而過事下去].”,『금옥총부』, 112번 부기.

103) “무인년(1878년) 봄 벽강 김군중이 일이 있어 해주 감영에 내려가니, 날마다 서로 따르던 뒤끝이라 막힌 회포가 마치 산과 같았다. 하루는 한 조각 한가로운 구름이 서쪽 하늘에서 가고 머무는 것을 아득히 바라보고, 무료하여 지었다[戊寅春 碧江金允錫君仲 有事下去海營 而逐日相隨之餘 阻懷如山一日遙望一片閑雲去留於西天矣 聊以作之].”,『금옥총부』, 118번 부기.

104) 101번 각주,『금옥총부』 112번 부기와 “무인년(1878년) 봄에 연호 박사준, 화산 손오여, 벽강 김군중과 함께 운애산방을 방문하였다[戊寅春 與蓮湖朴士俊 華山孫五汝 碧江金君仲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영 그리고 『금옥총부』에 총 7회나 등장하였고 안산 제일의 별장을 가진 부호 박한영, 안민영과 한 집안사람으로 50여 년을 지기(知己)로 지낸 안경지, 해주 출신의 명소 임백문, 그리고 세악수인 천홍손, 정약대, 윤순길 가운데 일부가 제2편의 논객으로 등장했던 장안호걸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들 중 또 다른 일부는 장안호걸의 범주로 보기보다는 편찬자의 범주로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7
부유갓튼 죠로긱이/ 빅구쳐름 빠른세ᄉᆞᆼ/ 아니놀면 무엇ᄒᆞ오/ 뒤중부 일셰쾌ᄉᆞ/ 주식밧게 ᄯᅩ인난가/ 잉셩갓치 고은쇼릭/ 권주가 한곡죠은/ 흐린술의 춤이나고 / 여화여옥 묘한ᄐᆡ도/ 촉영명월 요젹시의/ 치마끈 푸난쇼릭/ 흑감향이 이안인가 / 졔것두고 못씨난것/ 왕중군지 고지로다/ᄉᆞᆼ심낙ᄉᆞ 쾌한일이/ 미식밧게 ᄯᅩ무엇고/ 셔셔이 ᄉᆡᆼ각ᄒᆞ오/ 부력할 이니말ᄉᆞᆷ/ 고금의 격언이라/ 죠간이 층션ᄒᆞ니/ 쵸불입이 졔갈양이라/ 영웅이 뉘이시며/ 미혼단은 ᄂᆡ모로나/ 함인ᄒᆞ난항은 이거시라/ 근묵ᄒᆞ면 거머지고/ 근주ᄒᆞ면 북난다니/ 근이원지 ᄉᆞᆼ칙이라. (<소2, 52>)

8
이으관지(一以貫之)ᄒᆞ면, 그 승연구구(蠅營狗苟)함과 향안암탐(羊狠狼貪)ᄒᆞ미 불과 유유유탕(綏綏有蕩)ᄒᆞ난 호리(狐狸)요, 분분무량(奔奔無良)한 모쵸리[鶉]라. 졔 불과 망국(亡國)ᄒᆞ난 요물(妖物)이요, 함인(陷人)ᄒᆞ난 굴암[坑]이라.[105] (<소3, 53>)

9
긱월, 우습다, 그ᄃᆡ 말이 편협ᄒᆞᆫ 여ᄌᆞ로다. …(중략)… ᄯᅩ난 망국ᄒᆞ난 요물이라, 함인ᄒᆞ난 굴함이라 ᄒᆞ나 긔 역 쇽ᄌᆞ의 우언이라. 주불취인 인지취라 식불미인 이ᄌᆞ미을 가인 미희의 홀노 함이 안이라. 위중강 반쳡여난 만고 가인이나 천지의 풍유로되 그 집을 업치미 업스니 엇지 미인과 가인을 탓할리요? 왕망 동탁과 치경 진히 등이 미식되여 한숑을 망케 ᄒᆞ여스며, 난영 지빅과 이ᄉᆞ 죠고 등이 다 가인로 몸이 망ᄒᆞ엿난가? 홍망셩쇠와 공명현달이 다 ᄭᅥ가 이스니 엇지 져의을 탓ᄒᆞ리요? 이러무로 호긱과 중부의 호화을 도을 다름이니라. 이러무로 천ᄒᆞ디보난 미식인가 ᄒᆞ노라. (<소3, 53~56>)

7은 장안호걸의 기녀 비판에 맞서 마지막 반박 논객인 명기가 나서서 세월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좌중을 향해 기녀와 어울려 기방유흥의 맛에 흠뻑 빠져보라고 독려하고 있는 대목이다. 논쟁을 지켜보던 청중들은 명기의 유혹에 동조

訪雲崖山房].”, 『금옥총부』 42번 부기.
105) 이 부분은 원문의 오기가 심해서 한자를 병기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른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장안호걸이 다시 등장하여 지켜보던 좌중을 향해 『삼국지연의』를 예로 들어 기방의 유흥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논쟁은 마무리가 된다.

8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갑'이 기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갑'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녀는 사람의 혼을 빼는 여우, 음란하게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메추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물 그리고 사람을 빠뜨리는 수렁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기녀 요물론'을 주장하고 있다. '갑'의 기녀를 보는 시각은 앞편의 장안호걸과 동일하다. 둘 다 기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은 동일인물일 것으로 짐작된다.

9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객'이라는 화자가 기녀를 비판했던 8의 '갑'을 향해 기녀를 비판하는 말은 편협한 소견을 가진 여자들이나 하는 말이며 세상 물정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8의 '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한 후, 기녀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결론짓는다.

이들이 기녀를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녀 존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이 책의 성격상 장안호걸은 전자에 속할 것이고 편찬자는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렇듯 장안호걸과 편찬자가 기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논쟁을 한 장소가 '양한당'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쪽 다 같은 승평계 그룹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장안호걸과 편찬자는 다 승평계 그룹에 속한 일원이지만 그러나 그 내부에서도 기녀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장안호걸로 추정했던 인물 중 기녀를 찬미한 시조를 60여 수 이상을 쓴 안민영, 기록을 통해 안민영 및 옥소선과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는 벽강 김군중과 손오여는 이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통해 편찬자의 인식에 가까웠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 세 사람 중 누군가가 명기라고 불리는 3인 중 해주와 관련 있는 어떤 기녀, 즉 옥소선과 같은 기녀를 위해서 이 『소수록』을 편찬했을 가능성이 크다.[106]

106) 이들 3인 외에 편찬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추가적 인물로 여항 시인 이제영, 중인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금까지 『소수록』의 창작 배경으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수록』의 편찬은 1867년~1877년 사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창작 배경과 관련하여 제1편과 14편의 주요 공간인 해주와 제2, 3, 4, 7편의 배경 장소로 등장하는 양한당을 주목하였다. 이 중 양한당을 추적한 결과 양주에 있는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직곡산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해주와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양주의 양한당을 함께 공유했던 인물이나 그룹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이 책은 운문과 산문, 한글과 한문이 섞인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앞의 서지적 특징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다. 따라서 편찬자는 이런 복잡성을 능수능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당대에 이런 능력을 갖추었을 만한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그룹으로 '승평계'를 상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2편에서 논객으로 등장했던 장안호걸과 옥소의 정체에 대해 추적해 본 결과, 둘 다 승평계 그룹의 일원으로, 전자는 기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어떤 인물일 것으로, 후자는 흥선대원군의 총애와 안민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해주 명기 옥소선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편찬자 또한 승평계의 일원으로 장안호걸과는 달리 기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층의 부호 풍류객인 박한영 정도가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소수록』의 성격과 편찬 의식

1. 잡록적 성격

앞서 『소수록』을 한글잡록으로 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잡록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소수록』의 잡록적 성격은 전체 구성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개별작품 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둘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전체 구성에 나타난 잡록적 성격

『소수록』은 총 1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인물전, 수필, 가사, 시조, 호명기 등 다양한 장르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소수록』의 내용과 주제 그리고 글의 종류

차례	소제목	주요 내용	주제 지향	글의 종류
제1편	촌희영명긔명션이라	해주 명기 명선의 이야기와 서술자의 논평	이상적인 기녀상 제시	인물전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흔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	양한당에서 벌어진 장안호걸과 명기들의 '창가의 맛' 논쟁	기녀 가치 논쟁	토론 형식의 수필
제3편	죵순이라	객의 '기녀 보물론'을 따름	기녀 가치 논쟁	토론 형식의 수필
제4편	찬일도미ᄋᆡ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	기녀의 아름다움을 찬미함	기녀 가치 논쟁	가사체 수필
제5편	ᄃᆡ다졍ᄉᆡ자ᄒᆞ여 작구압가인셔라	객이 제6편의 기녀에게 쓴 잠자리 구애의 편지	기녀 가치 논쟁	편지 형식의 수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제6편	답중	제5편의 객을 향한 기녀의 거절 답장		편지 형식의 수필
제7편	수슴셩충이 회양한당 ᄒᆞ여 탄화로졉불니라	양한당에서 노기들이 나이듦을 한탄함	기녀 가치 논쟁	가사체 수필
제8편	쳥누긔우긔라	제10편 기녀를 향한 객의 상사기	기방 애정담	편지 형식의 수필
제9편	단충화답이라	제8편과 제10편 화자 간 화답시조(7수)		화답가
제10편	답죠라	제8편 객을 향한 기녀의 답시조(6수)		답가
제11편	쳥뇽가인한충가	제13편의 청주선달을 향한 청룡가인의 상사가	기방 애정담	편지 형식의 가사
제12편	단충이라	제13편의 청주선달을 향한 청룡가인의 상사시조(3수)		시조
제13편	답이라	제11, 12편의 청룡가인을 향한 청주선달의 답장		편지 형식의 수필
제14편	힉영명긔졈고호명긔라	해주 기녀 40명의 점고 호명기	기녀 호명 의식	기녀 호명기

[표 1]의 내용을 중심으로 14편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讚海營名妓명선)이라>는 '해주 명기 명선을 기리노라'이다. 이 작품의 구성은 매우 독특하다. 가사체 위주로 서술된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와 산문체로 서술된 '서술자의 논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는 해주 기녀 명선이 정인 김진사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이별한 후, 긴 기다림 끝에 그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술자의 논평'은 편찬자가 이 작품을 쓴 동기를 밝힌 내용이다. 춘향이에 버금가는 해주 열녀 명선의 이야기를 읽고 후배 기녀들은 교훈과 자긍심을, 남성 객들은 기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향은 명선이라는 이상적인 기녀상을 독자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은 형식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있어서 장르 규정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은 인물전의 특성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두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인물전이라 규정하였다.[107]

제2편 <중안호걸(長安豪傑)이 회양혼당(會養閑堂)ᄒᆞ여 여슈ᄉᆞᆷ명긔(與數三名妓)로 논충가지미(論娼家之味)라>는 '장안호걸이 양한당에서 모여 3인의 명기[108]와 더불어 창가의 맛을 논하노라'이다. 장안호걸과 기녀들이 양한당에서 모여 기녀와 기방 유흥의 가치에 대해 논쟁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먼저 기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장안호걸이 기녀를 요물이라고 비판하자, 3인의 명기가 달변으로 설파하여 좌중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어냈다는 내용이다. 특히 명기들의 논박 내용 중 남성들을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대목은 이 작품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향은 '기녀 가치 논쟁'에 있다. 한편 이 작품의 구성 역시 독특하다. 전체적으로 가사체 위주로 서술되지만, 이 작품의 핵심인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서술이 산문체로 바뀐다. 따라서 글의 종류는 최종적으로 가사체와 산문체가 혼합된 토론 형식의 수필로 규정하였다.

제3편 <죵순(從順)이라>는 '순순히 따름이라'이다. 기녀 존재 가치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을 가진 논객이 맞서 논쟁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남성화자 '갑'(필자 주)이 먼저 '기녀 요물론'을 주장하며 기녀를 비판하자, 이에 객이 '갑'을 향해 편협한 소견을 가졌다고 질책한다. 그리고 '가인천하보물론'을 주장한다. 제목의 "죵순(從順)이라"는 객의 '가인천하보물론'에 따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향은 '기녀 가치 논쟁'에 있다. 글의 종류는 산문체로 서술된 토론 형식의 수필로 규정하였다.

제4편 <찬일도미인(讚一道美兒)타가 탄미문감탄셩(歎未聞感歎聲)이라>는 '한 도의 미인을 예찬하다가 감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 탄식하노라'이다. 남성 화자가 어떤 기녀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가무의 탁월함에 대해 예찬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남성 화자는 한 기녀를 보고 그녀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가무의 탁월함에 대해 칭찬하면서 바로 앞편에서 주장했던 '가인천하보물론'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향 역시 '기녀 가치 논쟁'에 해당한다. 한편

107) 이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상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108) 대개 '슈ᄉᆞᆷ명긔(數三名妓)'라고 하면 3~4인의 기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정 인물과 장소가 여러 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소수록』의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3인의 명기로 그 수를 특정하여 서술해 나가기로 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작품은 가사체 위주로 서술되었지만, 가사체의 음수율이 대부분 깨어져 있고 제목도 가사 제목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가사로 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글의 종류는 최종적으로 가사체 수필로 규정하였다.

제5편 <ᄃᆡ다졍ᄉᆡ자(對茶亭侍者)ᄒᆞ여 작구압가인셔(作舊狎佳人書)라>는 '다정 시자를 마주하여 전에 알던 기녀에게 편지를 쓰노라'이다. 기녀를 향한 한 객의 구애를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한 객이 제6편의 기녀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해달라며 구애의 편지를 써서 시자를 통해 전달한다. 제6편 <답ᄌᆞᆼ(答狀)>은 기녀의 '답장'이다. 제5편의 객에게 구애의 편지를 받은 기녀의 답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객을 향한 기녀의 대답은 '거절'이다. 거절의 핵심적인 이유는 객이 기녀를 단지 몸을 파는 창녀로만 인식하고 구애를 했기 때문이다.[109] 두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구애하는 남성과 거절하는 기녀의 애정담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남성들에게 기녀를 여인으로서,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대해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향 또한 '기녀 가치 논쟁'에 있다.

한편 두 작품은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하는 연작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작품이 실제로 오고 간 편지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편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형식과 내용적 특성들이 모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편찬자가 편지 형식을 차용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보고 편지 형식의 수필로 규정하였다.

제7편 <수ᄉᆞᆷ셩ᄎᆞᆼ(數三成娼)이 회양한당(會養閑堂)ᄒᆞ여 탄화로졉불ᄂᆡ(歎花老蝶不來)라>는 '3인의 성창이 양한당에 모여 꽃이 시들어 나비가 날아들지 않음을 탄식하노라'이다. 양한당에 모인 3인의 성창이 늙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신세를 한탄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기녀들은 자신들을 찾지 않는 남성 객들을 향해 '사랑'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현실

109) 기녀가 남성을 대하는 심리에 대해서는 다음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듯하다. 김홍규는 "기녀들과 남성들 사이의 성적 관계는 일정 수준의 가격을 지불하면 몸을 허락하는 '정형화된 매매(매춘)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물질적 요소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나 심리 관계가 기생과 남성 사이에 작용했고, 이를 포함한 소통이 어느 정도 성숙한 연후에 기생은 옷고름을 풀었던 것이다. '물질적 요소만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가치나 심리 관계'가 작용하는 이 지점에서 남녀 간의 긍정적 관심이나 호감, 정념 등이 싹트고 자라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의 일부가 연정이라 부를만한 심리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김홍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5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인 가치'를 쫓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기녀의 가치가 오직 젊고 아름다운 외모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을 향한 원망이 담겨있다. 모인 장소가 제2편과 같은 양한당이고 등장하는 기녀의 숫자도 3인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제2편의 명기들과 동일인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향 또한 '기녀 가치 논쟁'에 포함된다. 한편 이 작품은 가사체 위주로 서술되었지만, 가사체의 음수율이 대부분 깨어져 있고 작품의 제목을 보아도 가사의 제목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글의 종류는 최종적으로 가사체 수필로 규정하였다.

제8편 <청누긔우긔(靑樓奇遇記)라>는 '청루에서 맺은 기이한 만남이라'이다. 한 객의 기녀를 향한 그리움의 심회를 기록한 것이다. 고향을 떠나 실의(失意)한 객이 그곳에서 만난 기녀와 사랑하고 헤어진 후 그녀와의 만남을 추억하면서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제9편 <단충화답(短唱和答)이라>는 '시조로 화답하노라'이다. 이별의 아픔을 시조 7수로 노래한 것이다. 시조의 내용으로 보아 한 사람의 화자가 일방적으로 7수 모두를 노래한 것이 아닌,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가 번갈아 가며 이별의 아픔을 시조로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10편 <답죠(答調)라>는 기녀의 '답하는 노래라'이다. 역시 이별의 아픔을 시조 6수로 노래한 것으로 제9편의 7수와는 달리 시조 6수의 정감은 모두 여성 화자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제8, 9, 10편은 작품의 제목과 배치 순서 그리고 각 내용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하는 연작 구성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제8편은 한 객이 제10편의 기녀를 향해 쓴 상사의 편지이고 제10편은 제8편의 객을 향해 보낸 상사의 답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남는 제9편은 자연스럽게 이 둘이 주고받은 화답가로 처리된다. 이 세 편은 실제 기방에서 맺어진 남녀의 애정담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세 작품의 주제 지향은 바로 '기방 애정담'에 있다.

한편 이들 작품 역시 제5, 6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글의 종류는, 제8편은 편지 형식의 수필로, 제9편은 화답가로, 제10편은 답가로 규정하였다.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靑龍佳人寒窓歌)>는 '청룡가인의 유랑 노래'이다. 청룡가인의 애정담을 가사체로 기록한 것이다. 일찍이 고아가 되어 몸을 팔며 떠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던 청룡가인은 20세에 드디어 소원하던 제13편의 청주선달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곧 이별하게 되고 청주선달과 함께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를 향한 그리움의 감정을 편지에 담아 보낸다.

제12편 <단충(短唱)이라>는 '시조라'이다. 이별의 아픔을 시조 3수로 노래한 것이다. 청룡가인과 청주선달 간 오고 간 편지 사이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청룡가인의 것으로 판단된다.

제13편 <답(答)이라>는 청주선달의 '답장이라'이다. 제11편의 청룡가인에게 편지를 받은 청주선달이 보낸 답장이다. 청주선달은 청룡가인과 함께할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녀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감정을 답장에 열정적으로 표현한다. 이들 작품은 앞에 배치된 제8, 9, 10편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기방에서 맺어진 남녀의 애정담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주제 지향은 앞의 세 편과 마찬가지로 '기방 애정담'에 있다.

제11, 12, 13편 또한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하는 연작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작품은 앞의 연작 구성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편찬자가 편지 형식을 차용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따라서 제11편은 편지 형식의 가사로, 제12편은 시조로, 제13편은 편지 형식의 수필로 규정하였다.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海營名妓點考呼名記)라>는 '해주 명기 점고 호명기라'이다. 이 작품은 제1편에서 편찬자가 논평 부분에서 독자로 지목했던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을 기록한 호명기다. 호명기는 일종의 기생안(妓生案)[110]이다. 이 기생안을 실제로 해주 관아에서 기생 점고 시 사용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같은 시기 기안에 올라있던 기녀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 작품은 기존에 없던 가사체로 된 유난히 긴 수식어와 그 수식하는 방식에 있어 이름의 각 글자를 가사 시행의 첫 글자로 삼아 지은 유희적 성격이 강한 호명기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기녀를 향한 특별한 애정을 그들의 이름자에 담아 호명한 편찬자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지

110) '관노비안'의 관기의 경우 기명과 함께 수식어를 병기하였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관노비안에는 이 작품의 경우처럼 기명 앞에 이렇게 긴 수식어가 병기된 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영민, 「기생안을 통해 본 조선후기 기생의 공적 삶과 신분」,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향은 '기녀 호명 의식'으로 보았다. 또한 글의 종류는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을 가사체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사체 호명기'로 규정하였다.

이상 14편의 작품 개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소수록』의 내용은 모두 기녀와 관련되어 있고 그 주제 지향은 기녀 존재 가치를 따져보는 데 있으며 개별 작품들은 인물전, 편지 형식의 수필, 편지 형식의 가사, 시조, 호명기 등의 다양한 형식의 글을 모아놓은 자료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소수록』은 기녀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모아놓았다는 측면에서 기녀 관련 '잡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111]

한편 『소수록』의 잡록적 성격은 다양한 장르의 14편의 글을 모아놓았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소수록』 14편은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강한 잡록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는 등장인물 간 대화가 가사체로 진행되다가 이 작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문체가 산문체로 바뀌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는 본고가 최종적으로 '편지 형식의 가사'라고 규정하였지만, 사실은 가사와 편지가 뒤섞여 있어서 가사인지 편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양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텍스트 안에 여러 문체가 혼용되고 여러 장르가 뒤섞여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현상은 『소수록』의 일부 작품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품에서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수록』은 전체 구성을 놓고 보아도 잡록적 성격을 지닌 자료이고 개별작품을 들여다보아도 잡록적 성격을 지닌 자료라 할 수 있다.

2) <ᄎᆞᆫ히영명긔명션이라>의 장르 착종적 성격

앞서 『소수록』은 14편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작품의 차원에서도 잡록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그런데 개별작품 차원에서 잡록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제1편 <ᄎᆞᆫ히영명긔명션이라>

111) 필자에 앞서 이미 『소수록』을 '잡록'이라 규정한 기록이 있음을 밝혀 둔다. 신경숙・이상원・권순회・김용찬・박규홍・이형대 著,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작품에 나타난 잡록적 성격, 특히 장르 착종적 성격[112]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수록』을 대부분 가사집이라고 보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에 있다. 이 작품은 『소수록』 전체 분량인 125면 중 34면의 분량을 차지하는 장편으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이 가사체 위주로 기록되었다는 점과 작중 화자인 명선의 자기 술회 때문에 '기녀가 쓴 장편가사'로 인식되어왔다. 이 작품은 연구자들이 그렇게 오해할만한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왜 그런 오해가 발생했는지를 알아본 후 이 작품에 대해 필자가 생각하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해 보겠다.

1
어화 벗님닉야/ 이닉말 웃지말쇼
낙양셩동 도리원의/ 꼿시졀이 미양이며
숨화양ᄉᆞ 연화즁의/ 오입직을 미들숀가
이식ᄉᆞ인 우리힝중/ 연국부인 못바라나
위션숭봉 질겁도다 — (화자인 명선의 자기술회 종료) (<소1, 31>)

2
ᄃᆡᄀᆡ 너이 죵긔한 바, — (새로운 화자의 등장)
화안월ᄐᆡ와 난지혜질은 화쳥구비을 살지다 나물할 거시오. 셤셤죽순과 칙칙금면은 한궁비련을 경쳡다 우살지라. 알운쳥가와 편쳔포무난 가이 일셰을 긔우릴 거시오. 쳥ᄃᆡ단군과 유요옥질이 가이 쳥누긔관 되미 졍이 붓그렵지 아니ᄒᆞ니 쇼활

112) 『소수록』의 장르 착종적 성격의 고찰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 46, 창작과비평사, 1977; 서인석, 「<구운몽> 후기 이본의 문체 변이와 그 의미」, 『인문연구』 1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김대행, 「시조 · 가사 · 무가 · 판소리 · 민요의 교섭 양상」,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고순희, 「19세기 장르 간 교섭의 한 양상 - 현실 비판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5, 한국시가문화학회, 1998; 김병국 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함복희, 「서사가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서영숙, 『조선 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과정」,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정준식,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교섭 사례」,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유기옥, 「<님낭자가라>의 서사적 사건 구성양상과 의미」, 『온지논총』 30, 온지학회,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졍한 천셩 작인이며 월미 셩안은 중낭의 ᄋᆡ을 ᄉᆞ르며 교언영식은 이랑의 마음을 썩여 화류와ᄉᆞ의 아무라 ᄒᆞ무로 반싱을 지닐가 ᄒᆞ여드니 (<소1, 31~32>)

3
능이 연화을 버셔나 안연이 졀부의 일을 무란이 효칙하고 만일 셔진 시의 싱ᄒᆞ여든들 금곡 예졀을 녹주의게 시양ᄒᆞ며 아국 츈향의 일홈이 홀노 악부의 올나실이요. 진실노 홍인의 부복낙간과 예양의 탄탄위아난 유쇽 ᄉᆞᆼᄉᆞ라. 가이 즙분 빅희와 환비ᄃᆡ가로 빗틀 다톨 듯. 그 졀을 의논할진ᄃᆡᆫ 수양고봉을 엇지 놉다 이르며 그 뜻슬 싱각할진ᄃᆡᆫ 연평ᄃᆡ히을 엇지 푸르다 ᄒᆞ리요마난 (<소1, 32~33>)

4
가셕할ᄉᆞ 형ᄉᆞᆫ 빅옥이 은독의 감쵀이고 능언잉무가 농 쇽의 드렷난 듯. 인싱 ᄉᆞ셰의 **너의** 옥부향신을 졉지 못ᄒᆞ며 단졍 옥노을 맛보지 못할진ᄃᆡᆫ 셰ᄉᆞᆼ의 난 것시 허수ᄒᆞ고 죽어도 **너을** 말ᄆᆡ아마 죽지 못한직 죽어도 죽난 거시 가련ᄒᆞ도다. 만일 벽셩 호긱의 일분 다졍한 지ᄌᆞ가 이슬진ᄃᆡᆫ **널노** 말ᄆᆡ아마 ᄉᆞᆼ심젼망할 지멧멧치 될 중 알이요마난 셰강쇽박ᄒᆞ고 인불여고라. 져의 범ᄐᆡ육골과 쇼간치히로 지졍슈취와 봉친합의을 아난 지 뉘라 ᄒᆞ리요. 싱각난 ᄇᆡ 역불과쳥죵공방이요. 취ᄒᆞ은 ᄇᆡ 또한 순홍치빅이라. 황혼낙일ᄋᆡ 목양ᄒᆞ난 아희가 왕숀인 줄 뉘려 알며 졀아산ᄒᆞ 나물 키난 여ᄌᆞ 그 경국지식인 줄 뉘려 알이. 빅니히의 뜻지 굿ᄒᆞ여 진국의 잇지 안이ᄒᆞ나 그 아난 ᄌᆞ 업슴이라 ᄒᆞ거니와 (<소1, 33~34>)

5
ᄃᆡ져 엇지ᄒᆞ면 **니널노** ᄒᆞ여금 후셰에 녹을 먹고 그 인국을 ᄇᆡ반ᄒᆞ며 유중촌혈ᄒᆞ난 음부 출녀를 붓그럽게 ᄒᆞ노라. (<소1, 34>)

인용문은 <ᄎᆞᆫ히영명긔명션이라>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4면 분량을 모두 제시한 것이다.[113] 우선 1의 첫 구절을 보면 "어화 벗님니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규방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호명 방식으로 화자가 청자를 친숙하게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가사의 진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4음보의 가사체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2~5까지를 보면 "ᄃᆡᄀᆡ 너이 죵긔한 바" 이후부터는 가사의 율격이 파괴되어있는

113) 인용문은 크게 "어화 벗님니야 ~ 질겁도다"까지를 ㈀로, "ᄃᆡᄀᆡ 너이 죵긔한 바 ~ 붓그럽게 ᄒᆞ노라"까지를 ㈁~㈅으로 나누고 있지만, ㈀는 인용문 앞에 생략된 30면에 달하는 화자인 명선의 자기술회 전체 내용을 포함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보아주기 바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을 볼 수 있다. 또 가사체가 아닌 산문체를 사용하여 1과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확인된다.

비교적 가사체가 잘 적용되고 있는 1 '화자인 명선의 자기 술회 종료'까지는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이다. 2는 명선의 자기 술회가 종결된 후, 화자가 명선이 아닌 제3자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제3자인 화자는 기녀로 추정되는 청자를 향해 "너이(너희)"라고 친숙하게 부르면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그들에게 이야기한다. 화자는 "화안월티와 난지혜질"과 "알운청가와 편천포무" 등을 거론하여 기녀의 아름다움과 그들이 가진 재주에 대해 칭찬한다. 또한 기녀는 "월미셩안"과 "교언영식"으로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애를 태운다고도 한다. 그리고 "화류와ᄉᆞ의 아무라 ᄒᆞ무로 반싱을 지닐가 ᄒᆞ여드니"라고 하며 기녀 삶의 초라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3에서는 "능이 연화을 버셔나 안연이 졀부의 일을 무란이 효칙하고"라고 하며 화자가 기녀에게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한 기녀가 기녀답지 않게 정인을 향한 절개를 지킨 사례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기녀를 절개와 관련된 역대 인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절부로 드높이며 칭찬한다. 여기서 화자는 "졀부의 일을 무란이 효칙"하게 된 기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화자가 주어를 생략한 채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청자에게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앞뒤 문장의 문맥과 전체적인 작품 구조를 놓고 보았을 때 기녀 신분으로 정인을 향한 절개를 실천한 인물은 당연히 30면에 걸쳐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명선밖에 없으므로 굳이 명선의 이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에서는 "가셕할ᄉᆞ 형ᄉᆞᆫ 빅옥이 은독의 감최이고 능언잉무가 농 쇽의 드렷난듯"이라고 하며 명선이와 같이 훌륭한 기녀가 있음을 몰라주는 당시 세태를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기녀와 기방 애정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몰라주는 남성들로 특별히 "벽셩 호긱"을 지목한다. "벽성"은 해주의 옛 이름으로 "벽셩 호긱"은 곧 "해주 호객"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화자가 2~5에서 "너, 너희, 너희들"이라고 불렀던 청자는 바로 "해주 호객"을 손님으로 상대해야만 했던 해주 기녀들일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소수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 청자의 범위를 좀 더 좁혀보자면, 이들은 마지막에 수록된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에 실린 40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 해주 감영의 기녀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힉영 명긔"라는 말이 들어간 작품이 책의 맨 처음과 끝에 배치된 점으로 보아, 이 책의 편찬자는 첫 번째 작품에서 "너, 너희, 너희들"이라고 불렀던 청자들을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해주 기녀 40명을 호명하여 이것을 마지막 작품인 <힉영명긔졈고호명긔라>에 기록하여 남긴 것으로 보인다.

5에서 화자는 청자들을 향해 걱정과 질책을 동시에 한다. 해주 기녀들이 명선이처럼 남자를 잘 만나 후손이 벼슬에 올라 녹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방종과 음란을 일삼는 일부 기녀를 경계하기 위해 이 글을 지었다고도 말한다. 그런데 "후셰에 녹을 먹고"와 "그 인국을 빅반ᄒᆞ며"로 시작하는 문장이 내용상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사 시 빠진 내용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후셰에 녹을 먹고" 뒤에 "~하게 하리요? 내 명선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라는 정도의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제법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인용하여 이처럼 내용 분석을 한 이유는 이 부분의 해석 여부에 따라 이 작품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관점은 2~5를 결사라고 소개하였지만 서사 전개상 없어도 되는 "군더더기" 정도로 취급하였고 말투만 바뀌었을 뿐 화자는 여전히 명선이라고 보았다.[114] 이런 관점은 제목에도 반영되어 "해주 감영의 명기 명선이 지었노라"라고 풀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풀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이 작품의 원제는 '촌힉영명긔명션이라'이다. 한문 어순 구조를 가진 문장으로 한문현토체(漢文懸吐體)를 순한글로 표기한 것이다. 여기서 '이라'와 같은 토를 제외한다면 '촌힉영명긔명션'이란 한문 문장만 남게 된다. 이때 '힉영명긔명션'은 말 그대로 '해주 감영 명기 명선'이다. 그리고 '촌'은 정확히 어떤 뜻을 가진 한자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촌'이 동사이며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문의 어순 구조는 기본적으로 '주+술'의 구조이다. 이러한 어순 구조에 '촌힉영명긔명션'을 대입해 보면 이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라는 것

114) 이 부분을 명선의 목소리로 주장하는 정병설도 일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명선이 아닌 제3자의 서술로 본 견해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 이유는 청자를 향해 '어화 벗님닉야' 하면서 친숙하게 부르던 화자가 'ᄃᆡᄀᆡ 너이 죵긔한 바'라고 하면서 돌연 말투를 바꾼 점과 '~하리오' '~하노라'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유학자의 훈계조의 목소리를 취한 점 등이다. 정병설, 앞의 책, 8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번역은 '히영명긔명션을 촌하다'라고 해야 옳다.[115] 여기에 기존의 견해와 같이 '촌'을 찬(撰)으로 본다면 '히영명긔명션'은 지은 사람이 아닌 작품명으로 보아야 맞다. 요컨대 기존의 견해인 "해주 감영의 명기 명선이 지었노라"는 "해주 감영의 명기 명선(의 이야기)을 지었노라"라고 번역해야 옳다.

그리고 [2]~[5]에서 화자가 명선이라면 굳이 말투를 바꾸고 문체까지 바꾸어서 서술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한 [2]~[5]에서와 같이 명선이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을 춘향에 버금가는 절부로 드높이며 자신의 훌륭함을 세상이 몰라준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글을 남겼다고 보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해석일까?

아마도 이러한 견해는 이 작품과 친연성을 보이는 여타 '여성 일대기 가사'[116] 중 결말 부분의 후대 향유자의 덧붙임구나 개작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고 내린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성 일대기 가사'의 그것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상당한 분량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서술자가 명선의 이야기를 통해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2]~[5]는 작품 말미에 기록된 작가의 주관적인 견해를 담은 일종의 논평과도 같은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 부분을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와는 구별되는 '서술자의 논평'으로 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논평을 쓴 이는 누구일까? 제목도 없이 전승되던 명선의 자술가를 『소수록』의 편찬자가 수집하여 편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자신이 논평을 가하고 없던 제목까지 붙인 것일까?[117] 그것도 아니라면 편찬자의 순수한 창작물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작품을 좀 더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음은 이 작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분석한 표이다.

---

115) 가령 "曺南冥撰墓碣[조남명(曺南冥)이 그의 묘지(墓誌)를 지었다]"라는 문장에서 주어가 빠진 것과 같다는 뜻이다.

116) '여성 일대기 가사'는 여성주인물의 일생을 일대기화하여 서술하는 가사로서 주로 주인물의 일생을 '출생-고난-혼인-고난-고난해결'의 일련의 순서로 일대기화하여 기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영숙, 「여성 일대기 가사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어문학』 80, 2003, 329면.

117) 이상원, 앞의 논문, 87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 <춘히영명긔명션이라>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성	단락	주 요 내 용	문체
(A)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30면)	1	명선이 여자로 태어남	운문체·가사체
	2	7~8세에 기적에 오르고 12세에 첫 경험을 하게 됨	
	3	본격적인 기방 놀음을 함	
	4	15세에 기녀로 이름을 날림	
	5	16세에 소원하던 정인(김진사)을 만남	
	6	정인에게 이별 소식을 듣게 됨	
	7	정인과 이별의 시간을 맞이함 (상사시조 3수 삽입)	
	8	이별 후 정인을 그리워함 (상사시조 1수 삽입)	
	9	사계절((추→동→춘→하) 내내 정인을 그리워함	산문체 (7면)
	10	열두 달(1→2 … →12월) 내내 정인을 그리워함	
	11	추억 서린 물건들을 보며 정인을 그리워함	
	12	정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상사시조 1수 삽입)	
	13	자신의 불효로 인해 상처받을 어머니를 걱정함	운문체·가사체
	14	정인을 향한 절개를 다짐하고 새 사또의 부름에 불응함	
	15	자신의 불효로 인해 상처받을 어머니를 다시 걱정함	
	16	정인을 꼭 닮은 사내아이를 출산함	
	17	정인에게서 서울로 오라는 연락을 받음	
	18	서울로 떠나기 전 어머니를 위로함	
	19	서울로 가는 노정을 노래함	
	20	마침내 정인과 재회함	
(B) 서술자의 논평 (4면)	1	기녀의 아름다움과 재주를 칭찬함	산문체
	2	절개를 지켜 양반의 첩이 되어 간 명선을 칭찬하고 최고의 절부로 드높임.	
	3	명선과 같은 훌륭한 기녀가 있음을 몰라주는 세태를 안타까워함	
	4	명선의 이야기를 통해 해주 기녀들을 경계하고자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촌히영명긔명션이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이 작품의 핵심 서사를 담고 있는 (A)와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담아 놓은 (B)이다. 주요 내용은 이것을 다시 (A)를 20개 단락으로, (B)를 4개 단락으로 세분해 본 것이다. 아울러 형식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국면이 포착되어 표에 정리해보았다. 첫째 문체의 변화이다. 운문 문장인 가사체와 산문 문장인 산문체가 번갈아 사용되었다. 둘째 다른 장르의 삽입이 빈번하다. (A)의 중간중간에 다른 장르가 상당 부분 삽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특징들은 (A)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특히 문제적이라 할 수 있는 (A)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A)는 1830년생으로 추정되는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를 기록한 것으로, 기녀 신분인 명선이 사랑하는 정인을 만나 이별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의 아들을 낳아 양반가의 첩이 되어 간 이야기다. (A)는 서술 방식에 있어 가사체 위주이고 작중 화자인 명선이 자신의 일대기를 자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촌히영명긔명션이라> 작품 자체를 '가사'로 오인하게 만든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다면 (A)는 가사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A)가 가사이려면 무엇보다 3·4조나 4·4조를 기조로 한 가사체로 서술되는 형태적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한다.[118] 그런데 위의 표를 보면 (A)의 7, 8, 12단락에 시조 5수가 삽입되었고 9~12단락은 아예 가사체가 아닌 산문체로 문체를 변화시킨 것을 볼 수 있다. 가사 속에 시조의 삽입과 산문 문장으로의 문체 변화는 가사의 경우 매우 드문 사례이고 이런 요인들은 (A)를 가사의 형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사 속에 삽입된 시조와 문체가 달라진 문장들은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7, 8, 12단락에 삽입된 시조 5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7단락>

한슘으로 중단ᄉᆞᆷ고/ 눈물노 셩음ᄒᆞ여/ 별가일곡 일운말이

ᄉᆞ랑이 거즛말이 날 ᄉᆞ랑이 거즛말이
오ᄆᆡᄉᆞ복 ᄒᆞ시단 말 그 더욱이 거즛말이
진실노 그 말ᄉᆞᆷ 갓틀진ᄃᆡ 두고 어이

118)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11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정코 야속ᄒᆞ오 울며 감쳐 줍분 숨인 춤아 어이 떨쳐 가오
역지ᄉᆞ지 싱각ᄒᆞ면 나는 졍녕 못ᄒᆞ올 듯
아마도 님에 뜻 ᄂᆡ 졍만 못ᄒᆞ니 긔를 셔러

부ᄃᆡ 편이 가오 중졍단졍 편이 가오
쳔금 갓치 중ᄒᆞᆫ 몸을 실셥 말고 편이 가오
아마도 긱중에 존등을 ᄃᆡᄒᆞ면 ᄂᆡ 마음 알 듯 (<소1, 7~8>)

<8단락>
ᄋᆡ류중탄 긴소ᄅᆡ로/ 별가일곡 이른말이

니별한 그 듯날의 ᄉᆞ랑은 터 업셔도
구회 심중의 가득한 졍은 남아
주야의 ᄭᆞᆫ일 똥 모르고 살 똥만 아라드라 (<소1, 11>)

<9단락>
춤연이 이러안져/ 단가일곡 이른말이

그 말이 거진말이 유ᄉᆞ유몽 거즌말이
꿈의 보와 반기단 말 그 더욱이 거즌말이
아마도 수다몽불셩이ᄆᆡ 꿈 못 이러 (<소1, 18>)

7단락에 삽입된 시조는 명선이 정인과 헤어지기 전날 밤에 부른 것이다. 명선은 “한슘으로 중단숨고/ 눈물노 셩음ᄒᆞ여/ 별가일곡 일운말이”라고 하며 시조로 다음날 자신의 곁을 떠나갈 정인을 향해 슬픔과 원망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연달아 3수를 노래한다. 8단락에 삽입된 시조는 명선이 정인과 이별하고 돌아온 당일 밤에 부른 것이다. 명선은 정인과 이별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그를 향한 그리움으로 잠 못 이루며 절절한 상사의 심회를 시조 1수로 노래한다. 마지막으로 12단락에 삽입된 시조는 명선이 정인과 이별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부른 것이다. 명선은 정인을 그리워하다가 지친 마음을 다시 시조 1수에 담아 노래한다.

명선의 정인을 향한 그리움의 심회는 가사로 길게 음영될 때보다 시조를 통해 압축적으로 노래됨으로써 훨씬 더 애절하고 처량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독자는 명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선의 안타까운 처지와 감정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 요컨대 이들 시조는 명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부가적 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119]

이들 삽입시조 5수는 명선이 가사를 읊다가 별가나 단가란 이름으로 노래한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기녀가 지었거나 기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사연정시조들은 이처럼 떠난 정인을 향한 원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5수를 포함한 『소수록』에 실린 시조 21수도 대개 이러한 정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시조는 단순히 떠난 정인을 향한 원망과 그리움을 노래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감정을 보다 '자극적'이고 '진실하다'고 느껴지게 하도록 노래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19세기 여창 가곡의 특징인 '그리움의 과다 노출' 곧 '과장된 비애의 정조'의 사례를 『소수록』이 직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다.[120]

이러한 19세기적 애정의 약호는 『소수록』 소재 시조에만 그치지 않는다. 글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녀가 화자로 등장하는 『소수록』 소재 모든 작품에서 이 같은 정감을 보여주는 서술 내용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 책이 풍류현장의 주인공인 기녀를 일차 독자로 상정한 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책의 산출이 당대의 풍류현장에서 향유되던 노래의 정감이나 표현법에 매우 익숙했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한다.

다음으로 가사체가 아닌 산문체로 기록되어 눈길을 끄는 9~12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 단락은 7면에 달하는 분량으로 30면의 (A)분량 중 거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은 대부분 상사와 관련된 것으로 정인을 그리워하는 명선의 마음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산문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9단락>

졍이 진중의 긔울어 논이이고 어구의 홍엽이 줌기미라. 다만 쇽졀업시 기름자을 디ᄒᆞ여 경화을 바라보니 젹막공방의 ᄉᆞ르난 이 간장이요, 무인정야의 흐르난 이 눈물이라. 오ᄉᆞ의 기러기 ᄭᅳᆫ쳐지고 쵸수의 고기 줌겨시니 아득한 먼 쇼식이 바람의 중위이 울고 눈이 어두울이로다. 흐르난 졀셰 어니덧 강한에 금풍이 음죽

119) 윤재환, 「단국대학교 소장 한문본 「倡善感義錄」 소재 삽입 한시의 기능과 미감」, 『동양고전』 59, 동양고전학회, 2015.

120) 신경숙, 「19세기 여창가곡의 작품세계」, 고려대학교 고전문학 · 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107~16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고 망양의 추식이 이러나니 쇼탕한 기운과 즉즉한 추공은 수심ᄒᆞ난 ᄉᆞ람의 몽혼을 놀ᄂᆡ이고 쵸목은 황낙ᄒᆞ여 빅셜이 만ᄉᆞᆫᄒᆞᆫᄃᆡ 육화은 ᄉᆞ충의 ᄲᅮ리이고 …(중략)… ᄃᆡ져 추동도 져러커든 ᄒᆞ물며 츈화경명ᄒᆞ여 만화방창 시의 쳐쳐 녹음은 ᄀᆡᄀᆡ 득의ᄒᆞ여 웅봉ᄌᆞ졉이 화간의 쌍쌍ᄒᆞ고 남ᄂᆡ귀연은 옛 기계 구구ᄒᆞ여 득의ᄒᆞ물 ᄌᆞ랑 시의 그 수심단중인의 심회 얼마나 온젼ᄒᆞ며 가도록 위심ᄒᆞ여 육월 ᄉᆞᆷ경의 ᄭᅵ난 듯 더운 긔운은 심간의 이난 화를 비롯고 ᄭᅵ 업난 구즌 비난 단중 눈물을 더ᄒᆞ난 듯. <u>이난 가위 ᄉᆞᆼᄉᆞᆼ심이요.</u> (<소1, 11~14>)

<10단락>

졍월 ᄉᆞᆼ원이 셰인의 즐기지 아니미 안이로되 쳥롱 완월과 야류 답교로 님이 업시미 이 곳 나의 한이요.

즁츈 답쳥이 셰인의 즐긔지 아니미 안이로되 빅마금편으로 왕숀이 도라오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한이요.

ᄉᆞᆷ월 상ᄉᆞ의 곡강 션유가 셰인에 즐긔지 아니미 안이로되 원포귀범으로 님이 도라오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ᄒᆞᆫ이요.

…(중략)…

납월 제셕이 셰인의 즐긔지 아니미 아니로되 영신숑구로 예를 보ᄂᆡ며 이제 시을 맛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한이요.

십이가졀과 삼빅육십일이 나의 즐길 나리 업신이 <u>이난 가위 수시ᄉᆞᆼᄉᆞᆼ심이요.</u> (<소1, 14~16>)

<11단락>

ᄯᅩ난 밥를 ᄃᆡᄒᆞ면 거안져미ᄒᆞ여 유미셩찬을 님의게 나위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한이요.

술을 ᄃᆡ한즉 옥비향온과 죠쇽과효을 님의게 나위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한이요.

온유나의을 ᄃᆡ한즉 나의 옥부향신으로 님의 몸의 붓치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한이요.

ᄭᅩᆺ슬 ᄃᆡ한즉 함쇼함ᄐᆡ한 나의 모양을 님의게 뵈이지 못ᄒᆞ미 이 곳 나의 한이요.

<u>이난 가위 견물ᄉᆡᆼ심이요.</u> (<소1, 16~17>)

<12단락>

ᄯᅩ난 낫도 낫시연이와 달포 밀인 ᄌᆞᆷ은 졍이 츈츄의 ᄌᆞᆷ겨 잇고 식음을 젼폐ᄒᆞ니 흐린 졍신은 연무 즁의 ᄲᅡ졋난 듯, 가난 옥비여난 벼ᄀᆡ을 ᄃᆡ신하고 네 폭 치마은 요금을 겸ᄒᆞ도다. …(중략)… 잇고져 ᄒᆞ나 잇치지 안이ᄒᆞ고 ᄉᆡᆼ각지 마ᄌᆞᄒᆞ나 ᄉᆡᆼ각이 압셔 나나니 ᄒᆡ음 업난 찬 눈물은 화엽을 젹시이고 연긔 업난 이ᄂᆡ 화난 ᄉᆞᆷ촌중이 놉파ᄯᅩ다. …(중략)… 빅ᄉᆞ만ᄉᆞ와 희로이락이 한 일도 ᄉᆞᆼ심 아니 되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곳시 업시니 이러ᄒᆞ고 얼마ᄒᆞ여 공ᄉᆞ의 촉누을 이웃홀난지. 이난 가위 ᄉᆞᆼᄉᆞᆼ심이라. (<소1, 17~19>)

9~12단락의 서술 방식을 보면 명선의 상사를 산문체로 서술하다가 마지막에 일관되게 모두 "이난 가위 ○○○○이요"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위(可謂)가 "한마디로 말하자면"이라는 뜻이고 보면 "이난 가위 ○○○○이요"는 각 단락에서 산문체로 길게 서술된 내용들을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21]

9단락은 명선이 1846년 여름 정인과 헤어진 후 가을→겨울→봄→여름의 사계절을 보내면서 그를 향한 그리움으로 힘들었던 심회를 산문체로 서술한 것이다. 밑줄 친 "이난 가위 ᄉᆞᆼᄉᆞᆼ심이요."를 통해 이 단락은 사계절의 '상사상심(相思傷心)'을 주제로 서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0단락은 달거리 형식을 차용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의 자연 · 기후상태 · 명절놀이 · 민속행사 등을 거론하면서 명선이 정인을 향한 그리움으로 힘들었던 심회를 산문체로 서술한 것이다. 달거리의 경우 원래 민요나 가사, 한시 등의 시가 형식으로 불리던 것을 여기서는 산문체로 바꾸어서 변화를 준 것이다. 이것은 비교적 장편인 가사 (A)가 독자에게 주는 지루함이나 단조로움을 염려하여 편찬자가 문체에 변화를 주어 서술상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밑줄 친 "이난 가위 수시ᄉᆞᆼ심이요"를 통해 이 단락은 열두 달의 '수시상심(隨時傷心)'을 주제로 서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1단락은 명선이 정인과의 추억이 깃든 것들 즉 밥, 술, 옷, 꽃 등을 나열하여 그를 향한 그리움으로 힘들었던 심회를 산문체로 서술한 것이다. 밑줄 친 "이난 가위 견물ᄉᆡᆼ심이요"를 통해 이 단락은 '견물상심(見物傷心)'[122]을 주제로 서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

121) 이와 유사한 서술 방식은 제2편 <중안호걸이 회양혼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충가지미라>에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설명할 때도 등장한다. 가령 정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쇼위 정부라 ᄒᆞ난 거슨, 졔 유젼유ᄌᆡᄒᆞ여 포치유아한 풍도가 졔인을 압두ᄒᆞ고, …(중략) …너가 져 마음을 화순케 ᄒᆞ고, 너가 졔 뜻슬 영합ᄒᆞ게 ᄒᆞ은 거슬 정부라 ᄒᆞ난이, 이난 방금연이 셔문경을 짜르미니, 이 일른 정부요."라는 식으로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설명할 때 일관되게 적용된다.

122) 정병설은 "견물상심(見物傷心)"을 표기된 그대로 "견물생심(見物生心)"으로 보았다. 정병설, 앞의 책, 29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2단락은 명선이 밤낮없이 생각나는 정인 때문에 죽을 것처럼 힘들다는 내용을 산문체로 서술한 것이다. 밑줄 친 “이난 가위 숭ㅅ숭심이라.”를 통해 이 단락은 ‘상사상심(常事傷心)’을 주제로 서술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9~12단락은 명선이 정인과 이별한 후 그를 향한 그리움으로 1년이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냈던 내용을 ‘상사상심(相思傷心)’, ‘수시상심(隨時傷心)’, ‘견물상심(見物傷心)’, ‘상사상심(常事傷心)’이라는 주제로 서술한 것들이다. 이때 명선이 처한 비극적 상황은 가사로 서술했을 때보다 산문 문장으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서술됨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는 효과를 지닌다.

(A)에 삽입된 9~12단락은 당장 삭제한다고 해도 (A)의 서사 전개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8단락에서 이별 후 명선의 상사 관련 심회는 충분히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9~12단락은 단순히 장편가사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가사체에서 산문체로 문장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네 단락 역시 (A)에 삽입된 시조 5수와 마찬가지로 명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는 부가적 요소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3] 그런데 서사 전개 중간에 굳이 타 장르의 삽입과 문장 변화를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보다 편찬자의 창작 능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여겨진다. 편찬자는 작품의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와 독자의 읽을거리 확보를 위해서 애초에 구상했던 편찬 전략을 자신의 작품에 충분히 반영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한편 (A)에서 보이는 개별작품 속 여러 장르의 삽입은 소설의 경우에는 아주 흔한 서술 방식이다. 아주 이른 시기 소설집인 『금오신화』를 보면 한시를 삽입하여 서사 전개의 특수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인물의 내면심리를 표백하는 예술적 장치로도 활용하는 등,[124] 산문 양식인 소설이 시가 양식인 여타 장르들을 삽입해서 작품 내에서 활용한 방식은 독자들에겐 너무나 당연하고도 익숙한 일이다.

그런데 (A)의 경우엔 어떠한가? 운문 양식인 가사라는 장르를 통해 명선의 이야기를 하면서 산문 양식인 소설 내지는 소설적 형태를 끌어와서 작품에 활용하

123) 윤재환, 앞의 논문.
124)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8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을 보고 단순히 소설의 형식를 차용하여 가사에 적용했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역방향에서의 시도는 가사의 경우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사 속에 시조의 삽입도 가사의 경우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다. 이것은 다른 문학작품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서술방식으로서 시조를 매우 독창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시조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수록』은 이런 방식이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시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운문 양식인 가사에 산문 양식인 소설 내지는 소설적 형태를 끌어와서 작품에 활용한 것이다. 이는 이 책의 편찬자만의 새로운 서술 방식의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 부여도 <촌힌영명긔명션이라>를 가사라고 인정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그렇다면 <촌힌영명긔명션이라>는 가사인가? 여기엔 이미 (B)'서술자의 논평'이 존재하고 있으며 제목의 형태를 보아도 가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정해진 대답이다. 그러면 (A)는 어떠한가? 가사인 것 같기도 하다. 30면 분량의 (A)에서 가사체가 아닌 삽입된 분량만 제외한다면 오롯이 가사체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사체가 아닌 7면 분량의 다른 장르의 문장이 삽입되는 순간 가사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사체와 산문체가 병용되고 가사와 논평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작품의 성격 규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근대 문학의 형식적 정형성을 탈피한 구조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근대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까? 이 작품의 형식적인 측면만을 본다면 해답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전대의 한문 산문의 한 장르인 인물전(人物傳)과 그 성격이 유사함을 발견하게 된다.

전(傳)은 열전(列傳), 사전(私傳), 탁전(托傳), 가전(假傳)으로 세분되며[125] 이 중 사전(私傳)[126]은 입전 인물의 선행과 미덕을 표창하는 장르로서 그 일반적인 서술형식이 '인정기술-행적부-논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정기술'이란

125) 신해진, 『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14면.
126) 사전(私傳)은 일반 문인, 학자, 승려들이 사사로운 입장에서 항간의 인물을 입전한 전으로, 본고에서 이야기하는 인물전은 이 사전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입전 인물의 가계 · 신분 · 성명 · 거주지 등에 관한 서술로서 입전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적부'는 가능한 객관적 필치의 서술을 보여주어야 하고, '논찬'은 입전 인물에 대한 작자의 논평이 가해지는 부분으로 주관적인 의론문(議論文)으로서의 성격을 띤다.[127]

이러한 특성을 지닌 인물전의 3단 구성에 <촌힉영명긔명션이라>를 대입해 보면 (A)'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는 '인정기술-행적부'에, (B)'서술자의 논평'은 '논찬'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명선의 '인정기술'로 볼 수 있는 인용문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이닉몸 어이ᄒᆞ여/ 남ᄌᆞ는 마다ᄒᆞ고/ 일긔여ᄌᆞ 되여나며/ 공명 현달과/ 회졔 충신은/ 남ᄌᆞ에 ᄉᆞ업이나/ 거안 졔미ᄒᆞ여/ 죵일 이죵은/ 여ᄌᆞ에 ᄉᆞᆼᄉᆞ여날/ 이닉힝ᄉᆞ 싱각ᄒᆞ니/ 호부호모 계우ᄒᆞ니/ 황ᄒᆞ원ᄉᆞ 가ᄅᆞ치고/ 져젹져젹 거름ᄒᆞ니/ 쵸무검무 고이ᄒᆞ다/ 명션으로 이름ᄒᆞ여/ 칠팔셰에 시ᄉᆞᄒᆞ니/ 죠달도 죠달할ᄉᆞ/ 명월갓튼 이닉얼골/ 션연ᄒᆞ여 명션인가/ 명만천ᄒᆞ 큰이름이/ 션죵신할 명션인가/ 도임쵸에 슈졍ᄒᆞ라/ 닉힝ᄎᆞ예 젼비ᄒᆞ라/ 이십이 늣즌커든/ 십이셰에 셩인ᄒᆞ니/ 어딕당한 예졀인지/ 금슈와 일반이라 (<소1, 1~2>)

인용문은 이 작품의 서두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화자인 명선은 여자로 태어나 말을 겨우 하게 되자마자 시조를 따라 부르게 되었고 걸음마를 하자마자 춤을 따라 추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명선은 아마도 기녀의 딸로 태어나 기방에서 유아기를 보낸 듯하다. 또 명선이란 이름으로 7~8세에 기적에 오르게 되었고 12세에 남자와 처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의 서술 내용은 전의 '인정기술'의 요건 즉 명선의 가계 · 신분 · 성명 · 거주지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128]

이후 이어지는 내용, 즉 정인과의 만남과 이별, 이별 후 상사로 괴로워하면서도 절개를 지키며 그의 아들을 낳아 마침내 서울 양반가의 첩이 되어간 결말까지는 전의 '행적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보여주는 '행적

127) 박희병, 앞의 책, 21면.
128) 이 부분에서 인정기술로 부족한 내용, 즉 거주지의 경우 제목에서 '힉영(해주 감영)'이라고 이미 밝히고 있어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의 특징인 "가능한 객관적 필치의 서술을 보여주"[129]는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편찬자는 입전 인물인 명선의 이야기를 자술 가사의 형태로 기록함으로써 명선 삶의 핍진함을 독자가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전의 '거사직서(據事直書)'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의 '서술자의 논평' 또한 정인을 향한 절개의 실천을 통해 양반가에 입성한 해주 기녀 명선의 이야기가 '인멸(湮滅)'될 것을 걱정하는 내용과 명선의 이야기를 후배 기녀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는 내용에서 이 역시 전의 '논찬'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형식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내용적인 측면은 '인물전'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작품을 인물전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촌'은 '기리다'라는 뜻의 '讚'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은 "해주 명기 명선을 기리노라"로 확정하기로 하겠다.

이제까지 『소수록』의 잡록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구성에 나타난 잡록적 성격을 살펴본 후 이러한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를 중심으로 『소수록』의 장르 착종적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가사체로 서술된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와 산문체로 서술된 '서술자의 논평'으로 이루어졌고, 또다시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속에는 시조 5수와 상당 분량의 산문체가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기녀 자술가 및 가사 작품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물전으로 볼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잡록적 성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이 작품은 명선이가 쓴 글을 그냥 가져와서 여기에 싣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 명선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리하여 자기만의 스타일로 글을 바꾸어서 이 책에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나 특징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일까? 또 다른 특성들을 통해서 본고의 주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129) 박희병, 앞의 책, 2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애정담 수용의 특징

1) 애정담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

『소수록』에 인용된 한 · 중 기녀담 및 애정서사 관련 전고를 통해서도 이 책이 어떤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정리되고 편집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소수록』에 수록된 14편은 글의 종류와 작중 화자가 모두 다르고, 각 작품의 시 · 공간적 배경 또한 모두 같지 않다. 이렇듯 각기 다른 환경에 처한 개별 작품 속 화자들이 기녀와 관련된 동일한 한 · 중 기녀담 및 애정서사 전고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소수록』에 전고로 인용된 한·중 기녀담 및 애정서사 작품들은 <매유랑독점화괴(賣油郎獨占花魁)>, <두십낭노침백보상(杜十娘怒沈百寶箱)>, <이와전(李娃傳)>, <규염객전(虯髯客傳)>, <사마상여열전(司馬相如列傳)>, <석숭전(石崇傳)전>, <옥소전(玉簫傳)>, <서상기(西廂記)>, <춘향전(春香傳)>, <구운몽(九雲夢)>, <옥루몽(玉樓夢)>, <설도전(薛濤傳)>, <장화전(張華傳)>, <금병매(金瓶梅)>, <무숙이타령(武叔이打令)>, <강릉매화타령(江陵梅花打令)>, <숙향전(淑香傳)>, <유의전(柳毅傳)>, <장흥가중회진주삼(蔣興哥重會珍珠衫)>, <축영대설화(祝英臺說話)>, <배항(裴航)>, <흉노전(匈奴傳)>, <이비설화(二妃說話)>, <항아신화(嫦娥神話)>, <전등신화(剪燈新話)>와 연의류(演義類) 소설 등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소수록』의 기녀 관련 한 · 중 애정담 전고 인용 사례[130]

『소수록』 작품[131] / 기녀 관련 작품		제1편	제2편	제3편	제4편	제5편	제6편	제7편	제8편	제11편	제13편	합계
(1)	* 정원화, 이와 『금고기관』 <매유랑독점화괴>의 입화 <이와전>	∨	∨			∨	∨	∨	∨	∨		7편

130) 이 표는 졸고, 앞의 논문들에 두 차례에 걸쳐 제시되었던 표를 수정한 것이고 『소수록』에 인용된 모든 전고를 다 표에 거론한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 매유랑, 화괴낭자 『금고기관』<매유랑독점화괴>	∨	∨			∨	∨		∨	∨		6편
(3)	* 두십낭, 이갑 『금고기관』<두십낭노침백보상>	∨	∨				∨			∨	∨	5편
(4)	* 사마상여, 탁문군 <사마상여열전>	∨	∨				∨	∨	∨	∨	∨	7편
(5)	* 이위공, 홍불기 <규염객전>	∨	∨				∨			∨	∨	5편
(6)	* 석숭, 녹주 <석숭전>	∨	∨						∨	∨	∨	5편
(7)	* 위고, 옥소 <옥소전>					∨			∨		∨	3편
(8)	* 장군서, 최앵앵 <서상기>, <앵앵전>		∨					∨			∨	3편
(9)	* 춘향 <춘향전>	∨				∨	∨				∨	4편
(10)	* 성진, 팔선녀 <구운몽>		∨							∨	∨	3편
(11)	* 설도 <설도전>	∨							∨			2편
(12)	*양산백, 축영대 <양산백전>						∨				∨	2편
(13)	* 서문경, 반금련 <금병매>		∨					∨				2편
(14)	* 무숙, 의양 <무숙이타령>, <게우사>		∨									1편
(15)	* 골생원, 매화 <강릉매화타령>, <매화가라>		∨									1편
(16)	* 숙향 <숙향전>									∨		1편
(17)	* 초선 <삼국지연의>		∨									1편
(18)	* 장홍가, 삼교아 『유세명언』<장홍가중회진주삼>								∨			1편

131)『소수록』소재 14 작품 중 시가 형식의 작품인 제9, 10, 12, 14편을 제외한 나머지 10 작품만을 대상으로 표를 작성한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수록』에 인용된 작품은 한국의 고전소설 및 판소리, 중국의 신화와 전설 및 전기, 역사서, 희곡, 백화소설 등으로 장르 면에서도 다양하다. 그러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설이면서 남녀의 애정서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주인공이 기녀인 작품들이다. 이는 『소수록』이 기녀 관련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표 3]에 거론된 전체 18편의 애정담 가운데 한국작품은 <춘향전>, <구운몽>, <무숙이타령>, <강릉매화타령>, <숙향전> 등 5편이다.[132] <춘향전>, <구운몽>의 경우 3 작품 이상에서 전고로 인용되고 있고, <숙향전>도 그 인용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으로 보아 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전된 판소리인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중국작품의 경우 전체 18편 가운데 13편을 차지하는데, 그 작품은 <이와전>, <매유랑독점화괴>, <두십낭노침백보상>, <사마상여열전>, <규염객전>, <석숭전>, <옥소전>, <서상기> · <앵앵전>, <설도전>, <양산백전>, <금병매>, <삼국지연의>, <장홍가중회진주삼> 등이다. 그 중 『소수록』이 가장 많이 인용한 작품은 <이와전>, <매유랑독점화괴>, <두십낭노침백보상>, <사마상여열전>, <규염객전>, <석숭전>으로 모두 5 작품 이상에서 인용되었다.

이 중 <사마상여열전>, <규염객전>, <석숭전>의 경우는 한국 고전소설에서 흔히 인용되는 인물 전고라 할 수 있다.[133] 반면에 <두십낭노침백보상>과 <매유랑독점화괴>는 『금고기관』에 실린 것으로 여타 고전소설에서 흔히 인용되는 애정서사 전고는 아니라서 작가의 독서 취향이나 독자층의 기호도와 관련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134]

[표3]의 인물 전고 인용 사례의 경우 대다수는 단순한 비유의 차원에서 활용되는 방

132) 본고에선 필자의 임의대로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을 각각 <게우사>, <매화가라>와 동일한 서사로 보고, 애정 소설의 범주로 간주하기로 한다.

133) 전고란 사전적 개념으로 '전례(典例)와 고사(故事)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문학에서 '전고'의 활용은 일찍부터 문인들에 의해 주장된 사례들이 있고, 이후 조선시대까지 전고의 활용은 글쓰기의 정당한 방법이자 필수적 요건으로 인정받아 왔다. 전고의 사례가 되는 것은 역사와 전대 문학이며, 이것들의 활용가치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세계의 의미를 확보하고 도리를 설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소설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고의 사례들과 기능들을 살피는 것은 당대 작가 · 독자들의 소설 텍스트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을 살피는 단서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17세기를 대표할 만한 소설로 김만중의 「구운몽」엔 전고의 활용이 서사 전개 및 글쓰기의 방식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연구 저서로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219~250면; 논문은 엄태식, 「『九雲夢』의 異本과 典故 硏究」,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가 있다.

134)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식으로 우리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화된 방식이다. 그러한 예로 『소수록』과 비슷한 시기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원고사』의 인용문을 살펴본다.[135]

> 1
> 전라도 남원부ᄉᆞ 니등ᄉᆞᆺ도 도임시의 ᄌᆞ졔 니도령이 년광이 십뉵셰라 얼골은 딘유ᄌᆞ오 풍치ᄂᆞᆫ 두목지라 문댱은 니ᄐᆡᆨ이오 필법은 왕희지라 (<남원고사>)
>
> 2
> ᄌᆞ고로 렬녜하ᄃᆡ 무지리오 …(중략)… ᄃᆡ슌이비 아항녀영 혈누뉴황 ᄯᅡ라잇고 뉴한님의 ᄉᆞ부인도 슈월암의 엄젹ᄒᆞ고 낙양의녀 계셤월도 쳔진누의 글을 읊허 평싱슈절 ᄒᆞ엿다가 양쇼유를 ᄯᅡ라가고 ᄐᆡ원ᄯᅡ 홍블기도 난셰에 ᄯᆞᆺ을 셰워 만니댱정 죵군ᄒᆞ여 니졍을 ᄯᅡ라시니 몸은 비록 쳔ᄒᆞ오나 졀ᄀᆡᄂᆞᆫ 막ᄂᆞᆫ 법이 업ᄉᆞ오니 (<남원고사>)
>
> 3
> 니졍의 홍블기ᄂᆞᆫ 남븍으로 종군ᄒᆞ고 탁문군의 봉구황이 고금이 다ᄅᆞᆯ만졍 인심이야 다ᄅᆞᆯ숀냐 왕소군 반쳡여ᄂᆞᆫ 고금이나 상ᄉᆞ일념 원ᄒᆞ기야 마음은 ᄒᆞᆫ가지라 (<남원고사>)

우리 고소설에서 서술자에 의해 인물이 처음 소개되는 방식은 개성적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이다. 이는 조선후기 소설의 대중화와 더불어 더욱 고착화되었는데, 흔히 서술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상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인물들을 작중인물에게 투사하여 주인공을 탄생시키는 기법을 선호하였다.[136] 1을 보면 이도령이란 인물을 독자들에게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 인물의 외모, 풍채, 문장, 필법 등의 세세한 면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들, 즉 진유자, 두목지, 이태백, 왕희지와 직접적인 대비를 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전고 인용의 서술을 통해 최고의 남자 주인공을 자신의 작품 속에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2와 3은 남녀 결연을 다루는 소설에서 흔히 인용되는 인물 전고로 춘향이 자신의 절개를 순임금의 이비, 양소유의 계섬월, 이정의 홍불기, 사마상여의 탁문군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이도령을 향한 춘향의 사랑은 역사상 최고의 사랑으로 칭송되어

135) 인용문 1, 2, 3은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2010, 361~451면의 원전을 참조.
136) 최기숙, 앞의 책, 228~23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온 고사들에 비유되어 그 사랑의 숭고함이 독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수록』에 인용된 한 · 중 애정서사 인물 전고의 활용 방식도 위의 인용문 1, 2, 3과 같이 전형성이 획득된 관습화된 전고 활용 방식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에 기녀 명선이 기다리던 정인(김진사)을 만나고 그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계지 김진ᄉᆞ님 연광이 이십여요 문중이 쳥연이라 풍유ᄌᆞ지난 ᄉᆞᆼ여와 일반이요 봉친합의난 졍원화와 방불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이도령을 묘사했던 부분과 동일한 전고 활용 방식이다. 또 제11편 <쳥뇽가인한ᄎᆞᆼ가>에 "관공 타든 젹토마난 화용졀ᄉᆞ ᄒᆞ여스니 미물도 져러커든 ᄒᆞ물며 ᄉᆞ람되여 졀의를 모를손가 쳔금ᄉᆞᆼ죵 탁문군도 ᄉᆞ마ᄉᆞᆼ여 죵노하고 님안부 화괴랑도 ᄆᆡ유랑을 쑈차나니 지졍식취 이러커든 봉친합에 이를숀가"라고 한 서술도 역시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이다.

한편 『소수록』의 제2편 <논창가지미>[137]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독특한 인물 전고 방식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논창가지미>는 장안호걸과 명기 옥소가 '창가의 맛'에 대해 논쟁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한·중 애정서사 인물 전고가 대거 등장한다.[138] 대개는 기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비유 차원에서의 인물 전고 활용이 나타난다.[139] 그런데 <논창가지미>의 핵심 내용인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서술하는 대목에서는 매우 독특한 전고 활용 방식이 나타난다. 필자는 이러한 독특한 인물 전고의 활용이 단순히 비유 차원을 넘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경우라 판단하고 있다.[140]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것의 예로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 중 '정부'를 이야기하는 대목을 살펴보려 한다.

---

137) 이하 이 절의 서술에서는 제2편 <ᄌᆞᆼ안호걸이 회양ᄒᆞᆫ당ᄒᆞ여 여슈숨명긔로 논ᄎᆞᆼ가지미라>를 편의상 <논창가지미>로 쓰기로 한다.

138) 앞의 [표3]을 보아도 제시된 18편 중 12편이 <논창가지미>의 인물 전고로 인용된 것을 볼 수 있다.

139) 제2편 <논창가지미>의 "번경 명기 두십낭이 이랑을 부긔ᄒᆞ며 투강 익ᄉᆞ ᄒᆞ여스니 혁귄들 업다 ᄒᆞ며, 업도 명창 홍불긔난 왕분를 마다ᄒᆞ고 이위공 ᄯᆞ라스니 지식인들 업다 ᄒᆞ며, 임안부 화괴랑은 왕손 공ᄌᆞ 불원ᄒᆞ고 ᄆᆡ유랑 쑈ᄎᆞ스니 지긴들 업다 ᄒᆞ랴. 졀기을 의논ᄒᆞ면 황능묘가 과분ᄒᆞ며"라는 서술도 역시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이다.

140)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기녀의 삶 속에서 겪었던 남성들을 다섯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보고, 애정서사 전고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전대의 문학에서 그 전형을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병설, 앞의 책, 170~17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① 소위 정부라 ᄒᆞ난 거슨 - 화제 제시
② 졔 유젼유지ᄒᆞ여 포치유아한 풍도가 졔인을 압두ᄒᆞ고, 넉넉한 수단이 일호 귀ᄎᆞ한 거시 업셔, 금의옥식이 마음의 합ᄒᆞ고, 고당ᄃᆡᄒᆞ의 일신이 평안ᄒᆞ여, 화류 중 지명 ᄒᆞ난 ᄉᆞ람이요, 굴안의 영수라. 져마다 엇고져 보고져 항여 바릴가 겁ᄒᆞ고 항여 노할가 염예ᄒᆞ여서, ᄂᆡ가 져 마음을 화순케 ᄒᆞ고, ᄂᆡ가 졔 ᄯᆞᆺ슬 영합ᄒᆞ게 ᄒᆞ은 거슬, 정부라 ᄒᆞ난이 - 화제에 대한 상세 설명
③ 이난 방금연이 셔문경을 ᄯᆞ로미니, 이 일른 정부요. - 전고를 활용한 예시

인용문의 서술방식을 살펴보면, "소위 '~'이라 하난 것은"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이난 '~'가 '~'을 따름이요"라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은 기녀가 이야기하는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설명하는 모든 대목에서 동일하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서술방식은 크게 ①화제 제시, ②화제에 대한 상세 설명, ③전고를 활용한 예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①화제 제시 부분을 보면, '소위(所謂)'라는 표현을 쓰고 '정부'라는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소위(所謂)'는 '이른바'라는 뜻으로 이미 화제로 제시된 '정부'라는 단어가 전고가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②화제에 대한 상세 설명 부분으로 '정부'가 어떤 의미를 가진 남성 유형인지 자세히 설명한다. 끝으로 ③전고를 활용한 예시 부분에서는 앞서 설명한 '정부'가 바로 <금병매>의 남주인공 서문경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요컨대 <논창가지미>의 '정부'는『소수록』의 편찬자가 <금병매>의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해낸 전형인 것이다.

이것을 방증하는 예로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 즉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라는 단어가 전대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후대의 기록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141] 기방의 풍속사를 정리한 이능화의『조선해어화사』제25장 <기생으로서 잊을 수 없는 다섯 가지 자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142]

그렇지만 내가 들은 바로는 속담에 기생이 잊기 어려운 것 다섯 가지가 있다. 맨 처음 남편이 잊기 어려운 것의 하나며, 뛰어나게 미남자인 것이 잊기 어려운

141) 정병설은 한글로 필사된 다섯 단어를 한자로 愛夫, 情夫, 未忘, 和奸, 癡愛로 쓰고 있는데, <논창가지미>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의 의미와 지금의 사전적 의미와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142) 정병설이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정병설, 앞의 책, 17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것의 둘이며, 정열적이고 씩씩한 것이 잊기 어려운 것의 셋이며, 돈이 많아서 잘 쓰는 것이 잊기 어려운 것의 넷이며, 추악해서 볼 수 없는 것이 잊기 어려운 것의 다섯이다. 자세히 생각하면 이 말이 매우 이치가 있다. 내가 말하는 다섯 가지 어려운 것 중, 그 첫째는 음양의 도를 알게 되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사라질 수 없는 것이며, 그 둘째는 그 남자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기생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몸을 바치려는 것이니 속어에 이른바 화간(和奸)이 이것이다. 만약 둘째 자격의 소유자가 셋째 자격까지 겸해서 지녔다면 금상첨화로서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는 기생마다 바라는 바이다. …(중략)… 다섯째는 틀림없이 돈이 있는 자로서, 비록 본심은 아니지만 겉으로 애정이 있는 것처럼 꾸민다. (<조선해어화사>)[143]

인용문의 내용은 이능화가 자신이 직접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기생이 잊기 어려운 다섯 가지 자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다섯 가지는 첫째 맨 처음 남편, 둘째 미남자, 셋째 정열적이고 씩씩한 남자, 넷째 돈이 많은 남자, 그리고 다섯째 추남이다. 이런 남성 분류는 실제로 기방에 온 남성 손님들에 대해 기녀가 할 수 있는 대답으로 매우 현실적이며 진정성도 있어 보인다. 그와 비교하여 <논창가지미>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은 그 유형의 분류가 너무 치밀하고, 그 말들은 너무 정제되어 있어 실제 기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성을 분류함에 있어 『조선해어화사』의 이능화가 전하는 이야기와 <논창가지미>의 옥소를 포함한 명기들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공통점도 있다. 우선 주목되는 점은 기녀의 남성관이 <논창가지미>와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라는 사실이다. 『조선해어화사』에서 언급한바, 기녀가 잊기 어려운 다섯 가지 자격은 그 내용이 매우 현실적인데, 주로 남성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성적 능력과 돈이 기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논창가지미>의 그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은 다음 장에서 <논창가지미>와 전고로 인용된 작품의 내용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화간'이란 단어이다. 둘째 미남자를 부연 설명하면서 속어에 '화간'이란 "남자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기생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몸을 바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화간'의 의미가 <논창가지미>의 화간과 매

143) 이능화 지음, 이재곤 옮김,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23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능화가 들었다는 이야기는 <논창가지미>의 명기 옥소의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부'를 제외한 <논창가지미>의 애부, 미망, 화간, 치애도 그 전형이 되는 작품을 각각의 화제 설명의 끝에 모두 언급하고 있다. 이제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 즉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라는 단어가 필자의 주장대로 정말로 편찬자의 독서경험에서 나온 새로운 전형의 창출인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각각의 화제로 제시된 단어들이 인용된 작품의 내용과 인물의 성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논창가지미>의 전고 수용과 새로운 전형의 창출

『소수록』의 제2편 <논창가지미>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안호걸이 양한당에서 모여 3인의 명기와 더불어 창가의 맛을 논하는 서사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논창가지미>의 전체 내용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안호걸:

(1) 기녀를 요물이라고 비판하고 그런 하찮은 존재가 남성들을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로 분류한다고 질책하며 궁금해한다.

● 명기 1(옥소):

(2) 호화로운 기녀 삶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가치를 신선에 비유한다.
(3) 미인도, 초선의 고사로 역대 기녀의 공로를 말한다.
(4) 녹주, 설도, 두십낭, 홍불기, 화괴낭자의 고사로 역대 기녀의 지조를 말한다.
(5) 남성 삶의 활력소로 기녀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6) 남성들의 옹색한 현실 삶을 비웃는다.
(7) 남성들을 향해 기녀 존재와 기방 유흥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 조롱한다.

● 명기 2:

(8) 애부를 설명하고 그 전형은 정원화와 이와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9) 정부를 설명하고 그 전형은 서문경과 반금련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10) 미망을 설명하고 그 전형은 장군서와 앵앵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11) 화간을 설명하고 그 전형은 매유랑과 화괴낭자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⑿ 치애를 설명하고 그 전형은 무숙과 의양 그리고 골생원과 매화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 명기 3:
⒀ 무엇보다 기방에서는 돈이 많은 남자가 최고라고 말한다.
⒁ 좌중의 남성들을 향해 기방의 유흥을 함께하자고 부추긴다.

● 장안호걸:
⒂ 명기들의 논박이 좌중에게 인정받자 장안호걸은 기방 놀음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논창가지미>의 전체 서사는 위와 같이 15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5개 단락 중 (1)단락과 ⒂단락은 장안호걸의 목소리이고 (2)~⒁단락은 옥소를 포함한 3인의 기녀 화자의 목소리다.[144] 기녀 화자의 목소리로 예상되는 13개의 단락은 다시 내용에 따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2)~(7)단락은 '옥소(명기 1)'의 목소리로 보았고, 다음으로 (8)~⑿단락은 '명기 2'의 목소리로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⒀~⒁단락은 '명기 3'의 목소리로 보았다.

먼저 장안호걸이 (1)단락에서 기녀를 애물이자 기화 같은 존재라고 비판하면서 그런 기녀가 남성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질책한다. 이에 명기 옥소가 나서서 반박을 시작한다. (2)와 (3)단락에서 남성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기녀의 지위는 적강 신선에 비교되는 적강 선녀이고, 역대 남성 영웅들이 있다면 그에 비교되는 역대 공로가 있는 기녀들도 있다고 말한다. (4)단락에서 전대 문학의 고사를 인용해 녹주, 설도, 두십낭, 홍불기, 화괴낭자 등의 역대 명기들을 거론하면서 기녀의 절개 있음의 비유는 순임금의 이비인 아황・여영에 까지 미친다. (5)단락은 남성 삶의 활력소로 기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녀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한다. (6)단락에서 기녀를 비웃는 남성들의 현실 삶을 둘러보면 기녀의 삶보다 그리 나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7)단락에서 자신들을 손가락질하는 남성들을 향해 기녀 존재와 기방 유흥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모른다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남성상은 따로 있음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은 다음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녀가 바

144) 정병설은 ⒂단락도 명기 옥소의 목소리로 보고 있다. 정병설, 앞의 책, 20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라는 남성상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8)~(12)단락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이다.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인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는 <논창가지미>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고, 이 작품의 토론 주제인 '창가의 맛'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1)단락에서 장안호걸이 "소위 이부라 정낭이라 미망이라 화간이라 치히라 일커르니, 그 역시 공교롭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서술될 것이란 것을 독자들은 예상하게 된다. 역시나 본론에서 이것에 대해 서술된 분량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애부에 대해 서술한 대목을 살펴보자.

> 소위 이부라 이르기난 마음 유려ᄒᆞ여 셩졍이 온화ᄒᆞ고, 작인이 혜일ᄒᆞ여, ᄂᆡ 강ᄒᆞ면 졔 유ᄒᆞ고 ᄂᆡ 유ᄒᆞ면 졔 강ᄒᆞ여, 일동일졍이 ᄂᆡ 뜻셰 ᄉᆞᆼ합ᄒᆞ고, 지신이 죵용ᄒᆞ여 은은한 깁품 졍이 말치 아니ᄒᆞ은 ᄃᆡ 잇고, ᄉᆞ량ᄒᆞ난 뜻시 친합지 아니한 주음의 이셔, 면면 불망지심이 괄골활육을 잇기지 아니ᄒᆞ되, 주고져 심이 밋지 못ᄒᆞ고 말고져 면면한 졍을 ᄎᆞ마 잇지 못ᄒᆞ며, 과이 유련ᄒᆞ면 교ᄉᆞ한 ᄃᆡ 각갑고 과이 강강ᄒᆞ면, 강ᄌᆞ난 인지젹이요 교자난 인지악이라. 불강불약ᄒᆞ면, 우리 역시 바리고져 ᄎᆞᆷ아 바리지 못하고, 잇고져 ᄎᆞᆷ아 잇지 못ᄒᆞ여, 이연지심이 유출유동ᄒᆞ여, 술고져 ᄂᆡ 역부죡한 심을 한ᄒᆞ고, 아니코져 ᄎᆞᆷ아 안이치 못ᄒᆞ여, 빅망지중과 득의지졔라도 틈을 ᄉᆡ이ᄒᆞ여, 이히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일심일익 ᄒᆞ여, ᄂᆡ 셜ᄉᆞ 셔방이 이슬지라도 ᄂᆡ 말치 아니ᄒᆞ면 아지 못ᄒᆞ난 듯시 ᄒᆞ고, 일이 업셔도 일이 잇난 듯시 ᄒᆞ여, 틈을 주어 ᄂᆡ 힝ᄒᆞ고져 ᄒᆞ난 이을 ᄒᆞ게 ᄒᆞ며, 거취을 유심이 ᄒᆞ여 경경 불망지심이 자연이 잇게 ᄒᆞ고, 부졀업시 아난 체ᄒᆞ여 알고 ᄌᆞᆷᄌᆞᆷᄒᆞ면 치한ᄃᆡ 갓갑고, 금코져 금ᄒᆞ려 ᄒᆞ면 ᄌᆞ연 염오지심이 업지 안이 ᄒᆞ난이, ᄂᆡ 마음을 영합ᄒᆞ며 ᄂᆡ 뜻슬 화순케 ᄒᆞ면, 이 일은 봉친합의니, 지물을 싱각지 아니ᄒᆞ고 귀천을 도라보지 안이ᄒᆞ난 고로, 이아션이 정원화을 ᄯᆞ름이요. (<소2, 41~44>)

애부는 기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남자다. 사랑하기 때문에 애부는 기녀에게 모든 면에서 양보하고 배려해준다. 그런 애부의 마음을 기녀도 너무 잘 알기에 항상 그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145] 편찬자는 애부의 전형으로 정원화를 제시하였다. 정원화는 『태평광기』 <이와전>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와전>에

145) 정병설은 애부(愛夫)는 불쌍하여 동정심이 드는 남자이며 마음이 통하는 남자라고 했다. 정병설, 앞의 책, 17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그저 '공자와 이와'란 호칭만 사용될 뿐 '이아선과 정원화'라는 이름은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논창가지미>에서 "이아션이 정원화을 짜름이요"라고 한 것은 <이와전>이 아닌 다른 텍스트를 참고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편찬자가 말하는 '이아선과 정원화'란 이름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146] 당대 애정전기는 명대 이후 화본 소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풍몽룡의 『성세항언』 권3 <매유랑독점화괴> 및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에 <이와전>이 입화(入話)[147]로 차용되었다. <매유랑독점화괴>의 서두 부분이다.

1
젊음으로 색도에 기운 자랑을
파랑은 물결친다 색주가 창루
돈 있어도 추남이면 소용이 없고
얼굴이 잘생겨도 돈 없으면 안되고
돈과 얼굴을 다 갖춘 위에도
없어선 안 될 것이 인정이로세
시고 떫고 단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남자라야 이 길의 대장이라

이 노래는 <서강월>이라는 곡명으로서 색가에서의 요령을 설명한 것이니, 속담에 "창기는 사내다워야 하고, 기생 어멈은 돈 뭉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가에 노는 나그네 가운데는 반안(진대의 미남)과 같은 얼굴, 등통(한나라 때의 부자)과 같이 돈이 있으면, 자연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창루의 우두머리, 색가의 맹주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방친(幇襯)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요긴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幇)이란 신발의 신울이 있는 것과 같은 것, 친(襯)이란 의복의 속옷과 같은 것입니다. 대체 창기된 자 어느 한 사람과 친하게 돌봐줌을 입으면 그것으로 훌

146) 당대 전기 <이와전>은 그 줄거리의 대중성 때문에 후대에 전기, 희곡, 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변개되어 유통되었는데, 그 개작 과정에서 '이아선과 정원화'란 이름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이아선>, <곡강지>, <수유기> 등의 많은 개작이 있지만 본고는 『소수록』의 편찬자가 『금고기관』에 실린 <매유랑독점화괴>의 <이와전>의 입화(入話)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147) 이는 전대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의 틀을 떼어내 버리고 새로운 문예 작품의 한 부분으로 삼아서 그 새로운 이야기 속의 '전고'로 등장시키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명 말기에 다수의 소설과 희곡이 창작 혹은 간행될 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윤석 · 대곡삼번 · 정명기 편저,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37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륭한 것입니다. 혹은 정신 나간 짓을 한다 해도 마음으로 써서 그것을 두호해 주고, 다시 오히려 말씨를 부드럽게 해주고, 애써 여인의 마음에 들도록 해서 그 마음을 상치 않게 하여 정으로써 정을 측량하면 이쪽에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친이라고 합니다. 색가에서는 이 방친을 알아 체득한 자만이 누구보다도 소득이 있으며, 추남이지만 미남으로, 돈이 없으면서 부자인 격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저 정원화는 비전원의 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한 푼 없는 알거지로 얼굴도 그 전보다 형편없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아선이 눈 가운데서 서로 만나서 아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해서 드디어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목적이거나 얼굴이 고운 데 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원화가 정취를 이해할 줄 알고 방친하는 데 그 오묘함을 알았던 까닭으로 아선도 이를 버릴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아선이 병에 걸렸을 때 말의 창자의 국을 마시고 싶다 하면 원화는 곧 훌륭한 반마를 죽여 가지고 그 창자로써 국을 끓여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 한 가지만 하더라도 아선이 어찌 그 정리를 잊을 수 있으리요.

㉢후에 정원화는 장원에 합격, 이아선은 연국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입니다. 연화가를 노래하던 입으로 당당한 정론을 토해 내놓고 걸인수용소가 주루옥전으로 변하여, 침대는 비단 이부자리로 채워졌고 해서 그것이 색가에서는 도리어 미담가화로 되어버렸습니다. (<매유랑독점화괴>)[148]

1은 창가에서 남녀 간의 정사에 있어 잘 맺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로 <이와전>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밑줄 친 ㉠의 "가령, 예를 든다면 저 정원화는 비전원의 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 다만 정원화가 정취를 이해할 줄 알고 방친하는 데 그 오묘함을 알았던 까닭으로 아선도 이를 버릴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라는 내용을 보면, 기녀 이아선이 거지가 된 정원화를 차마 버리지도 잊지도 못하고 동정을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 밑줄 친 ㉡의 "그 증거로서는 아선이 병에 걸렸을 때 ~ 아선이 어찌 그 정리를 잊을 수 있으리요."라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정원화가 자신의 말을 죽여 아픈 이아선을 봉양한 일을 이야기하며 남자의 진심 어린 헌신과 사랑이 훗날 기녀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방친(幇襯)'[149]을 실천한 애부의 모습과의 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148) 조령암 역, 『금고기관』, 정음사, 1963, 48~4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원화가 이아선을 위해 준마를 죽인 일은 『소수록』의 제6편 <답장>에도 언급되는 이야기[150]로 <이와전>에는 없는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인 밑줄 친 ㉢의 "후에 정원화는 장원에 합격, 이아선은 연국부인이라는 ~ 색가에서는 도리어 미담가화로 되어 버렸습니다."라는 내용을 보면, 기녀 이아선이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하여 정원화를 과거에 급제시킨 후, 사랑도 얻고 기방에서 벗어나 신분도 상승하는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이와전>의 결말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기녀와 애부와의 완벽한 결합을 이루어 낸 서사이다.

애부에 대한 설명은 <이와전>의 서사와 모든 부분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크게 벗어나는 내용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애부에 대한 서술이 유독 길어, 나머지 네 남성 유형 서술의 2~3배 분량이 된다는 사실이다. 애부는 다섯 가지 남성 유형 가운데 기녀가 가장 바라는 남성상이기 때문에 특히 길게 서술된 것으로 보인다.[151] 실제로 기방에 오는 남자 손님 중 애부의 유형은 기녀가 마음을 준 남자일 것이다. 기녀가 마음을 주기까지 애부는 기녀를 위해 엄청난 배려와 사랑을 쏟은 남자로서 이들의 사랑은 육체적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통하는 사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정부에 대한 서술이다.

> 쇼위 정부라 ᄒᆞ난 거슨, 졔 유젼유지ᄒᆞ여 포치유아한 풍도가 졔인을 압두ᄒᆞ고, 넉넉한 수단이 일호 귀ᄎᆞ한 거시 업셔, 금의옥식이 마음의 합ᄒᆞ고, 고당ᄃᆡᄒᆞ의 일신이 평안ᄒᆞ여, 화류 중 지명ᄒᆞ난 ᄉᆞ람이요, 굴안의 영수라. 져마다 엇고져 보고져 항여 바릴가 겁ᄒᆞ고 항여 노할가 염예ᄒᆞ여, ᄂᆡ가 져 마음을 화순케 ᄒᆞ고, ᄂᆡ가 졔 ᄯᆞᆺ슬 영합ᄒᆞ게 ᄒᆞ은 거슬 정부라 ᄒᆞ난이, 이난 방금연이 셔문경을 ᄯᆞ르미니, 이 일른 정부요. (<소2, 44~45>)

정부는 한마디로 인기 있는 남자다. 돈도 많고 미남이며 주색잡기에 능해야 한

149)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150) "미류량 정원화을 일너스나 진약 미류량 갓치 본졍을 긔우리면 정원화 갓치 준마를 쥭일진 ᄃᆡᆫ 단심이 쳔신을 격동ᄒᆞ려던 ᄒᆞ물며 장낭부이랑쳐 ᄒᆞ난 긔물를 염예ᄒᆞ여 말숨이 이갓치 번거ᄒᆞ시오.", 제6편 <답장>.

151) 정병설은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은 사랑의 방향에 따라 셋으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다. 애부와 정부는 기생이 사랑하는 남자이고, 미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화간과 치애는 기생을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다. 하지만 애부의 경우를 보면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힘들다. 애부는 기녀와 남자 양쪽 모두가 그들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을 하는 사이로 보이기 때문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152] 정부의 전형으로 <금병매>의 서문경을 제시하였다.[153]

2

북송 휘종 정화 연간에 산동성 동평부 청하현이라는 마을에 꽤 내력 있는 자제가 있었다. 생김이 훤칠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성격에다, 집안에 재산도 있는 스물예닐곱 살 난 사내로서 성은 복성인 '서문'이며 이름의 외자 '경'을 썼다. 부친인 서문달은 사천과 광주 지방을 오가면서 약재를 팔다가 이곳 청하현에 큰 생약 가게를 하면서 대저택을 지어 살았는데, 부리는 노비며 노새, 말 등이 무리를 이루어 비록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청하현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집안이었다.
다만 서문달 부부가 일찍 세상을 떠 홀로 남은 아들은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여 공부는 하지 않고 온종일 밖에서 방탕한 나날을 보내다가 부모가 죽은 후에는 아예 기생집에서 자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다녔다. (<금병매>)[154]

3

서문경이 맹옥루를 맞이해 집에 들여온 이후에는 완전히 신혼 분위기에 취해서 아교를 붙여 놓은 듯, 옻칠을 해 놓은 듯 떨어질 줄을 몰랐다. …(중략)… 며칠을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가 금련네 집에는 미처 가볼 틈이 없었다. 금련은 매일 문가에 기대어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보고, …(중략)… 금련은 몸이 달아 죽을 지경이었으나 노파가 빈손으로 돌아오니, …(중략)… 기다리던 서문경이 오지 않자 입을 삐쭉거리며 배신자니 무정한 사람이니 하면서 쫑알거렸으나 곧 우울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섬섬옥수를 써서 붉은 신발을 다리에서 벗겨 들고는 서문경이 오나 안 오나 하는 상사점을 쳐보았다. (<금병매>)[155]

4

창가에 노는 나그네 가운데는 반안과 같은 얼굴, 등통과 같이 돈이 있으면, 자연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창루의 우두머리, 색가의 맹주가 되는 법입니다. (<매유랑독점화괴>)[156]

---

152) 정병설은 정부(情夫)는 돈 많고 풍채 좋아 인기 있는 남자라고 했다. 정병설, 앞의 책, 170면.
153) 『금병매』의 번역은 1950년대에 들어서 처음 이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소수록』의 편찬자는 한문본 『금병매』를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소설 독서 - 규장각본 『형세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47호, 한국고전문학회, 2015, 55면.
154) 소소생 지음, 강태현 옮김, 『금병매』, 솔, 2002, 13면.
155) 위의 책, 209~210면.
156) 조령암 역, 앞의 책, 4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는 <금병매>의 서두 부분으로 주인공 서문경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생김이 훤칠할 뿐만 아니라 시원한 성격에다, 집안에 재산도 있는 스물예닐곱 살 난 사내로서”라는 내용은 ‘정부’가 가진 외형적 조건과 일치를 보여준다. 또 부모가 죽은 후에는 아예 기생집에서 거취를 한다는 점에서 기방과 관련이 있는 시정잡배의 성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소설 속 반금련은 서문경과 정을 통하고 그의 첩이 되기 위해 서문경과 함께 그녀의 남편을 독살할 계략을 꾸민다. 그녀는 돈도 없고 못생긴 남편 무대를 독살한 후 아무 거리낌이 없이 남편의 장례 중에도 서문경과 정을 통한다. 그러나 3을 보면 서문경은 집안에 세 번째 첩 ‘맹옥루’를 들이고 나서, 그녀에게 푹 빠져서 한동안 금련과 연락을 끊고 지낸다. 반금련은 서문경과 연락이 잘 닿지를 않자 불안해하며 계속해서 노파와 어린 하녀를 보내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창가지미>의 정부의 서술 중 기녀가 정부에게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여 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소설 속 반금련이 서문경에게 원하는 사랑은 그 성격이 다분히 강한 성애의 경향을 띠고 있다. 정부의 묘사에 ‘화류계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부가 단순히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난 것을 넘어서 기녀의 성적 욕망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자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실제로 기방을 찾는 남자 손님 중 기녀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남자였을 것으로 보인다. 4는 앞서 언급한 <매유랑독점화괴>의 서두 부분으로 ‘기방의 맹주’는 뛰어난 용모와 돈을 가진 남자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의 서술 중 ‘굴 안의 영수’와 유사한 표현이다.

다음은 미망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다.

> 쇼위 미망이라 ᄒᆞ난 거슨, 피ᄎᆞ 스스로 은졍이 의의ᄒᆞ나, 졔가 말를 ᄂᆡ이고져 ᄂᆡ 마음을 ᄎᆡ 아지 못ᄒᆞ여 말를 ᄂᆡ엿다가 항여 혹 무식을 볼가, ᄂᆡ가 말를 ᄂᆡ이고져 ᄌᆞ미 용금ᄒᆞ난 협의가 역시 업지 아니ᄒᆞ며, 져의 말 잇기를 기ᄃᆡ리나, 이리 지지ᄒᆞ여 ᄉᆞ복ᄒᆞ난 마음이 오미에 밋쳐스나, 졔가 닐이 업스면 ᄂᆡ가 틈이 업고, ᄂᆡ가 틈 이스면 졔가 닐이 업지 아니ᄒᆞ여, ᄉᆡᆼ각난 마음이 갈ᄉᆞ록 심ᄒᆞ나, 호ᄉᆞ의 다미ᄒᆞ여, 천연셰월를 위지미망이라 ᄒᆞ난 거시니, 이난 중군셔가 최잉잉을 만나미요. (<소2, 45>)

미망은 서로 사랑하지만 쉽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이다. 남자는 고백을 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 거절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여자는 먼저 사귀자고 해서 예에 어긋날까 걱정을 한다.[157]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시간만 흐르고 맺어지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이가 바로 미망이다.[158] 미망의 전형으로 <서상기>의 장군서와 최앵앵의 만남을 제시하였다.

5

소생은 성이 장이고, 이름은 공자, 자는 군서라 하며, 본관은 서락입니다. (<서상기>)[159]

6

홍낭: 보세요, 우리 아가씨는 제게 또 딴청을 부렸잖아요.

<사해아(耍孩兒)>
어찌 보았으랴, 편지 보내며 심부름꾼을 되려 속이는 짓을.
작디 작은 심보 잘도 굴리는구나.
서상에서 달마중하며 밤늦도록 기다릴 테니,
당신은 월장하여 계집 "女"에 방패 "干"을 하라 썼다네.
원래 그 시구에는 은밀한 약속이 담겨 있고,
그 편지에는 엉큼한 계책이 숨어 있었구나.
그녀는 중대한 대목에서 나를 푸대접하였구나.
그녀는 운우지정을 일으키며 요란 속에 고요한 척하건만,
나는 편지를 전하러 바쁜 중에 억지 틈을 냈더라. (<서상기>)[160]

7

장군서: 앵앵 아가씨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 생각을 다시 아니하려 하나, 상사병은 날로 심해질 것이니, 장차 이를 어쩐다? 어제 편지를 받고 기뻐, 오늘 몸을 추슬러서 겨우 이곳에 왔건만, 또 이런 봉변을 당하다니, 머잖아 끝장이 나겠구나. 글방에 돌아가 속을 끓일 수밖에 없구나. 월계수 열매 하릴없이 떨어지고, 홰나무 꽃만 와병 중에 보겠구나. (<서상기>)[161]

---

157) 'ᄌᆞ미용금ᄒᆞ난 혐의'는 스스로를 중매한다는 의미로서 기녀에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소설 속 인물인 양가집 규수 앵앵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으로 보인다.
158) 정병설은 미망(未忘)은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잘 만나지 못하는 남자라고 했다. 정병설, 앞의 책, 170면.
159) 왕실보 지음, 양회석 옮김, 『서상기』, 진원, 1996, 12면.
160) 위의 책, 147면.
161) 위의 책, 16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장군서와 최앵앵의 이야기는 『태평광기』에 실린 <앵앵전>이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록』의 편찬자는 <앵앵전>이 아닌 <서상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5는 <서상기>의 서두 부분으로 <앵앵전>의 장생의 자를 '군서'라 분명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당대 애정 전기인 <앵앵전> 역시 <이와전>처럼 그 줄거리의 대중성으로 인해 후대 개작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원대 잡극 왕실보의 <서상기>로 변이되면서 장생이 장군서로 바뀌고 장원급제를 하게 되며 대단원의 결말 구조를 가지게 된다.[162] 조선후기 <서상기>의 인기를 짐작해 보건대,[163] 편찬자는 <앵앵전>보다는 <서상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앵앵전>과 비교하여 볼 때 <서상기>만의 매력은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향한 머뭇거림과 어긋남이 극에 극대화되어 이를 본 독자들이 더욱 애를 태우게 되는 데 있다.

6은 앵앵의 몸종 홍낭의 대사다. 장군서에게 구애의 편지를 받은 앵앵은 화를 내며 다시는 이와 같은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답장에 그런 이야기를 썼노라고 하면서 홍낭에게 전하라고 한다. 그러나 답장에는 군서에게 서상 아래 화원에서 만나자는 의미를 담은 시를 써두었다. 앵앵은 명문가의 규수로서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데, 홍낭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비웃는 장면이다. 7은 장군서의 대사로 앵앵에게 몇 차례 고백을 시도하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고 상사병만 깊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품의 내용들은 <논창가지미>의 미망의 서술과 일치한다.

다음은 화간에 대해 서술한 대목이다.

> 쇼위 화간이라 ᄒᆞ난 거슨, 져을 보와야 날 쓜이 바이 업고, 인품이 남을 지나난 거시 업스나, 졔 날 향ᄒᆞ난 졍셩이 우셜을 싱각지 아니ᄒᆞ며, 빅망지중이라도 주야을 불계ᄒᆞ고, 기름ᄌᆞ의 몸 ᄯᅡ르듯, 이목의 벗시 되고, 수죡을 ᄃᆡ신ᄒᆞ여, ᄂᆡ ᄒᆞ고져 ᄒᆞ난 거시면 수화을 불피ᄒᆞ여, ᄂᆡ 죠타ᄒᆞ면 졔 비록 그르나 졔 역 죠타ᄒᆞ

162) 최진아,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8, 336면.

163) <서상기>는 16세기 초엽 혹은 중엽부터 일부 문인계층에게 수용되다가 18세기 중엽부터는 그 애독자가 중인계층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초엽부터는 더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하게 되고 <서상기> 애호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고, 19세기 중엽부터는 한글 식자층에게까지 전파되었다. 이후 20세기 초엽에는 <서상기> 번역본이 활발하게 출판되면서 더욱 대중적인 독서물이 되었다. 윤지양, 「18세기~20세기 초 서상기 국내 수용 양상 고찰」,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16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니 그르다 ᄒᆞ면 졔 비록 그르나 죠타ᄒᆞ여, 일동일졍이 몸 밧게 몸이 되고 ᄯᆞᆺ밧게 ᄯᆞᆺ시 되면, 이 일은 합의니, 비록 졀셕심중이나 아니치 못ᄒᆞ난 거슬, 위지 화간부니, 이난 화괴량이 미류량을 쑈치미요. (<소2, 46~47>)

화간은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기녀를 향한 사랑만은 무조건적이어서 차마 기녀가 외면할 수 없는 사이이다.164) 화간의 전형으로 <매유랑독점화괴>의 미천한 기름장수 매유랑과 화괴낭자의 사랑을 제시하였다.

8

그런데 한밤중이 되더니, 눈을 떴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술에 취하여 가슴속이 쓰리고 아파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벌떡 일어나 이불 속에 앉으며 천장을 바라본 채로 자꾸만 토하려고 해도 토할 수 없고 끽끽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진중도 당황하여 일어나서 여자가 토하고 싶은 줄 알자 찻병은 아래에 놓고 손으로 등을 문질러 줍니다. 조금 있다가 왕미는 목구멍으로부터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앗 하는 사이에 꾸역꾸역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진중은 이부자리를 더럽히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웃옷의 소매를 벌리어 여자의 입에 대주었습니다만, 왕미는 멋도 모르고 실컷 토하고 난 다음 눈을 감은 채 양치질할 차가 없느냐고 합니다.
…(중략)…
진중이 돌아간 일은 그냥 두고, 왕미는 진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그 놀랍게 성실한 품을 보고는, 그가 돌아간 후에 대단히 가엽은 생각이 듭니다. 그날은 악취(惡醉) 때문에 손님을 사절하고 집안에서 정양하였습니다만 수없는 그의 애인들 생각은 머리에 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는데, 생각나느니 진서방 뿐, 하루 진종일 그 일만 생각했습니다. (<매유랑독점화괴>)165)

9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괴로워지고 해서 큰소리로 통곡하였습니다. 우연이란 있는 것이어서 꼭 이 때에 진중이 청파문 밖의 주십로의 묘에 참배하고 난 다음 재물은 배에 실려 돌려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그곳에 당도하였습니다. 우는 소리가 나서 가까이 가서 보니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흙투성이였으나 어찌 꿈에도 못 잊는 그 얼굴을 모를 리 있으리요. 진중은 깜짝 놀라며 "아니 왕미 아가씨 아니라구. 대체 웬일입니까?" 왕미는 슬프던 끝에 반갑고 고마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울기를 그치고 자세히 보니 이것은 누구냐. 신 것도 단 것도 다 아는 진서방님이 아닌가. 장소가 장소인지라 왕미는 친한 친척을 만난 것처럼 전후 사

164) 정병설은 화간(和奸)은 여성을 지성으로 섬기는 남자라고 했다. 정병설, 앞의 책, 170면.
165) 조령암 역, 앞의 책, 78~80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실을 전부 털어놓습니다. 진중도 깜짝 놀라 함께 울어줍니다. 소매 속에서 가지고 있던 흰 비단으로 땀을 씻어주고 길이 다섯 자 이상 되는 것을 꺼내어 둘로 찢어 왕미에게 주어 전족을 감싸주는 일방 손수 눈물을 씻어주며 머리를 매만져 주면서 자꾸만 위로의 말을 고맙게 해줍니다. 드디어 왕미가 울음을 그친 것을 보고는 급히 한 채의 난교를 불러다가 왕미를 태우게 하고 자기는 걸어서 곧바로 왕구마의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매유랑독점화괴>)[166]

매유랑은 전란으로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고 기름장수 노인의 양자가 되어 기름을 팔며 돌아다니는 미천한 신분의 청년이다. 기루의 화괴낭자를 한 번 보고 반한 매유랑은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 3년을 열심히 기름을 팔며 돈을 모은다. 드디어 계획했던 돈을 다 모은 매유랑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8은 그들이 그 하룻밤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다른 술자리에서 술이 많이 취해서 돌아온 화괴낭자는 손님으로 온 진중을 무시하고 잠이 들어 버린다. 얼마 후 화괴낭자가 자다가 깨어나 구역질을 하자 옆을 지키고 있던 매유랑이 그녀의 비단 이불이 버릴까봐 자신의 도포자락을 그녀의 입에 대준다.

9는 화괴낭자가 왕손공자의 횡포로 곤경에 처하게 되자, 어디선가 매유랑이 나타나 그녀를 도와주는 대목이다. 매유랑은 그녀의 딱한 처지를 공감해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내의를 찢어 그녀의 발을 감싸주기까지 한다. 결국 화괴낭자는 자신을 향한 기름장수 매유랑의 진실함에 감동을 하게 되고 미천한 신분인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창가지미>의 화간의 서술과 일치한다.

다음은 치애에 관한 서술이다.

> 쇼위 치이라 ᄒᆞ난 거슨, 졔 여간 젼낭으로, 그 어두은 쇼견이 호기을 ᄌᆞ부ᄒᆞ며, 습습한 체 ᄒᆞ난 모양이 비위 역ᄒᆞ고 마음의 불합ᄒᆞ나, 그 역 인싱이라, 죠흔 일 숨아 들임으로 누구을 마다ᄒᆞ리. 심복을 보이난 듯, 마음을 억냥ᄒᆞ여, 업난 졍이 잇난 드시, 쵸월 눈셥은 그 마음을 낙시ᄒᆞ고, 잉순연어난 그 이목을 흐릴진ᄃᆡ, 수렁의 빠진 소경놈 갓치 동셔을 부지ᄒᆞ고, 졔 가중 이부 체 ᄒᆞ여, 빅수히로을 졔 할 쓰시 경지파슨을 익기지 아니ᄒᆞ난 고로, 의약 무숙의 일과 미화 골싱원의 긔담이 가ᄉᆞ 중의 잇건이와. (<소2, 47~48>)

166) 조령암 역, 앞의 책, 8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치애는 기녀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바보 같은 남자다.[167] 실제 기방에 오는 남자 손님 중 기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유형으로 기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매력적인 남자는 아니라 할 수 있다. 치애의 전형으로 지금은 소리가 전하지 않는 판소리 열두 마당의 일부인 <무숙이타령>의 왈자 김무숙과 의양의 사랑과 <강릉매화타령>의 골생원과 매화의 사랑을 제시하였다.

10

청루고각(靑樓高閣) 높은 집에 호탕한 왈자(曰者)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남북촌 모두 통틀어서 왈자 우두머리 김무숙이 지체를 논한다면 중촌에 …(중략)… 노름판에 소담(笑談) 많고, 잡기 속도 알만하되 천(賤)하다 하여 본체 아니하고, 인기가 이러하나 지식은 부족하고 마음은 허랑(虛浪)하였다. 형세가 이러하고 재주가 매우 뛰어나니, 삼태육경(三台六卿) 재상님네들이 사람을 만들려고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일러가며 간간히 경계하되 마다하고 엇가고 버티며, 어릴 때부터 절친하게 지내던 어진 친구들이 서로 좋은 일을 권하면 싫다고 하고, 옳은 말에 성내기와 그른 말은 곧이듣고, 중매 서주는 할머니를 보내어 은군자(隱君子) 오입한 년 청하기와 아래 우대 색주가를 밤낮없이 일을 삼아, 청루고각은 사랑이요 기생의 집은 본댁(本宅)이나 다름없었다. (<게우사>)[168]

11

그렁저렁 빌린 돈이 사오천 냥 들여놓고, 자피속신(自避贖身) 완의(完議)하고 부부가 되어 앉힌 후에 살림살이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화개동 경주인집 오천 냥에 값을 정하여 내수사 목수 토역장이 청우정 사랑 앞에 와룡으로 담을 치고, 석수장이를 불러들여 숙석(熟石)으로 면을 치고, 전후좌우 좋은 화계 …(후략). (<게우사>)[169]

12

달랑 달랑 달랑쇠야, 너 듣거라. 우리 매화 여부야 저 달기(妲己) 매희 서시(西施) 양귀비(楊貴妃)가 모두 일색(一色)이지만, 매화 색(色)을 당할소냐. 크도 작도 아니 하고, 맛도 있고 좋더니라. 어여쁘기가 초생 반달 같고, 해당화 한 가지가 안개 속에 묻혔는데, 은은한 태도 사람의 정신을 다 녹이더니 야부용성 장판

167) 정병설은 치애(癡愛)는 기생에게 미혹된 바보 같은 남자라고 했다. 정병설, 앞의 책, 170면.
168) 김기형 역주, 『적벽가 · 강릉매화타령 · 배비장전 · 무숙이타령 · 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288~289면.
169) 위의 책, 311~31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에 긴 담대 붙여 물고 □□ 거동 이제 잠깐 보고 싶구나, 보고 싶구나. (<매화가라>)[170]

⑨는 <무숙이타령>의 사설 정착본인 <게우사>의 내용이다. <게우사>의 서두 부분에서 주인공 무숙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장안의 왈자 우두머리 무숙이는 중촌의 갑부로 인기는 있으나 지식이 부족하고 잘난 체를 하는 인물이다. ⑩도 역시 <게우사>의 내용으로, 무숙이가 평양 기녀 의양이에게 빠져 돈을 써서 속신시킨 후 첩으로 삼아 호화로운 집까지 마련해 준다. 결국 무숙이는 그 우활함으로 인해 이후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된다. ⑪은 <강릉매화타령>의 사설 정착본인 <매화가라>의 내용으로, 서울의 골생원이 강릉의 매화와 이별을 하는 내용이다. 골생원은 강릉 부사의 책방으로 왔다가 서울 본가의 연락을 받고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중에도 정신은 온통 매화에게 빠져 있다. 또 인용문엔 없는 내용으로 골생원은 매화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의 무덤에서 곡을 하기도 하고, 제사도 지내주고 매화를 그려 끌어안고 놀기도 하며, 매화에게 속아 벌거벗고 경포대에서 춤을 추기까지 한다. 이렇게 생사의 분간도 없이 기녀에게 정신없이 빠져드는 사랑이 <논창가지미>에서 말하는 치애이다.

치애는 <논창가지미>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서술한 것 중에 인용된 작품과 서술이 가장 많이 일치하는 유형이다. 특히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은 전고로 활용된 예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논창가지미>의 치애의 묘사를 위해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논창가지미>의 밑줄 친 인용문을 보면, “의약 무숙의 일과 미화 골싱원의 긔담이 가ᄉᆞ 중의 잇건이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소수록』의 편찬자는 판소리를 직접 듣고 그 사설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수록』의 편찬자는 판소리에도 관심을 가진 계층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전승되는 판소리 다섯 마당에 속하지 않고 전승이 중단된 7 작품 중의 2 작품인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을 인용한 것을 통해 『소수록』의 창작 시기를 가늠해 볼 수도 있다.[171]

---

170) 김기형 역주, 앞의 책, 113면.

171)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양반이 전 인구의 6할 이상이나 되는 판국이었지만, …(중략)… 열두 마당으로 늘어난 판소리가 여섯 마당 또는 다섯 마당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의 일이다. 판소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제까지 <논창가지미>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소설 작품(판소리 포함)과의 내용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의 서술은 전대의 소설 <이와전>, <금병매>, <서상기>, <매유랑독점화괴>,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의 내용과 정확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라는 단어는 『소수록』의 편찬자가 앞서 말한 여섯 작품의 소설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논창가지미>에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낸 것을 의미한다.

다시 <논창가지미>를 개관한 내용으로 돌아가 본다. '명기 2'로 추정되는 인물의 목소리로 ⑻~⑿단락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의 설명이 일단락되자 '명기 3'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새로이 등장한다. 그녀는 ⒀단락에서 "ᄃᆡᄀᆡ 엇지 ᄒᆞ면 ᄋᆡ부라 졍부라 미망이라 말이 다 우셔은 말이 왼다. …(중략)… ᄀᆡ불여 유젼낭 이연이와"라고 말한다. 이 말은 앞서 '명기 2'가 이야기한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은 실은 기방의 현실에선 다 소용없는 것이고 오로지 돈이 많은 남자라면 손님으로는 최고라는 뜻이다. 이러한 대사는 여태껏 독자가 빠져들었던 기방의 달콤했던 다섯 가지 유형의 로맨스를 부정하는 것이다. 기녀들은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와 같은 남자와의 사랑을 꿈꾸지만, 소설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랑은 현실 삶에서는 좀처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방 삶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던 바였다. 그래서 '명기 3'은 남성들을 향해 믿을 수 없는 '사랑'보다는 '돈'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⒁단락에서 좌중의 남성들을 향해 기방의 유흥을 함께 하자고 본격적으로 부추기기 시작한다. 이에 청중들은 명기들의 논박을 칭찬하고 그녀들의 유혹에 동조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오른다. 명기 3인의 목소리는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중세사회의 억압받는 기녀의 모습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19세기 후반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조선사회의 일면이 <논창가지미>의 서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단락인 ⒂에서는 장안호걸이 다시 등장하여 명기 3인의 논박에 호응하고 동조한 청중들을 향해 기방 놀음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논쟁은 마무리가 된다.

리에는 '~타령'이라는 것과 '~가'라는 것이 있는데, '타령'이 상스럽다면 '가'는 격조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타령'이기만 한 <매화타령>, <신선타령>, <왈자타령> 등은 판소리 상승의 추세와 맞지 않아 도태된 것 같다.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 권4, 지식산업사, 2005, 5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제까지 제2편 <논창가지미>에 나타난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의 서술에 집중하여 이 작품의 소설 수용 양상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창가지미>의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의 서술 내용과 인용된 각각의 소설 <이와전>, <금병매>, <서상기>, <매유랑독점화괴>,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의 내용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이러한 서사는 편찬자가 실제 기방에서 있을 법한 로맨스를 자신의 소설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에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낸 것이고 여기에 활용된 인물 전고는 단순한 비유 차원의 인물 전고 활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서 양상으로 『소수록』 편찬자만의 독특한 전고 활용 방식인 것이다.

3) 『금고기관』의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

<논창가지미>의 전고 활용 사례에서 보듯이 『소수록』에는 보통의 경우 거의 활용되지 않는 전고가 활용된 것이 있고, 그것도 한 작품에서 일회적으로 활용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에서 거듭 활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금고기관』에 수록된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을 들 수 있다.

『소수록』의 여러 작품에서 전고로 활용된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은 『금고기관(今古奇觀)』에 수록된 작품들이다.[172] 『금고기관』은 『삼언(三言)』과 『이박(二拍)』의 선집본이다. 『삼언』은 『유세명언(喩世名言)』(1621년),[173] 『

172) 『금고기관』은 『삼언』과 『이박』의 선집본이기 때문에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은 각각 『삼언』의 『성세항언』 제3권과 『경세통언』 제32권에도 수록이 되었다. 하지만 『삼언』의 국내 유입과 판본 현황의 기록을 보면 『소수록』의 편찬자가 『삼언』에 수록된 두 작품을 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세항언』(1627년)의 경우 1762년 이전에 이미 유입된 것으로 보았고, 『경세통언』(1624년)의 경우 적어도 1744년 이전에는 유입된 것으로 보았다. 또 『삼언』이 처음 출간되고 얼마 되지 않아 중국에서 판금된 것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간행되고 바로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판금(販禁)된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에서도 그 판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판본 현황은 『경세통언』의 판본은 존재하지 않으며 『성세항언』만 규장각과 부산대, 선문대 박재연이 판본을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성세항언』과 『경세통언』의 국내 유입 시기가 다르고 남아있는 판본마저 흔치 않으며 중국에서 『삼언』이 판금되어 실전(失傳)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소수록』의 편찬자가 『삼언』을 읽었을 가능성보다는 『금고기관』을 읽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정영호 · 민관동,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 『三言』 · 『二拍』 · 『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4, 중국인문학회, 2013.

173) 『고금소설(古今小說)』이라고도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경세통언(警世通言)』(1624년), 『성세항언(醒世恒言)』(1627년)을 합쳐 부르는 명칭으로서 각 40편씩 12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편찬자는 풍몽룡(馮夢龍)으로 송(宋) · 원(元) · 명(明) 3대의 화본(話本)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박』은 『박안경기(拍案警奇)』(1627년)와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1632년)를 통칭하여 부르는 명칭으로서 각 40편씩 총 80편을 수록하고 있다. 편찬자는 능몽초(凌濛初)이다.

『금고기관』은 포옹노인(抱甕老人)이 『삼언』과 『이박』의 200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40편을 뽑아 간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세명언』에서 8편, 『경세통언』에서 10편, 『성세항언』에서 11편, 『박안경기』에서 8편, 『이각박안경기』에서 3편을 선별한 것이다. 간행 연대는 1632~1644년 사이로 알려져 있다.

『금고기관』은 『삼언』과 『이박』이 청조의 문화탄압 정책에 의해 음서(淫書)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자주 금서(禁書)로 지정되어 중국 본토에서 실전(失傳)되는 동안에도 읽을거리로서 국내 독자에게 널리 애독되었다. 이 책의 국내 유입 시기도 윤덕희의 『소설경람자(小說經覽者)』(1762년)에 서명이 보이는바 적어도 1762년 이전에는 유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유입 이후 국내 출판이 이루어진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부터 약 20여 편이 번역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판본 역시 보이지 않는다.[174]

현재 국내에 소장되어있는 『금고기관』의 국내 판본 목록을 보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판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해군사관학교에 소장되어있는 『今古奇觀』(1884년)으로 40권 40책 중 5책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한글 번역본은 필사본으로 낙선재본(樂善齋本) 『금고긔관』에 2편(권3, 권22)이, 고대본(高大本) 『금고긔관』에 4편(권14, 권18, 권20, 권32)이, 활자본으로 신구서림본(新舊書林本) 『금고긔관』(1918년)에 9편(권1, 권4, 권6, 권11, 권12, 권17, 권18, 권19, 권20)이 있다.[175] 즉 1918년까지 『금고기관』에 수록된 총 40편의 작품 중 국문으로 번역된 것은 일부일 뿐이고 이마저도 독자의 기호에 따라 혹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가감, 첨삭, 개역이 이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176]

『금고기관』이 우리 문학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던 시기는 아마도 근대

174) 정영호 · 민관동, 앞의 논문, 242면.
175) 박재연 · 김영 · 이수진 교주, 『금고긔관』,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
176) 정영호 · 민관동, 앞의 논문, 24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초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금고기관』에 수록된 삽화와 모티프들은 일제의 출판물 검열과 같은 권력 행사와 매필가들의 판권비를 목적으로 한 번역 · 번안 등의 이유로 인해 신문 연재소설의 저본으로 활용되었거나 '신작 구소설'과 신소설 양자에 창작 원천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177] 이와 관련된 연구는 고소설[178]과 신소설[179] 양자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상당량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료의 미진함으로 인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 앞으로도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894년에 필사된 『소수록』에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이 다수 작품에 수용된 양상이 포착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왜냐하면 『소수록』의 필사 시기까지의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을 작품 속에 전고로 활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80] 때문에 『소수록』은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을 수용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로서 문학사적 가치를 가짐은 물론이고, 이처럼 흔히 사용하지 않은 전고를 다수 작품에서 활용했다는 사실은 『소수록』이 한 사람에 의해

177) 이경림,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227~228면.

178) 강전섭, 「『추풍감별곡』의 원전 모색」,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1995, 365면; 김기동, 「<채봉감별곡>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국대학교 논문집』 1, 동국대학교, 1964; 정규복, 「<추풍감별곡>의 신연구 - 문헌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179) 김동욱, 「배진공의환원배(裵晉公義還原配)의 국역 양상 비교」, 『반교어문연구』, 30집, 반교어문학회, 2011; 김연호, 「『금고기관』의 번역 양상 - 고대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7집, 민족어문학회, 1987; 박상석, 「번안소설 『백년한』연구」, 『연민학지』 12호, 연민학회, 2009; 서대석, 「신소설 『명월정』의 번안 양상」, 『국어국문학』, 72집, 국어국문학회, 1976; 손병국, 「한국 고소설에 미친 명대 화본소설의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손병국, 「개화기 신문연재소설에서의 명대백화단편소설 수용 양상」, 『동악어문학집』 35, 동악어문학회, 1999; 손병국, 「벽부용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손병국, 「『청텬빅일』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손병국, 「『원앙도』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이혜순, 「신소설 『행락도』연구」, 『국어국문학』, 80, 국어국문학회, 1980; 증천부, 「한국소설의 명대 화본소설 수용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80) 찾아본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시조 46,000여 수가 실린 『고시조 대전』, 고전문학(소설, 잡가, 무가, 시조, 판소리 등) 자료 60여 종의 원문 이미지가 제공되는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인 누리미디어(KRPIA), 한국고전DB, 총 2,800여 편의 가사문학 작품이 수록되고 약 33,000여 면의 원문 이미지가 수록된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1145년부터 1930년대까지 모든 고전소설의 역사적 자료를 집대성하여 총 3,090편의 작품이 수록된 『한국고전소설사 큰 사전』 본권 69권과 부록 4권 그리고 우리나라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을 총망라한 한국학 기초사전이며 21,844명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을 수록한 『한국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전 25권 등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편찬된 산물이라는 확실한 근거인 것이다.

한편 『소수록』에서의 이들 작품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비유 차원을 넘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서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된 정황이 포착된다. 『소수록』은 남녀의 애정을 주제로 한 작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와 이 작품의 입화로 활용된 <이와전>은 기녀가 바라는 최상의 애정 결연 사례이자 최고의 남성상으로 『소수록』의 다수의 작품에서 전고로 활용되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구체적인 작품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어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논의된 <논창가지미>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에 수용된 전고 사례는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매유랑독점화괴>의 전고 활용 양상

<매유랑독점화괴(賣油郞獨占花魁)>는 『삼언』의 『성세항언』 제3권 및 『금고기관』 제7권에 수록된 중국백화단편소설이다. 제목은 '기름장수가 최고의 기녀를 독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작품의 경개는 다음과 같다.

전란에 부모와 헤어진 신요금은 남송의 수도인 임안의 청루로 팔려가 '화괴낭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당시 임안에는 '매유랑' 곧 기름을 파는 남자 진중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화괴낭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매유랑은 화괴낭자와의 하룻밤을 위해 몇 년을 열심히 기름을 팔며 돈을 모았고 어렵사리 그녀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화괴낭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술에 취해서 돌아와 매유랑 앞에서 토를 하며 몹시 괴로워한다. 이때 매유랑은 그 하룻밤을 위해 쓴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녀를 극진히 돌보아 주고 집으로 돌아온다. 매유랑의 정성에 감동한 화괴낭자는 미천한 신분인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화괴낭자는 왕손공자의 횡포로 곤경에 처하게 되고, 때마침 매유랑이 나타나 그녀를 위로한 후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침내 자신을 향한 매유랑의 진실함에 감동하게 된 화괴낭자는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매유랑독점화괴>는 『소수록』 소재 총 6 작품에 전고로 인용되었는데, 그것은 제1, 2, 5, 6, 8, 11편이다.[181] 이 중 대부분은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을 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고 있다. 그러나 제2편에서 화간의 예시로 활용된 양상과 제5편과 제6편에서 인물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들 작품을 인용한 양상을 보면, 편찬자는 이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를 『소수록』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1
임안부 화류중의/ 미류랑을 ᄯᅡ르난듯 (<소1, 5>)
임안부 화괴랑은/ 왕숀공ᄌᆞ 불원ᄒᆞ고/ 미유랑 ᄶᅩᆫᄎᆞ스니 (<소2, 38>)
이만 화류의 미류랑을 죵양난 듯 (<소8, 78>)
ᄂᆡ 미유량의 경지ᄒᆞ미 업시셔 엇지 왕미아의 자쇽을 ᄯᅳᆺᄒᆞ여스며 (<소8, 78>)
님안부 화괴랑도/ 미유랑을 ᄶᅩᆫᄎᆞ나니 (<소11, 92>)

2
쇼위 화간이라 ᄒᆞ난 거슨 …(중략)… 이난 화괴량이 미류량을 ᄶᅩᆫ치미요(<소2, 46>)

3
ᄉᆞᆷ연을 경영ᄒᆞ여 화괴랑 득졈키난 정원화의 진심이라. (<소5, 58>)
미류랑 정원화을 일너스나 진약 미류랑 갓치 본졍을 긔우리면 단심이 쳔신을 격동ᄒᆞ려던, (<소6, 63>)

1은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이다. 제1편의 화자 명선이 자신과 김진사의 만남을 화괴낭자와 매유랑의 만남에 빗대고 있고, 제2편의 화자 옥소는 역대 기녀의 지조를 이야기하면서 청루의 일등 미인인 화괴낭자가 미천한 매유랑을 따랐던 것을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제8편의 화자인 객은 기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화괴낭자와 매유랑의 만남에 빗대고 있고, 또 자신은 매유랑처럼 돈을 모아 화괴낭자에게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닌데 기녀와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운명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제11편의 청룡가인 역시 자신과 청주선달의 만남을 화괴낭자와 매유랑의 만남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2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 활용되었고 앞에서 화간의 예시로 이미 언급했던 내용이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181) 『소수록』 소재 14 작품 중 시가 형식의 작품인 제9, 10, 12, 14편을 제외한 나머지 10 작품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표3]을 참고하기 바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은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으로, 제5편과 6편의 화자로 등장하는 객과 기녀의 인물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와전>을 수용한 굉장히 독특한 전고 활용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제5편과 제6편은 객과 기녀가 주고받은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제5편의 객이 제6편의 기녀에게 자신과 잠자리를 해달라며 구애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를 받은 제6편의 기녀는 거절의 의사를 밝힌 답장을 보낸다. 기녀가 객의 구애를 거절한 진짜 이유는 객의 구애에는 기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객은 편지에다 기녀를 향한 구애의 수사를 잔뜩 나열해 놓았지만, 기녀는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객이 동원한 가식적인 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냉정하게 반응한다.

인용문은 두 사람의 화자가 <매유랑독점화괴>와 <이와전>을 전고로 인용하여 자신들의 심정을 표현한 대목이다. 제5편의 객은 "숨연을 경영ᄒᆞ여 화괴랑 득졈키난 정원화의 진심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구애에는 매유랑 정원화와 같은 순수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객의 전고 인용은 잘못되었다. 정작 3년을 기름을 팔아 화괴낭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된 인물은 정원화가 아니라 매유랑이기 때문이다. 제6편의 기녀는 "미류랑 졍원화을 일너스나 진약 미류랑 갓치 본졍을 긔우리면 단심이 쳔신을 격동ᄒᆞ려던"이라고 하면서 객의 거짓된 구애와 잘못 인용한 전고까지 정확히 꼬집어 바로잡고 있다.

(2) <매유랑독점화괴>의 입화 <이와전>의 전고 활용 양상

<이와전(李娃傳)>은 백행간이 지은 당대 애정소설로 『태평광기(太平廣記)』 484권, 「잡전기류(雜傳記類)」 제1편에 수록되어 있다. 정원화를 향한 기생 이와의 사랑과 절개가 중심소재이고 <견국부인전>으로도 알려진 작품이다. <이와전>의 경개는 다음과 같다.

생은 당나라 형양공(滎陽公)의 아들이다. 그는 과거를 보러 장안에 갔다가 기녀 이와에게 빠져 가진 돈을 모두 탕진한다. 돈이 떨어진 생은 기생어미와 이와의 계략으로 기생집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생은 이와의 배신에 실망하여 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다행히 장의사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회복된 후 그들 밑에서 만가(挽歌)를 부르며 지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형양공은 생을 데려와, 부자간 연을 끊고 심하게 매질한 후 길가에 내다 버린다. 그는 또다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지만 유리걸식하는 처지가 된다. 어느 날 거지로 구걸하며 떠돌던 생은 이와에게 발견된다. 생을 본 이와는 자신의 행동에 가책을 느끼고 그를 잘 보필하여 과거에 급제하게 만든다. 그간의 경위를 모두 듣게 된 형양공은 이와가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다. 후에 이와는 견국부인이라는 봉호까지 얻는다.

그런데 당(唐) 전기 <이와전>에는 '정원화'와 '이아선'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소수록』 제6편에 언급된 정원화가 아픈 이아선을 위해 자신의 준마를 죽인 일화 역시 나오지 않는다. 추정컨대 『소수록』의 편찬자는 『금고기관』에 수록된 <매유랑독점화괴>의 입화 부분에 언급된 정원화와 이아선의 이야기를 읽고 『소수록』에서 전고로 활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전>은 『소수록』 소재 총 7 작품에 전고로 인용되었는데, 그것은 제1, 2, 5, 6, 7, 8, 11편이다.[182]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제2편에서 애부의 예시로 활용된 양상을 제외하더라도 이 작품의 전고 활용 양상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은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전고의 활용은 단순한 비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수록』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봉친 합의난/ 정원화와 방불토다 (<소1, 4~5>)
…(중략)…
연국부인 못바라나/ 위션숭봉 질겁도다 - 명선(<소1, 31>)
지정슈취와 봉친합의을 아난 지 뉘라 ᄒᆞ리요 - 서술자 (<소1, 33>)
지정식취/ 이러커든/ 봉친합에 이를숀가 (<소11, 92>)
…(중략)…
연국부인 이아션을/ ᄂᆡ아니 원할엿만 (<소11, 102>)

5
마음을 영합ᄒᆞ며 ᄂᆡ 뜻슬 화순케 ᄒᆞ면, 이 일은 봉친합의니 지물을 싱각지 아니

182) 『소수록』 소재 14 작품 중 시가 형식의 작품인 제9, 10, 12, 14편을 제외한 나머지 10 작품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표3]을 참고하기 바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ᄒᆞ고 귀천을 도라보지 안이ᄒᆞ난 고로 이아션이 정원화을 ᄯᅡ름이요 (<소2, 44>)
다졍튼임 범범ᄒᆞ고/ 간졀튼이 닝낙ᄒᆞ니
미망졍인 무엇신고/ 이부역시 가숍롭다 (<소7, 72>)

6
ᄉᆞᆷ연을 경영ᄒᆞ여 화괴랑 득졈키난 정원화의 진심이라 (<소5, 58>)
ᄆᆡ류랑 정원화을 일너스나 진약 ᄆᆡ류랑 갓치 본졍을 긔우리면 정원화 갓치 쥰마를 쥭일진딘 (<소6, 63>)

4의 인용문들은 제1편의 화자인 명선이 정인 김진사를 소개하면서 정원화에 비교하는 대목이고 같은 제1편의 '서술자의 논평' 부분에서 서술자가 남성 객들을 향해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를 모른다며 답답해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제11편의 화자인 청룡가인 또한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어지는 인용문 5를 보면 애부의 예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친합의'는 또다시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작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금고기관』에 수록된 <매유랑독점화괴>의 입화 부분에 차용된 <이와전>에 있기 때문에, 장문임에도 불구하고 인용문의 중요도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제시하도록 하겠다.

창가에 노는 나그네 가운데는 반안(진대의 미남)과 같은 얼굴, 등통(한나라 때의 부자)과 같이 돈이 있으면, 자연히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을 뿐 아니라, 창루의 우두머리, 색가의 맹주가 되는 법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방친(幇襯)이라고 하는 두 글자의 요긴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幇)이란 신발의 신울이 있는 것과 같은 것, 친(襯)이란 의복의 속옷과 같은 것입니다. 대체 창기된 자 어느 한 사람과 친하게 돌봐줌을 입으면 그것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혹은 정신 나간 짓을 한다 해도 마음으로 써서 그것을 두호해 주고, 다시 오히려 말씨를 부드럽게 해 주고, 애써 여인의 마음에 들도록 해서 그 마음을 상치 않게 하여 정으로써 정을 측량하면 이쪽에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방친이라고 합니다. 색가에서는 이 방친을 알아 체득한 자만이 누구보다도 소득이 있으며, 추남이지만 미남으로, 돈이 없으면서 부자인 격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저 정원화는 비전원의 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전혀 한 푼 없는 알거지로 얼굴도 그 전보다 형편없이 수척해 있었습니다. 그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이아선이 눈 가운데서 서로 만나서 아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해서 드디어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목적이거나 얼굴이 고운 데 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원화가 정취를 이해할 줄 알고 방친하는데** 그 오묘함을 알았던 까닭으로 아선도 이를 버릴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아선이 병에 걸렸을 때 말의 창자의 국을 마시고 싶다하면 원화는 곧 훌륭한 반마를 죽여가지고 그 창자로써 국을 끓여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일 한 가기만 하더라도 아선이 어찌 그 정리를 잊을 수 있으리요. 후에 정원화는 장원에 합격, 이아선은 연국부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입니다. 연화가를 노래하던 입으로 당당한 정론을 토해 내놓고 걸인수용소가 주루옥전으로 변하여, 침대는 비단 이부자리로 채워졌고 해서 그것이 색가에서는 도리어 미담가화로 되어버렸습니다. (<매유랑독점화괴>)[183]

밑줄 친 ㉠은 서술자가 창가(娼家)에서 맹주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방친(幇襯)'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친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 보면, 기녀가 믿고 기댈 수 있을 만큼 기녀의 모든 면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줄 줄 아는 남자가 창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남성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밑줄 친 ㉡에서 '방친'을 실행하여 성공한 예로 정원화를 들고 있다. 기녀 이아선이 거지가 된 정원화를 다시 만났을 때 그를 버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여 과거에 급제시켰던 이유는 바로, 정원화가 기녀의 정취를 잘 이해하고 방친을 실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기녀의 정취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잘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지정식취(知情識趣)'[184]를 해석해 놓은 것이다.

'방친합의(幇襯合意)'는 필사본 『소수록』에는 '봉친합의'라 표기되어 있다. 그래서 기존에는 "봉친합의(逢親合意)난 정원화와 방불토다"를 "집안까지 딱 맞기는 정원화와 방불토다"라고 해석하였고,[185] "지정식취 이러커든 봉친합에 이를숀가"를 "뜻과 정이 딱 맞으니 이와의 봉친합의 나라고 못할쏜가"라고 해석하였다.[186] 이는 "부모님을 만나 정식으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의 입화에 "정원화가 정취를 이해할 줄 알고

183) 조령암 역, 앞의 책, 48~49면.
184) 고려대 중한사전 참조.
185) 정병설, 앞의 책, 32면.
186) 위의 책, 24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방친하는 데”라고 하면서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란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전의 ‘봉친’은 원래 ‘붕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장의 서지적 특징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일본인 『소수록』은 전승 과정에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전사자의 참여로 인해 원문에 오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자료라고 이미 지적했었다. 하지만 ‘지정식취’와 ‘방친합의’가 나란히 등장하는 출전이 있음을 확인한 이상 ‘봉친합의’는 ‘방친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는 『소수록』에서 단순히 애부를 수식하는 전고로만 쓰인 것은 아니다. 『소수록』 14편이 모두 기녀를 옹호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자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는 기녀를 대신하여 남성 객들을 향해 외친 편찬자의 핵심 구호와도 같은 표현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기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남성상은 기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으로 배려해주는 남성, 즉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를 아는 애부이고, 이런 애부를 만나서 평생해로 하는 것이 그녀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소수록』의 편찬자는 전고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것이다.

5는 <이와전>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 활용된 경우로, 제2편의 애부의 예시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6은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으로, 바로 앞의 <매유랑독점화괴>의 전고 활용 양상에서 같은 인용문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생략하도록 한다.

(3) <두십낭노침백보상>의 전고 활용 양상

<두십낭노침백보상>은 『삼언』의 『경세통언』 제32권과 『금고기관』 제5권에 수록된 중국 백화단편소설이다. 제목은 ‘두십낭이 분노하여 온갖 보물 상자를 들고 강물에 뛰어들다’라는 뜻으로 작품의 경개는 다음과 같다.

이갑은 국자감의 학생으로 북경에서 공부하던 중 우연히 기루의 두십낭을 보고 반하여 기방에서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가진 돈을 다 써버리게 된다. 이에 기생 어미는 이갑을 쫓아내려 하지만, 두십낭은 이갑을 사랑하여 그를 따르기로 결심한다. 두십낭은 자신이 모아 놓은 돈으로 기생 어미에게 자신의 몸값을 치르고 기루를 빠져나온다. 두십낭은 이갑과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그와 함께 그의 고향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 돌아간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손부라는 강남대상을 만나게 되고 이갑은 그의 꼬임에 빠져 돈 천 냥에 두십낭을 배신한다. 이갑의 변심을 알게 된 두십낭은 결국 이갑과 손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힘들게 모은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강물에 버리고 자신도 강물에 뛰어들어 죽는다.

<두십낭노침백보상>은『소수록』소재 총 5 작품에 수용되었는데, 그것은 제1, 2, 6, 11, 13편이다.[187] 이들 전고는 모두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을 취하고 있다.

7
두심낭의 투강ᄉᆞ을/ 졀ᄀᆡ로 이를숀가 (<소1, 30~31>)
ᄃᆡ숑시 두십낭은/ 투강익ᄉᆞ ᄒᆞ엿나니 (<소11, 101>)
ᄂᆡ 긔ᄉᆞᆼ이 양손빅을 홉모ᄒᆞ며 두십낭을 잇긔더니 (<소13, 109>)
금곡 녹주와 변경 심낭을 졀의라 ᄒᆞ여스나 (<소13, 111>)

8
두심낭의 투강ᄉᆞ도/ ᄉᆞ람모른 허물이라 (<소1, 4>)

9
번경명기 두십낭이/ 이랑을 분기ᄒᆞ고/ 투강익ᄉᆞ ᄒᆞ여스니/ 혁귄들 업다ᄒᆞ며 (<소2, 38>)

10
불셕쳔금 니공ᄌᆞ도/ 긱여의 궁곤ᄒᆞ믜/ 두심낭을 팔여ᄒᆞ고 (<소2, 48>)
강남 ᄃᆡᄉᆞᆼ 숀ᄃᆡ랑은 쳔금으로 두십낭을 구치 못ᄒᆞ여거든 (<소6, 65>)
탁문군의 ㅂ 둒음의 ㅅ 영에 무신이요, ~ 숀ᄃᆡ랑[188]의 박정이라 (<소6, 68>)

7, 8, 9, 10은 비유를 통한 전고 활용 방식에 해당한다. 두십낭의 죽음을 "투강ᄉᆞ"나 "투강익ᄉᆞ"라는 유사 표현을 여러 작품에서 반복해서 쓰고 있는 점과 제2편의 장안호걸이 '정부'를 '정낭'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손부'를 '손대

187)『소수록』소재 14 작품 중 시가 형식의 작품인 제9, 10, 12, 14편을 제외한 나머지 10 작품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표3]을 참고하기 바란다.

188) 이 부분은 앞 문장의 구조로 보아, '손대랑의 박정이라'는 말 앞에 '두십낭의 투강익사는' 정도의 말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두십낭노침백보상>의 내용을 보아, '숀ᄃᆡ랑' 대신 '이갑'이 들어가야 더 적절할 듯하다. 그러나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갑'과 '손대랑'은 기녀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나쁜 남자'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이 자리의 전고로 둘 중 누구를 쓰든 상관없을 듯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랑'이란 단어로 표현한 것도 편찬자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하다.

⑦은 기녀 두십낭을 '절개'와 '절의'로 대표되는 인물로 보고 전고로 활용한 사례들이다. 제1편의 화자인 명선이와 제11편의 화자인 청룡가인 그리고 제13편의 화자인 청주선달은 모두 절개와 절의의 표상으로 '두십낭'을 거론하고 있다.

⑧은 제1편의 화자인 명선이 기녀 두십낭이 저지른 실수를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두십낭은 훌륭한 기녀였지만, 그녀의 비극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데 그 연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 이 대사는 기녀 명선이 독자를 향해 애부 같은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에게나 정을 주지 않겠다고 나름의 결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고로 인용된 것이다.

⑨는 두십낭을 협기의 대표 인물로 본 것이다. '협기(俠氣)'란 '호방하고 의협심이 강한 기상'[189]을 이르는 말로, <두십낭노침백보상>에서 이미 두십낭을 '여중호걸'[190]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2편의 화자인 옥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⑩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주인공이자 두십낭을 배신한 '나쁜 남자' 이갑과 이갑을 꼬드겨서 두십낭을 배신하게 만든 또 다른 '나쁜 남자' 손부를 전고로 인용한 것이다. 제2편의 화자인 명기는 한때 두십낭에게 빠져 많은 돈도 아까워하지 않던 이갑도 사랑이 식자 돈 때문에 다시 두십낭을 배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남자 및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6편의 화자인 기녀는 제5편의 객을 향해 천금으로도 두십낭을 차지하지 못한 손부와 돈 때문에 두십낭을 배신한 이갑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기녀를 잠자리 상대로만 취급하는 객의 구애는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전고로 인용된 것이다.

지금까지 『소수록』의 애정담 수용의 특징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먼저 『소수록』의 애정담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수록』에는 기녀와 관련된 한 · 중 애정담이 전고로 많이 활용되었고 그중에는 우리문학사에서 흔히 전고로 인용하지 않은 작품들이 여러 편에서 반복적으로 활

189)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0) 두십낭은 유우춘을 보자 평신저두(平身低頭)하여 그의 곡진한 은의에 대하여 감사해 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춘은 당황하여, "십랑님은 자기의 애정 때문에 설령 상대방이 알몸뿐인 거지라 해도 조금도 마음이 변하실 리는 없겠지요. 실로 여중호걸이라 할 것입이다." (<두십낭노침백보상>), 조령암 역, 앞의 책, 3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된 특이한 양상이 포착되었다.

다음으로 이들 애정담의 전고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소수록』의 대다수 전고는 단순 비유 차원의 전고 활용 방식에 해당하였지만 유독 제2편 <논창가지미>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서의 독특한 전고 활용 방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를 검토한 결과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 즉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는 『소수록』의 편찬자가 전대의 소설 <이와전>, <금병매>, <서상기>, <매유랑독점화괴>,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의 소설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논창가지미>에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소수록』에만 전고로 수용된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의 전고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편찬자는 이들 작품을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록』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거나 작중 화자의 인물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편에서 반복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소수록』의 이 같은 애정담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을 보았을 때, 이 책은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자료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편찬자는 2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당히 광범위한 소설 독서경험을 가진 것은 물론이고 소설의 특징이나 소설적 관습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인물임을 확인한 셈이다.

3.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징

1) 『소수록』만의 독특한 표현들

『소수록』에는 이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기녀 및 기방과 관련된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런 독특한 표현들은 한 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록』의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표현들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단어의 용례와 전례의 용례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1) 단어의 용례

① 옥노화간

'옥로(玉露)'는 옥 같은 이슬로 기녀를 가리킨다. 아름답지만 짧게 끝나는 기녀를 나타내는 말이다. '화간'의 경우 『고시조 대전』에 花看, 和奸, 和間, 花冠 등으로, 한자 표기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다. 모두 기녀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기방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쓰는 말로 보인다.

옥노화간 웃지마쇼/ 눈쇽의 숑빅일셰 (<소1, 4>)
옥노화잔 덧업스니/ ㅅ 홤양ㅅ 무리중에 (<소7, 74~75>)

② 삼와양사와 연화

삼와양사(三瓦兩舍)는 송원(宋元)시대의 기루(妓樓) · 오락장 등의 총칭으로, 주로 와사(瓦舍)라는 줄임말로 사용되었다.[191] 중국의 청루 관련 기록에서 간혹 볼 수 있고 우리 문학사에서는 접하기 힘든 단어이다. 다만 우리 문학사에서 딱 한 차례 사용된 사례가 있는데, 조선후기 문인이자 만년에 영의정까지 역임했던 심상규(沈象奎, 1766~1838년)의 [尺牘] <富春明府淸篆下>의 "三瓦兩舍 自笑自笑 新赴高士里僉使 與弟家世好不泛也"라는 구절에서 이 단어가 보인다.

'연화'는 『소수록』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삼와양사(三瓦兩舍)가 기방으로 해석될 경우 기녀를 가리키는 '煙花'로, 그리고 사당패의 공연장으로 해석될 경우 불교 관련 용어인 "설법을 들을 인연이 있는 사람을 인도하여 교화하는 일"[192]이란 뜻을 가진 '緣化'로 해석될 수 있다.

숨화양ᄉᆞ 연화즁의/ 오입ᄀᆡᆨ을 미들숀가 (<소1, 31>)
화류와ᄉᆞ의 아무라 ᄒᆞ무로 반싱을 지닐가 ᄒᆞ여드니 능이 연화을 버셔나 안연이

191) '와사(瓦舍)'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여승환, 「송대 '瓦舍·勾欄'의 유래 고찰」, 『중국문학연구』 31, 한국중문학회, 2005.
19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절부의 일을 무란이 효칙하고 (<소1, 32>)
숨화양ᄉᆞ 무리중에/ 유졍ᄌᆞ을 만날숀가 (<소7, 75>
숨화양ᄉᆞ 연화중의/ 오입ᄎᆞᆫ 님의졍을 (<소11, 94>)
숨마양ᄉᆞ 연화중의/ 십여춘추 지닛마나 (<소13, 109>)

③ 도광과 박괘 그리고 황원

"도광(道光)"은 청나라 선종(宣宗)의 연호로 1821년~1850년까지 조선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주로 국가 기록물에서 보이는 표현으로 관리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다. 보통의 경우 "ᄃᆡ청 도광 이십오"는 1845년이므로 "을사년"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작품에 굳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편찬자는 관리(官吏)를 역임한 바 있는 중간계층의 신분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된다. 인용문의 "흑뇽쳥ᄉᆞ 상합ᄒᆞ여"는 1845년의 간지가 갑진년과 을사년이기에 "청룡청사 상합하여"라고 해야 맞다. 이는 전사 중의 필사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오류인 듯하다.

박괘(剝卦)는 64괘 중 23번째 괘명을, 황원(黃猿)은 노란 원숭이해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역법과 간지에 해당하는 용어로 유교 경전인 주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편찬자는 한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

ᄃᆡ청도광 이십오의/ 흑뇽쳥ᄉᆞ 상합ᄒᆞ여 (<소1, 4>)
진긔쳔음이 극ᄒᆞ면/ 양춘이 돌아오고/ 박괘 진ᄒᆞ면/ 불효가 구오단말/ 나을두고 이름인듯 (<소1, 24>)
황원이 ᄐᆡ셰을 ᄎᆞ지ᄒᆞ고 월건이 중춘의 다다로ᄆᆡ (<소13, 109>)

④ 함인항

'함인항(陷人坑)'의 '坑'은 '항'으로 읽기도 하지만 구덩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갱'으로 읽어야 한다. 하지만 아래의 인용문들을 보면 일관되게 '함인갱'이 아닌 '함인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소수록』 초기자료는 한문과 한글이 혼합되어 쓰여진 형태가 아니었을까하는 추정을 하게 된다.[193] 이 초기자료는 전승 중간에

193) 제1편 <ᄎᆞᆫ힉영명긔명션이라>에 '죠쇽과효'는 '조율과효(棗栗果肴)'로 풀이하였다. 이는 전사과정에서 한문 독해 수준이 높지 않은 필사자의 참여로 인해 속(粟)과 율(栗)의 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문독해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어떤 필사자의 참여로 인해 지금의 '함인항'으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혼진(迷魂陣)'과 '미혼단(迷魂丹)'이란 단어가 '함인항'과 나란히 쓰이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194]

미혼단은 ᄂᆡ모로나/ 함인ᄒᆞ난 항은 이거시라 (<소2, 52>)
함인ᄒᆞ난 굴암이라 (<소3, 53>)
함인항은 ᄂᆡ몰나도/ 미혼진이 네로구나 (<소13, 113>)

⑤ 찾으시는 듯

서술 내용 중에 여성 화자가 "찾으시는 듯"이라는 높임말 표현을 쓸 때 다음과 같은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다.

님이나을 ᄎᆞᆺᄌᆞᆫ난듯 (<소1, 110>)
님이쳡을 ᄎᆞᆺᄌᆞᆫ난듯 (<소11, 95>)

⑥ 호명기의 작법

제14편은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호명기다. 그 중 유일하게 글자의 조합이 맞지 않는 이름이 있다. 바로 '모란'의 호명기다. 박수진에 따르면 "모란은 "목동아 나무 벨 졔 난초를 닷칠셔라 유향이 미미ᄒᆞ니 넨들 아니 ᄉᆞ랑ᄒᆞ랴"라 하여 호명의 조합이 "목+난"으로 이루어졌다. 목난은 나무에 핀 난초를 의미하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로는 "목난"이 맞다. 하지만 다른 호명들과 비교한다면 글자의 결합이 다른 형상으로 드러나고, 여기 등장하는 모란은 목단(牧丹)이기 때문에 잘못 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195]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란(木蘭)'은 학명이 함박꽃나무로 북한의 국화이다. 여기서 핀 꽃을 '함박꽃', '모란꽃'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목란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96] 때문에 '모란'의 호명기는 박수진의 지적과 같이 편찬자의 작시 능력의 부족에서 나온 실수가 아닌, 북한 지역인 황해도 해주의 언어

194) 인용문의 세 작품과 함께 제5편 <ᄃᆡ다졍 ᄉᆡ자ᄒᆞ여 작구압가인셔라>에서는 "화안셩모 말근 죠격 미혼하난 약이른 듯"이라는 약간 변용된 표현이 나온다.
195) 박수진, 앞의 논문, 116~117면.
196)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환경을 반영하여 제대로 지어진 호명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편찬자는 '모란'과 '목란'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언어 환경에 노출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 목동아 나무빌제/ 난쵸을 닷칠셔라/ 유향이 미미ᄒᆞ니/ 넨들아니 ᄉᆞ랑ᄒᆞ랴
> 모란 (<소14, 123>)

한편 제1편 <ᄎᆞᆫ히영명긔명션이라>의 일부 내용도 제14편의 기녀 점고 호명기와 같은 언어유희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작중 화자인 명선은 마치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투로 자기 이름과 관련된 의미를 제14편의 기녀 점고 호명기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작가가 명선이라면 이와 같은 현학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추정했을 리가 없다고 본다.

> 명션으로 이름ᄒᆞ여/ 칠팔셰에 시ᄉᆞᄒᆞ니/ 죠달도 죠달할ᄉᆞ/ 명월갓튼 이ᄂᆡ얼골/ 션연ᄒᆞ여 명션인가/ 명만천ᄒᆞ 큰이름이/ 션죵신할 명션인가 (<소1, 1>)

(2) 전례의 용례

① 소자(邵子)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제1편과 2편 그리고 11편에서 가져온 다음 인용문들은 소자(邵子)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의 "하늘은 자회(子會)에 열리고, 땅은 축회(丑會)에서 열리며, 사람은 인회(寅會)에서 나온다[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라는 구절을 각 편에서 약간씩 변화를 주어 가사체로 표현한 것들이다. 이 구절이 모두 인용된 사례는 주로 상층계층의 문집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가사의 경우 서두 부분에서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쓰인 예가 간혹 확인되는데, 주로 한문식 표현이 많이 쓰인 작품에서 '천개어자(天開於子)'나 '지벽어축(地闢於丑)' 중 한두 구절에 한정하여 인용된 것들이다.

> 천ᄀᆡ 지벽ᄒᆞ여/ 만물이 시ᄉᆡᆼᄒᆞ고/ 인ᄉᆡᆼ이 ᄉᆞ람난후 (<소1, 1>)
> 천ᄀᆡ어ᄌᆞ ᄒᆞ고/ 지벽어축 ᄒᆞ여셔라/ 인ᄉᆡᆼ인(寅生人) ᄉᆞ람난후 (<소2, 35>)
> ᄌᆞ회에 ᄉᆡᆼ천ᄒᆞ고/ 축회에 ᄉᆡᆼ지로다/ 만물이 졔졔ᄒᆞ여/ 인회에 ᄉᆡᆼ인ᄒᆞ니 (<소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85~86>)

② 부현(傅玄)의 『태자소부잠(太子少傅箴)』

제2편의 "근묵(近墨)하면 검어지고 근주(近朱)하면 붉어진다고 하니"는 중국 서진(西晉) 때의 문신이자 학자인 부현(傅玄)의 『태자소부잠(太子少傅箴)』에서 "무릇 쇠와 나무는 일정한 형상이 없어 겉 틀에 따라 모나게도 되고 둥글게도 된다. 또 틀을 잡아 주는 도지개가 있어 도지개에 따라 습관과 성질이 길러진다. 이런 까닭으로 주사(朱砂)를 가까이하는 사람은 붉은 물이 들고 먹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은 물이 든다[夫金水無常 方圓應形 亦有隱括 習以性成 故近朱者赤 近墨者黑]"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순서를 바꾼 것이다.

근묵ᄒᆞ면 거머지고/ 근주ᄒᆞ면 북난다니/ 근이원지 ᄉᆞᆼ칙이라 (<소2, 52>)

③ 구양수(歐陽脩)의 <추성부(秋聲賦)>

제7편의 "초목(草木)은 무심(無心)하나 ~ 악연단자(渥然丹者) 고목(槁木)이라"는 구양수(歐陽脩)의 <추성부(秋聲賦)>에 나온 "초목처럼 감정이 없는 것도, 때가 이르면 가을바람에 휘날려 너풀거리며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인간은 감정을 갖고 움직이는 자다. …(중략)… 그리하여 많은 근심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많은 일이 그 신체를 피곤하게 한다. …(중략)…그리하여 발갛게 붉은 윤택한 얼굴이 나이 늙어 고목처럼 쇠하고, 새까맣게 검던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게 되는 것도 또한 당연한 일이다[草木無情 有時飄零 人爲動物 …(중략)… 百憂感其心 萬事勞其形 …(중략)… 宜其渥然丹者爲槁木 黝然黑者爲星星]"이라는 문구를 차용하여 그것을 다시 화자인 노기의 감성에 맞추어 가사체로 바꾼 것이다.

쵸목은 무심ᄒᆞ나/ 씨을짜라 포렁커든/ 하물며 ᄉᆞ람되여/ 빅우난 감심ᄒᆞ여/ 만ᄉᆞ은 뇌형ᄒᆞ니/ 이연흑ᄌᆞ 셩셩이요/ 악연단ᄌᆞ 고목이라 (<소7, 70>)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 卷6에도 실려 있는 구양수의 <추성부>는 가을밤의 정서를 노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취옹정기(醉翁亭記)>와 함께 문인들에게 애송되었다고 한다. 단원 김홍도(1745년~1806년?)의 경우 이를 그림으로 그려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추성부도(秋聲賦圖)>를 남기기도 하였다. <추성부>는 주로 사대부 문인들의 문집에서 전고로 인용된 정황이 발견되는데, 이 작품에서처럼 본문의 구절을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작가인 '구양수'나 작품명인 '추성부'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여 가을밤의 정경을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197]

④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剪燈新話)』<모란등기(牧丹燈記)>

제3편의 "승영구구(蠅營狗苟)함과 ~ 함인(陷人)하는 구렁이라"는 『전등신화(剪燈新話)』<모란등기(牧丹燈記)>에서 도인이 교생과 부숙방 그리고 금련의 죄를 판결하는 자리에서 한 대사인 "파리처럼 분주히 날기도 하고 개 같이 구차하게 다니기도 하며, 양처럼 사납고, …(중략)… 여우가 어슬렁거리며 찾아다니듯 음탕하고 메추라기가 쌍쌍이 나는 꼴이 되어 좋다고 할 것도 못되는데, …(중략)… 지금부터라도 함인갱은 메꿔버리고 미혼진은 깨뜨려 버리는 것이 좋겠고[蠅營狗苟, 羊狠狼貪, …(중략)… 狐綏綏而有蕩, 鶉奔奔而無良, …(중략)… 陷人坑今塡滿, 迷魂陣自此打]"를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이다.

> 승연구구함과 향안암탐ᄒᆞ미 불과 유유유탕ᄒᆞ난 호리요, 분분무량한 모쵸리라. 졔불과 망국ᄒᆞ난 요물이요, 함인ᄒᆞ난 굴암이라. (<소3, 53>)

⑤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

제11편의 "삽연합안(霎然合眼) 보이시고 경오개첩(驚悟開睫) 아니시니"는 <구운몽>에서 주인공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그녀들을 잊지 못해 고뇌하던 장면에서, "잠깐 눈을 감으면 팔선녀들이 홀연히 앞에 늘어서니, 놀라 깨우쳐 감은 눈을 떠보면 이미 볼 수 없는지라[霎然合眼則八仙女忽羅列於前矣 驚悟開睫이不可見矣]"라는 일부 대사를 인용한 것이다.

> 십연합안 모이시고/ 경오기쳡 아니시니 (<소11, 98>)

197) <추성부>의 다음 구절인 "歐陽子所謂渥然丹者爲槁木 黟然黑者爲星星"을 직접 인용한 사례가 1종의 문집에서 확인되었다. 朴宗慶, 「祭文」, 『敦巖集』 卷之八, 『한국문집총간』 속109, 한국고전종합DB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작품 간 유사 표현의 반복적 사용

『소수록』에는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유사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한다. 표현의 유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사의 경우 작품의 서술 분량까지 동일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여기서는 이런 성격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작품, 즉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의 유사 표현을 먼저 비교해 본 다음, 나머지 작품 간에도 이러한 유사 표현이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단, 앞에서 다룬 전고 관련 유사 표현은 이 절의 정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의 비교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는 작중 화자로 기녀가 등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술회하는 동일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두 편은 작품 간 유사 구성과 표현이 대거 등장한다. 우선 구성이 변용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자료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제1편 <촌힉영명긔명션이라>는 앞 절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와 '서술자의 논평'으로 구성된 작품이라고 파악하였다. 여기서 산문체로 서술된 '서술자의 논평' 부분은 제외하고 가사체 위주로 서술된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부분만을 가지고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와 구성적 측면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에 정리된 내용은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부분에서 가사체로 보기 어려운 문장들, 즉 삽입된 시조 5수와 7면 분량의 산문 문장들만 삭제해 본 것이다.

◎ 해주 명기 명선가(필자 주)

(1) 명선이 여자로 태어남 (1~20구)
(2) 기적에 오르고 12세에 성인식을 치룸 (21~41구)
(3) 본격적인 기생 놀음 (42~54구)
(4) 15세에 기녀로 이름을 날림 (55~82구)
(5) 16세에 소원하던 정인(김진사)을 만남 (83~116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정인에게 이별 소식을 듣게 됨 (117~135구)
(7) 정인과 이별의 시간을 맞이함 (136~211구) - 상사시조 3수 삭제
(8) 이별 후 정인을 그리워함(211~240구) - 상사시조 3수 삭제
사계절((추→동→춘→하) 내내 정인을 그리워함 - 산문문장 삭제
열두 달(1→2 … →12월) 내내 정인을 그리워함 - 산문문장 삭제
추억 서린 물건들을 보며 정인을 그리워함 - 산문문장 삭제
정인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 산문문장과 상사시조 1수 삭제
(9) 자신의 불효로 인해 상처받을 어머니를 걱정함 (241~255구)
(10) 정인을 향한 절개를 다짐하고 새 사또의 수청 요구에 불응함(256~311구)
(11) 자신의 불효로 인해 상처받을 어머니를 다시 걱정함 (312~341구)
(12) 정인을 꼭 닮은 사내아이를 출산함 (342~384구)
(13) 정인에게서 서울로 오라는 연락을 받음 (385~396구)
(14) 서울로 떠나기 전 어머니를 위로함 (397~466구)
(15) 서울로 가는 노정을 노래함 (467~538구)
(16) 마침내 정인과 재회함 (539~558구)

위 16개 단락은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부분 중 가사체로 서술된 부분만 따로 모은 것이다. 2음보 1구 기준 총 558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시조를 노래하기 전 가사체로 서술된 일부 몇 구를 삭제하고 나니, 2음보 1구 기준 총 551구[198]에 달하는 그야말로 문맥도 매끄러운 한 편의 완전한 가사 '해주 명기 명선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가사 '해주 명기 명선가'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소수록』 소재 14편 중 유일한 가사작품인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와 '해주 명기 명선가'를 비교해보았더니, 분량 면에서 2음보 1구 기준 총 551구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99] 분량의 동일함은 이뿐 만이 아니다. 가사 '해주 명기 명선가'에 삽입된 노정기만 따로 세어 본 결과, 2음보 1구 기준 총 50구로 파악되었는데,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에 삽입된 노정기도 이와 같은 분량으로 확인되었다.[200]

198) 7단락에 삽입된 시조 3수 앞에 가사체로 서술된 "한슘으로 중단숨고/ 눈물노 셩음ᄒᆞ여/ 별가일곡 일운말이"의 3구와 8단락에 삽입된 시조 1수 앞에 가사체로 서술된 "이류중탄 긴 소리로/ 별가일곡 이른말이"의 2구 그리고 12단락에 삽입된 시조 1수 앞에 가사체로 서술된 "춤연이 이러안져/ 단가일곡 이른말이"의 2구를 제거하고 계산한 것이다.
199) "<청룡가인한창가>는 2음보 1구 기준으로 총 551구에 달하는 편지 형식의 장편가사이다." 이상원, 앞의 논문, 66면.
200)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의 노정기는 "청단의 숙쇼ᄒᆞ고/ 연안빅천 지나셔셔 ~ 한강이 수구되니/ 억만연 왕긔지라"까지로 본 것이고,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의 노정기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의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부분 중간중간에 삽입된 시조 5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와 묶어서 볼 수 있는 시조 3수가 수록된 제12편 <단충이라>가 있다. 이들 시조는 청룡가인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면서도 서사 전개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1편 중간에 삽입된 시조 5수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제11편과 제12편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왜 이처럼 두 편의 작품으로 분리한 것일까? 편찬자가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는 온전한 가사작품이기 때문에 중간에 청룡가인의 상사의 심회를 노래한 시조를 삽입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음 편에 '단충이라'는 제목 아래 시조 3수만 따로 묶어 배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은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의 유사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표현부터 거의 동일한 표현까지 모두 25개의 구절을 정리해보았다. 이중 1~16까지는 두 작품 간 반복적으로 사용된 유사 표현이고, 17~25까지는 두 작품 간 유사 표현이 다른 작품에서도 추가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1
천긔 지벽ᄒᆞ여/ 만물이 시싱ᄒᆞ고/ 인싱이 ᄉᆞ람난후 (<소1, 1>)
ᄌᆞ회에 싱천ᄒᆞ고/ 축회에 싱지로다/ 만물이 제제ᄒᆞ여/ 인회에 싱인ᄒᆞ니 (<소11, 85~86>)

2
이ᄂᆡ몸 어이ᄒᆞ여/ 남ᄌᆞ는 마다ᄒᆞ고/ 일긔여ᄌᆞ 되어나며 (<소1, 1>)
이ᄂᆡ몸 어이ᄒᆞ여/ 남ᄌᆞ난 마다ᄒᆞ고/ 일긔여ᄌᆞ 되어나며 (<소11, 86>)

3
흘너가난 빅구광음/ 어ᄂᆡ덧 니팔이라 (<소1, 4>)
유슈광음 흘너가니/ 그리져리 이팔이라 (<소11, 88>)

"북그림 무릅쓰고/ 일도를 쳘환ᄒᆞ니 ~ 하셔지 ᄃᆡ도회요/ 아국지 양쥬로다"까지로 본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일부함원 오월비상/ 동힉효부 원이러니 (<소1, 4>)
일부함원 오월비숭/ 님도더러 ㅅ 강하오 (<소11, 102>)

5
닉힝ᄎᆞ 치숑ᄒᆞ니/ 무비단중 숭심쳐라 (<소1, 6>)
견물싱심 이닉졍회/ 무비단중 숭심쳐라 (<소11, 94>)

6
밧치난이 젹담이요/ 흐르나니 혈누로다 (<소1, 7>)
밧치난이 젹담이요/ 흐르난이 혈누로다 (<소11, 97>)

7
줄잇거라 보중ᄒᆞ오/ 혈마다시 ᄯᅩ못보랴 (<소1, 8>)
잘잇거라 보중ᄒᆞ오/ 셜마다시 ᄯᅩ못보랴 (<소11, 93>)

8
촌중이 긔단이요/ 명목이 욕암이라 (<소1, 8>)
ᄆᆡᄃᆡᄆᆡᄃᆡ 끈쳐지고/ 명옥이 요감이라 (<소11, 94>)

9
이말이 웻말이야/ 가시단말 웻말이요/ 진졍이요 실말이요/ 사랑계워 긔롱이요 (<소1, 9>)
이것시 무엇시오/ 졍이안여 큰원슈요/ 원슈란말 실말이요/ 일국인 허다중의/ 임이어이 원슈되오 (<소11, 102>)

10
가난님 가게두고/ 잇난나 잇게ᄒᆞ니/ 잇곳져 ᄂᆡ이스며/ 가고져 가시난가/ 셰부득이 그러ᄒᆞ니/ 피ᄎᆞ숭심 일반이라 (<소1, 10>)
가난쳡 가게두고/ 잇난님 잇게ᄒᆞ니/ 가고십어 ᄂᆡ가오며/ 보ᄂᆡ고져 보ᄂᆡ시오/ ᄉᆞ셰부득 그러ᄒᆞ니/ 피ᄎᆞ숭심 일반이라 (<소11, 93>)

11
쵸원중졔 긴언덕의/ 목동의 졋쇼리도/ 님이나를 부르난듯 (<소1, 1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촌원중제 긴언덕의/ 목동의 졋쇼리도/ 님이쳡을 부르난 듯 (<소11, 94>)

12
님이나을 촛즛난듯 (<소1, 10>)
님이쳡을 ᄎᆞ즙난듯 (<소11, 95>)

13
두고가신 ᄉᆡᆼ각이요/ 가져가신 ᄌᆞᆷ일언지/ 잇고져 ᄉᆡᆼ각이요/ ᄌᆞ고져 잠못드니 (<소1, 11>)
임의주신 ᄉᆡᆼ각이요/ 가져가신 ᄌᆞᆷ일넌지/ ᄌᆞ고져 ᄌᆞᆷ못들고/ 이져마ᄌᆞ 못이즈니 (<소11, 96>)

14
ᄒᆡ음업난 찬눈물은/ 화엽을 젹시이고/ 연긔업난 이닉화난/ ᄉᆞᆷ촌중이 놉파ᄯᅩ다 (<소1, 18>)
ᄒᆡ음업난 찬눈물은/ 홍엽에 연면ᄒᆞ고/ 오중의 이난화난/ 연긔업난 불이로다 (<소11, 98~99>)

15
ᄯᅪᄉᆞ 우ᄉᆞᄒᆞ니 (<소1, 19>)
ᄯᅪᄉᆞ우ᄉᆞᆼ ᄉᆡᆼ각ᄒᆞ니 (<소11, 99>)

16
지졍슈취와 봉친합의을 아난 지 뉘라 ᄒᆞ리요 (<소1, 33>)
지졍식취 이러커든/ 봉친합에 이를숀가? (<소11, 92>)

17
합의인 젼여업고/ 머리압푼 ᄯᆞᆯ이로다 (<소1, 3>)
합의인 바의업고/ 비위역한 ᄯᆞᆯ일너니 (<소11, 91>)
진실한이 바이업고/ 무비광긱 외수로다 (<소7, 75>)
합의인 바이업고/ 무비산계 야목이라 (<소13, 109>)

18
ᄉᆞ라ᄉᆡᆼ젼 이셰ᄉᆞᆼ의/ 이별마ᄌᆞ 원일너니 (<소1, 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ᄉᆞ라ᄉᆡᆼ젼 이셰ᄉᆞᆼ의/ 이별업시 지ᄂᆡ고져 (<소11, 91>)
ᄉᆞ라ᄉᆡᆼ젼 이셰ᄉᆞᆼ을/ 이별업시 지ᄂᆡ다가 (<소7, 75>)

19
가긔가 이됴ᄒᆞ고/ 죠물이 다시ᄒᆞ여 (<소1, 5>)
월노가 인도ᄒᆞ고/ 죠물이 유의ᄒᆞ여 (<소11, 91>)
홍엽이 미핀되고/ 월노가 인도ᄒᆞ여 (<소8, 76>)
월노가 연분을 ᄉᆞᆼ고ᄒᆞ고 죠물이 압기를 인도ᄒᆞ여 (<소13, 109>)

20
일모ᄎᆞᆼ산 져문날의/ 어ᄂᆡ곳 지무시며/ 고등잔월 요젹시의/ 쳡의ᄉᆡᆼ각 얼마할지 (<소1, 10>)
일무황혼 져문날의/ 밤되난것 미망ᄒᆞ고/ 긱ᄎᆞᆼ고등 요젹시의/ 죰못이러 병이될듯 (<소11, 95>)
일노쳥ᄉᆞᆫ 져문날의/ 밤되난것 민망ᄒᆞ고/ 고등잔월 요젹시의/ 쳑영ᄉᆞᆼ죠 가련ᄒᆞ다 (<7, 73>)

21
젹막 공방의/ ᄉᆞ르난이 간장이요/ 무인 졍야의/ 흐르난이 눈물이라 (<소1, 12>)
낙일 오경의/ ᄉᆞ로난이 간ᄌᆞᆼ이요/ 무인 졍야의/ 수이난이 한숨이라 (<소11, 97~98>)
귀운낙일 황혼시의/ ᄉᆞ로난이 간ᄌᆞᆼ이요/ 월운ᄉᆞᆷ횡 밤듯ᄯᅵ의/ 수이난이 한숨이라 (<소13, 95>)

22
시졔문ᄌᆞ 뉘ᄒᆞ신지/ 긔ᄉᆡᆼ긔ᄌᆞ 고이토다 (<소1, 20>)
사셔오경 빅가어의/ 두글ᄌᆞ만 골나ᄂᆡ여/ 이즐망ᄌᆞ 나가지고/ ᄉᆡᆼ각ᄉᆞᄌᆞ 임게들여 (<소11, 105>)
시졔문ᄌᆞ 뉘하신지/ ᄉᆞ셔오경 빅가어의/ 늘글노ᄌᆞ 한이로다 (<소7, 73>)

23
ᄉᆞ불역ᄉᆞ 이ᄂᆡᄒᆡᆼᄉᆞ/ 우리님게 들이고져 (<소1, 21>)
ᄉᆞ불역신 이ᄂᆡ마음/ ㅅ 쳔이 불임하고/ 귀신이 질졍이라 (<소11, 101>)
무심할ᄉᆞ 미물이나/ 관공타든 젹토마은/ 오국의 줄여죽고/ 최목ᄉᆞ의 기른기난/ 투인담의 쌧졋나니/ 금수도 져러커든/ ᄒᆞ물며 ᄉᆞ람되여/ 졀기야 모르숀가 (<소1, 20>)
관공 타든 젹토마난/ 화용졀ᄉᆞ ᄒᆞ여스니/ 미물도 져러커든/ ᄒᆞ물며 ᄉᆞ람되여/ 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의를 모를숀가 (<소11, 92>)

㉔
빅인이 유아ᄉᆞ로/ 경지파ᄉᆞᆫ 그 모양이/ 이ㄴ허물 아니될가 (<소1, 26>)
죽난 나도 ᄂᆡ연이와/ 빅인이 유아ᄉᆞ로 / 님인들 평안ᄒᆞ며 (<소11, 104>)
빅인이 유아ᄉᆞ로, 일분인 인졍이 이슬진딘 (<소5, 61>)
빅인이 유아ᄉᆞ란 말숨은 진실노 우실 말숨이요 (<소6, 66>)

㉕
ᄉᆞᆷ화양ᄉᆞ 연화중의/ 오입직을 미들숀가 (<소1, 31>)
ᄉᆞᆷ화양ᄉᆞ 연화중의/ 오입ᄎᆞᆫᄉᆞᆫ 님의졍을/ ᄂᆡ역시 짐작것만 (<소11, 94>)
ᄉᆞᆷ화양ᄉᆞ 무리중에/ 유졍ᄌᆞ을 만날숀가 (<소7, 75>
ᄉᆞᆷ마양ᄉᆞ 연화중의/ 십여춘추 지닛마나 (<소13, 109>)

(2) 전체 작품 간 비교

『소수록』에는 앞에서 비교했던 제1편 <ᄎᆞᆫ히영명긔명션이라>과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의 유사 구성과 표현뿐만 아니라 나머지 작품 간 유사 표현도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총 18개로 정리해보았는데, 이중 ⑰과 ⑱은 인용된 문장이 길기는 하지만 기녀의 외모와 재예를 묘사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특정 표현들이 있어서 이것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①
낙충의 파한거울/ 숑안시의 둥구럿고/ 풍셩의 논인금이/ 연평진의 합ᄒᆞ도다 (<소1, 30>)
낙충의 파한거울/ 언제다시 두련ᄒᆞ며/ 풍숑의 논인금이/ 어ᄂᆡ씨의 합할난지 (<소13, 116>)

②
문젼이 넝낙ᄒᆞ고/ 쇠ᄭᆞᆫ이 도라셔니 (<소1, 22>)
문젼이 넝낙ᄒᆞ니/ ᄎᆞ즈리 뉘이스리 (<소7, 73>)

③
이식ᄉᆞ인 우리힝중/ 연국부인 못바라나 (<소1, 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물며 우리힝중/ 식으로 ᄉᆞ인이라 (<소7, 72>)

4
화안월터와 난지혜질은 화쳥구비을 살지다 나물할 거시요. 셤셤죽순과 칙칙금면은 한궁비련을 경쳡다 우살지라. (<소1, 31>)
한궁비련은 경쳡ᄒᆞ미 부죡ᄒᆞ고, 화쳥구비난 살진 거시 흠이 된 듯. (<소13, 111>)

5
의형이 날노 쇼삭ᄒᆞ여 죱든 의복 널너 가고, 형용은 시시로 환탈ᄒᆞ여, 고ᄉᆞ 갓튼 모양은 촉누을 이웃ᄒᆞ고, 실낫 갓치 가난 목숨 죠로와 일반이라. (<소5, 61>)
금셕아니 죠로인싱/ 얼마안여 촉눈될지/ 의형은날노 환탈ᄒᆞ여/ 죱든의복 널너가고/ 얼골은시로 쇼삭ᄒᆞ여/ 희든양ᄌᆞ 거머지니 (<소11, 103>)

6
ᄉᆞᄌᆞ난 불가부싱이라. 불힝이 셰숑을 바릴진딘 추회ᄒᆞ면 무엇ᄒᆞ나. (<소5, 61>)
ᄉᆞᄌᆞ불가 부싱이요/ 후회막급 쓸디업다 (<소11, 104>)

7
졍신을 수십ᄒᆞ여, 경위 업고 둔한 말을 ᄃᆡ강 긔록ᄒᆞ니, (<소5, 62>)
흐리졍신 수십ᄒᆞ여/ ᄃᆡ강추어 긔록이요 (<소11, 106>)
쇼회을 다ᄒᆞ고져/ 심시이 요란ᄒᆞ여/ ᄃᆡ강추워 긔록노라 (<소13, 118>)

8
지셩효쇼도에 쳔필응은/ ᄂᆡ졍셩의 감동난듯 (<소1, 431>)
지셩쇼도의 쳔필감지라 ᄒᆞ여스니 (<소6, 62>)

9
일월졍화 산쳔수긔/ 남ᄌᆞ홀노 타고날가 (<소2, 36>)
산쳔수긔 일월졍화/ 네홀노 타고난다 (<소13, 114>)

10
용면긔ᄉᆞ 순단으로/ 오식이 져러ᄒᆞᆫ다 (<소4>, 57)
오도ᄌᆞ의 수단으로/ 오식이 져러한가 (<소13, 1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1
복파영중의 월식이 비치난 듯. (<소8, 78>)
복파영중의 월영이 빗치이고, (<소13, 110>)

12
보림사의 꼿긔름ᄌᆞ가 동ᄒᆞ니, 이 짐짓 남교 빅힝이요. (<소8, 76>)
보림ᄉᆞ 중의 꼿기릅ᄌᆞ가 동ᄒᆞ고, 남교 월ᄒᆞ의 옥져가 신이 되어, (<소13, 109>)

13
유한의 쳔ᄐᆡ봉션과 됴완의 그린 계집이 어이 이의셔 더ᄒᆞ며 나의 부러할 ᄇᆡ리요. (<소8, 76>)
유안 쳔ᄐᆡ봉션과 쵸왕 양ᄃᆡ운우로 엇지 즐거름의 비ᄒᆞ리요. (<소13, 110>)

14
비취금 원낭침의 옥비을 한게 ᄒᆞ고 향신을 접할진ᄃᆡ, (<소5, 60>)
향신을 졉ᄒᆞ며 옥비을 연ᄒᆞ니, (<소13, 110>)

15
부유갓튼 죠로긱이/ 빅구쳐름 빠른셰ᄉᆞᆼ (<소2, 51>)
유수광음 이셰ᄉᆞᆼ의/ 부유갓튼 우리인ᄉᆡᆼ/ 아젹이슬 일반이라 (<소7, 74>)

16
쵹영명월 요젹시의/ 치마끈 푸난쇼ᄅᆡ/ 흑감향이 이안인가? (<소2, 51>)
흑감향 중의 금ㅈ 읗 ㅂ 야으로 취ㅎ 민 듯. (<소13, 110>)

17
일과 녹발은/ 흑운이 푸이난듯/ 팔ᄌᆞ 빈모난/ 쳥ᄉᆞᆫ이 버렷난듯/ 효셩갓치 말근눈은/ 가울물이 잔황이라/ 빅옥갓치 흔귓봉은/ 은고리가 걸엿난듯/ 잉도갓튼 입수알은/ 단ᄉᆞ을 먹음어고/ 숨십육 흔잇ᄉᆡᆨ은/ 졔ᄆᆡ을 셰워도다/ 십지 셤수난/ 죽순이 고와잇고/ 셰치 금연은/ 봉두가 놉파쏘다/ 요요 셤요난/ 바람밧게 버들이요/ 단아 포셕은/ 눈가운ᄃᆡ ᄆᆡ화로다/ 보리 경쳡은/ 금누 반비요/ 무수 젼젼은/ 한궁 비련이라/ 가셩은 쳥아ᄒᆞ여/ 단구의 봉이울고/ 어음은 징징ᄒᆞ여/ 옥반을 울니난 듯 (<소4, 56~57>)

한 우음 터럭은 흑운이 푸이난 듯. 여옥빅안은 죵옹이 공교이 탁마ᄒᆞ고, 팔ᄌᆞ빈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모난 청산이 버렷난 듯. 푸른 눈셥은 유엽이 걸여 잇고, 효셩쌍안은 가울 물이 잔왕이라. 죠신 힝금은 수숭부용이요, 함홍쌍순은 잉도의 빅승이라. 말근 졍신은 추월광명이요, 셤셤자틔은 월궁 젹션이라. 십지 셤수난 죽순이 고와 잇고, 셰치 금연은 거름마다 연화로다. 가난 허리난 춘풍셰류요, 단아 표셕은 셜중미화로다. 보리 경쳡은 금누 반비요, 무수 편편은 한궁 비련이와, 가셩은 쳥아ᄒᆞ여 단구의 봉이 울고, 어음은 징징ᄒᆞ여 옥반을 짜리난 듯. (<소13, 112~113>)

화안월틔와 난지혜질은 화쳥구비을 살지다 나물할 거시요. 셤셤죽순과 칙칙금면은 한궁비련을 경쳡다 우살지라. 알운쳥가와 편쳔포무난 가이 일셰을 긔우릴 거시오. 쳥딕단군과 유요옥질이 가이 쳥누긔관 되미 졍이 붓그럽지 아니ᄒᆞ니, (<소1, 31>)

양뉴갓치 가는허리/ 고목을 이웃ᄒᆞ고/ 빅옥갓치 흰얼골은/ 유ᄌᆞ피와 일반이라/ 원슨 ᄋᆡ미난 / 가울풀이 황양ᄒᆞ고/ 효셩 쌍안은/ 연무의 즘겨난듯/ 불근 잉순은/ 덧업시 흐여지고/ 졔피 치아은/ 간간이 황틔로다 (<소7, 71>)

⑱

<u>꼿</u>셰 비ᄒᆞ물 과타 ᄒᆞ나 꼿시 고으나 불과 불그면 불고 희면 흘 다름니지 엇지 그 요요년년ᄒᆞᆫ 여유빅안과 도화양협에 비ᄒᆞ며, <u>옥</u>의 비ᄒᆞ믈 옥니 과타 ᄒᆞ나 옥니 희면 희고 ᄎᆞ면 출 다름이지 엇지 그 틔 업고 교교하여 온유겸양ᄒᆞᆫ 딕 비ᄒᆞ며, <u>금</u>이 귀타 ᄒᆞ나 불과 산을 킈여 어드면 견강할 다름이지 엇지 구ᄒᆞ여 엇지 못ᄒᆞ고 능유능강한 옥모월틔의 비ᄒᆞ며, (<소3, 53~54>)

<u>꼿</u>셰 비ᄒᆞ려 ᄒᆞ나 꼿시 불과 불그면 불고 희면 희고 또난 춘싱추ᄉᆞᄒᆞ니 엇지 ᄉᆞ시가졀의 쇼래경기한 너의 식의 비ᄒᆞ며, <u>옥</u>의 비ᄒᆞ려 ᄒᆞ나 옥이 말그면 말고 ᄎᆞ면 출 다름이지 엇지 너의 온유ᄌᆞ발한 쳔향구비의 비ᄒᆞ며, <u>금</u>이 귀타 ᄒᆞ나 불과 산을 씨여 어드면 경강할 다름이지 능유능강한 너의 션틔아질의 비ᄒᆞ며, (<소13, 1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시조에 나타난 특이 양상

『소수록』에는 시조 21수가 등장하는데, 이들 시조 역시 형태가 굉장히 독특하여 편찬자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한다. 작가가 보통 시조에 능숙한 사람인 경우 삽입 시조나 시조 작품 등은 작가 자신의 개인 창작으로, 시조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저작을 그대로 옮겨 오거나 여러 편의 시에서 구절을 인용하여 집구한 시로 구성된다.[201] 『소수록』의 경우 타인의 시조를 그대로 가져온 경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시조의 구절 대부분이 관용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기존의 가집을 모두 정리한 『고시조 대전』을 참고해보았을 때, 『소수록』에 등장하는 21수는 유사 시조나 동일 시조가 1수도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산물로 보여진다.[202]

또한, 시조 21수 중 16수는 종장 첫구에 '아마도'를, 3수는 '진실노'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도'의 경우 전체 21수 중 76%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역시 『소수록』 편찬자의 창작 습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고시조 대전』에 수록된 46,431수를 대상으로 하여 종장 첫구에 '아마도'를 쓴 사례를 분석해 보았더니 총 3,214수가 '아마도'를 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체 시조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수록』과 비교해보았을 때 매우 미미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시조 작가들이 시조를 창작할 때 『소수록』의 편찬자와 같이 종장 첫구에 '아마도'를 즐겨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

201) 윤재환, 앞의 논문, 203면.

202) 다음은 『소수록』 소재 시조작품에 관한 해제이다. "시조작품들은 모두 종장 말음보를 생략했다. 또 제1편의 시조는 가사작품 중간에 끼어있음에도 시조작품은 새로운 행에서 시작하고 또한 중·종장 시작 부분에는 '○'표를 해서 시조임을 좀 더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제9편의 앞부분 일부 작품도 제1편과 동일하게 중 · 종장에 '○'표를 넣어 주었다. 그러나 제9편 후반부와 제12편은 '○'표 없이 띄어쓰기만을 해주고 있다. 띄어쓰기는 대체로 장 구분이기는 하나 때로 장 구분의 엄격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 모든 작품은 한자어 없이 순한글로만 기록하고 있다. 『소수록』에는 총 21수의 단독출현작품이 있다. 이 중 유형 단독출현은 20수이고, 군집 단독출현은 1수이다. 이들 단독출현 작품의 가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단독출현: 1(2259), 2(1701), 3(2066), 4(3858), 5(0499), 6(3291), 7(0001), 8(5540), 9(5210), 10(2247), 11(0078), 12(0505), 13(2017), 14(2491), 15(4428), 16(2179), 17(0035), 10(0498), 20(4052), 21(4088), *군집 단독출현: 19(2245)", 신경숙・이상원・권순회・김용찬・박규홍・이형대 著,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59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소수록』의 시조는 종장 말구가 생략된 것이 대부분이고[203] 가곡처럼 5장 형식으로 표기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204] 이와 관련해서 권오경의 다음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19세기 고악보에는 가곡처럼 5장 형식에 종장 끝구를 생략한 시조 창악보나 사설시조를 수록한 것이 여럿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장금신보』(1885~6년)는 5장 형식을 유지하며, 2장에서 고체와 시체를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시조창의 급속한 변화를 알려주고 있다. 3장 형식은 20세기 초의 고악보에서 집중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조창 형식은 19세기 초에는 무장형식을 취하다가, 차츰 가곡처럼 5장 형식으로 불려지다가 20세기 초에 이르러 3장 형식으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205] 이 설명에 따르면, 『소수록』의 시조는 “차츰 가곡처럼 5장 형식으로 불려”지던 시기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매일신보』의 시조에도 『소수록』과 같은 형태의 시조가 무더기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206] 『소수록』의 시조들은 아마도 “20세기 초에 이르러 3장 형식으로 굳어”지기 전 두 가지 형식이 필요에 따라 함께 쓰이던 시기의 산물로 짐작된다.

1
ᄉᆞ랑이 거즛말이ㅇ 날 ᄉᆞ랑이 거즛말이
오ᄆᆡᄉᆞ복 ᄒᆞ시단 말 그 더욱이 거즛말이ㅇ
진실노 그 말ᄉᆞᆷ 갓틀진ᄃᆡ 두고 어이∨[207] (<소1, 7>)

2
모졍코 야속ᄒᆞ오
울며 감쳐 ᄌᆞᆸ분 ᄉᆞᆷ인 ᄎᆞᆷ아 어이 ᄯᆞᆯ쳐 가오ㅇ

---

203) 실제 시조창은 종장 말구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소수록』의 시조 21수는 실제로 불려졌을 가능성도 크다.
204) 종장 말구의 생략은 『남훈태평가』의 시조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205) 권오경, 「19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 연구」,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96~97면.
206) “그동안 학계에서는 개화기 시조의 종장 말구 생략 형식을 『대한매일신보』 집필진의 의도하에 이루어낸 형태 변형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했다. 그러나 같은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외부 기고작들이 한결같이 종장 말구를 생략하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은 『대한매일신보』 집필진 특유의 시가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 1907년 3월 3일 『대한유학생회학보』 창간호에 실린 樂天子의 <국풍사수> 중 첫수나, 1908년 육정수가 쓴 신소설 <송뢰금>에 삽입된 시조 3수에서도 종장 말구가 생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개화기 시조의 종장 말구 생략 형식은 개화기 당대의 고유 양식이라기보다는 전대의 『남훈태평가』 등의 가집에서 연유된 전통 승계 양식으로서의 시조창에 의한 고유 시조 시형의 변이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성남, 앞의 논문, 196면.
207) ‘∨’표시는 띄어쓰기와 줄을 바꾼 부분에 필자가 임의대로 표시한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지ᄉᆞ지 ᄉᆡᆼ각ᄒᆞ면 나는 졍녕 못ᄒᆞ올 듯○
<u>아마도</u> 님에 뜻 ᄂᆡ 졍만 못ᄒᆞ니 긔를 셔러∨ (<소1, 7~8>)

3
부ᄃᆡ 편이 가오 중졍단졍 편이 가오○
쳔금 갓치 즁ᄒᆞᆫ 몸을 실셥 말고 편이 가오○
<u>아마도</u> 긱충에 존등을 ᄃᆡᄒᆞ면 ᄂᆡ 마음 알 듯∨ (<소1, 8>)

4
니별한 그 듯날의○ ᄉᆞ랑은 터 업셔도○
구회 심중의 가득한 졍은 남아○
주야의 ᄭᅳᆫ일 똥 모르고 살 똥만 아라드라∨ (<소1, 11>)

5
그 말이 거진말이○ 유ᄉᆞ유몽 거즌말이○
꿈의 보와 반기단 말○ 그 더욱이 거즌말이○
<u>아마도</u> 수다몽불셩이ᄆᆡ○ 꿈 못 이러∨ (<소1, 18>)

6
엇그제 남일러니○ 오날 보니 임이로다○
무심타 그ᄃᆡ 일신 어이 이닷 못 잇난고○
<u>아마도</u> ᄉᆞ랑 ᄂᆡ인 ᄉᆞ람 날과 원수∨ (<소9, 82>)

7
가고 가고 ᄯᅩ 다시 가도○ 오고 오고 ᄯᅩ 그져 오니∨
계 나 되여 ᄉᆡᆼ각ᄒᆞ면 날을 응당 한ᄒᆞ렷만
<u>아마도</u>○ 셰ᄉᆞᆼᄉᆞ ᄯᅳ 갓지 못ᄒᆞ니 그를 셔러∨ (<소9, 82>)

8
흡쳔졍 흐른 물이○ 봉임단화 불거스니○
무심한 너 그럴 졔 유졍인 그 엇더ᄒᆞ리∨
<u>아마도</u>∨ 듯난 눈물이ᄆᆡ 졈졈 낙화∨ (<소9, 82~83>)

9
풍우ᄃᆡ작ᄒᆞ니∨ 가고져 갈 길 업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ᄃᆡ한칠년의도 삼ᄃᆡ지치 되여것만∨
엇지타 무익한 비가 ᄂᆡ 간장을 ᄉᆞ로나니∨ (<소9, 83>)

⑩
ᄉᆞ랑도 쳠 아니요∨ 이별도 쳠 아니나∨
어이ᄒᆞᆫ 이 이별이 쳠 아니요 ᄯᅩ 못 볼 듯
<u>아마도</u>∨ 이러고 져러기가 유무졍인가∨ (<소9, 83>)

⑪
간다 셜워 마오∨ 셜마 다시 ᄯᅩ 못 볼가∨
낙충의 파ᄒᆞᆫ 거울 둥굴 쥴 모로난가∨
<u>진실노</u> 깅숭봉되면 그 마음 알 듯∨ (<소9, 83>)

⑫
그이 갈 길이요∨ 아니 가든 못할리라∨
허다 장졍의 두고 가ᄂᆞᆫ ᄂᆞ도 잇ᄂᆡ∨
<u>진실노</u>∨ 면면한 졍이 그 너ᄲᅮᆫ 되랴∨ (<소9, 83>)

⑬
보와 반가온 님이∨ 못 보와 병 아니 될가∨
못 보와 병 되난 졍이 보와 반길 ᄲᅮᆫ 아니라∨
<u>아마도</u>∨ 연리지 되기 젼은 중시름 될가∨ (<소10, 84>)

⑭
싱각 업시 잇고 잇난 임을∨ 기ᄃᆡ리기 더욱 슬웨∨
잇고져 잇치량이면 임 그려 병 되도록 할가∨
<u>아마도</u>∨ ᄂᆡ 유졍 님 무심ᄒᆞ니 그 더욱 졀통∨ (<소10, 84>)

⑮
죽어 잇치량이면∨ 이 간중 셕이고 할니나 살가∨
죽어 못 잇난 양ᄒᆞ여 쳥능ᄃᆡ ᄒᆞ에 연리지 갓치∨
<u>아마도</u>∨ 숭ᄉᆞ난망이ᄆᆡ 그 더욱 셔러∨ (<소10, 84>)

⑯
비와 못 오시고∨ 바람 부러 못 오시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숨빅육십 일에 오실 날이 멧 날 되오∨
아마도∨ 님에 졍 닉 뜻만 못ᄒᆞ니 그를 셔려∨ (<소10, 85>)

17
가슴에셔 불이 나니∨ 오중이 다 타것다∨
헌원씨 꿈에 만나 불 끌 약 뭇ᄌᆞ오니∨
아마도∨ 졍화로 난 병이미 끌 약 업셔∨ (<소10, 85>)

18
그 말이 거즛말이∨ ᄯᅩ 오만 말 거즛말이∨
고당에 빅발이요 당ᄒᆞ에 쳐ᄌᆞ로다∨
아마도∨ 고등존월에 낙누단중은 나뿐 될가∨ (<소10, 85>)

19
그 말이 거즛말이∨ 날 ᄉᆞ랑이 거즛말니∨
꿈의 보와 반긔단 말 그 더옥이 거진말이∨
아마도∨ 날 갓치 ᄌᆞᆷ 못 이르면 무슴 꿈을∨ (<소12, 107>)

20
임도 날를 ᄉᆡᆼ각난가∨ 나 홀노 ᄉᆡᆼ각난가∨
임이 나와 갓트시면 죽어 무한을연만∨
아마도∨ 쵀탄ᄉᆞ난 그 인심인가∨ (<소12, 107>)

21
임 이별 ᄒᆞ든 날의 ∨나 어이 못 죽은고∨
ᄉᆞ라스면 뵈올연이 죽어지면 못 보련이∨
아마도∨ 지금 ᄉᆡᆼ각ᄒᆞ니 못 죽언 거시∨ (<소12, 107>)

이제까지 『소수록』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소수록』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을 단어의 예와 전례의 예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 책에서만 쓰인 독특한 단어들이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흔히 차용되지 않았던 전대 문학서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각 작품의 화자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변용한 방식을 보면 『소수록』은 상당한 문학적 소양을 지닌 어떤 일인에 의해 편찬된 자료로 보인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음으로 작품 간 유사 표현의 반복적 사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러 작품에서 유사한 구성과 표현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소수록』은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자료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시조에 나타난 특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수의 시조가 종장 첫 구에 주로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모든 시조는 종장 말구가 생략되어 있으며 시조임에도 분절 방식은 가곡의 5장 형식으로 분절되어 있어 도대체 가곡인지 시조인지 구분이 안 가는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특징들은 시조 21수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시조 21수는 모두 신출 작품으로서 시조 간 정감이 유사하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것 역시 편찬자가 한사람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4. 주제 지향과 편찬 의식

1) 주제 지향

앞에서 『소수록』의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리 문학사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았던, 『소수록』에만 쓰인 독특한 표현들이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작품 간 유사 구성과 표현이 대거 등장하였으며 시조 21수는 형태와 정감마저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소수록』은 한 사람의 편찬물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태이다.

이제 『소수록』이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책이라는 관점에서 14편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책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 및 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4편의 소제목에서 우선 눈에 띄었던 것은 '히영명긔'라는 동일 단어가 사용된 두 작품, 즉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와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라>가 책의 처음과 끝에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두 작품이 이처럼 배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지만 제1편은 해주 명기 명선이를 교훈이 될만한 이상적인 기녀상으로 제시하고 있고, 제14편은 제1편에서 서술자가 청자로 호명했던 해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방의 40명 기녀를 일일이 호명하여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희영명긔'라는 표현은 그냥 우연히 반복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편찬자는 이 책의 창작 기반이 된 해주 기녀들을 제목에 직접 등장시켜서[208] 『소수록』의 시작과 끝을 구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의 12편은 어떤 작품들이 배치되었을까? 앞에서 [표1]을 통해 12편은 주제 지향의 측면에서 6편씩 대별되었던 것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전반부라 할 수 있는 앞쪽에 배치된 6 작품, 즉 제2, 3, 4, 5, 6, 7편은 주제 지향을 '기녀 가치 논쟁'에 두고 있다. 이들 작품은 주로 '양한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기녀의 가치를 긍정하는 존재와 부정하는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및 대화를 통해 기녀 존재 가치를 긍정하자는 메세지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후반부라 할 수 있는 뒤쪽에 배치된 6 작품, 즉 제8, 9, 10, 11, 12, 13편은 기방 애정담의 현실적 사례로 2쌍의 만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2쌍은 기방에서의 뇌봉전별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가슴 아파한다. 이는 당대 기방 남녀의 애정관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요컨대 편찬자는 『소수록』의 시작을 해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해주 명기 명선의 이야기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다음, 기녀의 가치와 관련된 이론적 논쟁이 중심이 된 작품들은 앞쪽에 배치하였고 이것의 적절한 예시가 되는 작품들은 뒤쪽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인 해주 기녀 40명을 애정을 담아 일일이 호명하여 마무리 짓고 있다. 따라서 『소수록』은 기녀 존재 가치를 긍정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14편에 서사-본사-결사라는 구조를 적용하여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수록』의 14편은 일관된 짜임새를 갖추고 있고 그 짜임새만 탄탄한 유기적 관련성을 맺은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닌, 주제 지향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14편 전체가 마치 한 편 같은 '서사편(제1편) - 본사편⑴(제2~7편) - 본사편⑵(제8~13편) - 결사편(제14편)'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런

208) 해주 교방의 40명 기녀의 이름을 수록하고 있는 『소수록』은 이전 시기 기생 시첩의 창작과 전승 그리고 유통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생 시첩은 기생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욕구를 남성 문인의 문자를 빌려 대행적 글쓰기를 통해 만든 시첩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생 집안에 의해서 전승 · 유통되기도 하였지만, 교방 내 기생 교육을 위해 지방 관아의 교방에서 보관 · 관리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우봉, 「조선시대 기생 시첩의 존재 양상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448~449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관점에서 14편은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고 작품 간 유기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서사편 - 이상적인 기녀상 제시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讚海營名妓명선)이라>가 해당된다. 『소수록』은 전체 내용이 기녀의 가치를 높이고 예찬하기 위한 의도로 편찬된 책이다. 편찬자는 이러한 편찬 의도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본받을만한 기녀상으로 절부 명선의 이야기를 맨 처음에 배치하여 단번에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기녀와 관련된 문제의식과 『소수록』 전편에서 보여지는 핵심 주장까지 논평 부분에 담고 있어서 『소수록』의 서사편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① 제1편 - 해주 교방의 자랑, 명선을 입전하다.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讚海營名妓명선)이라>는 '해주 명기 명선을 기리노라'라는 의미로 1830년생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해주 교방의 기녀 명선을 입전한 것이다. 이 작품은 작품의 양질 면에서 『소수록』 여타의 작품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기도 하지만 편찬자가 맨 처음에 이 작품을 배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의 경개를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명선은 불행한 가정환경에 태어나서 여자로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7~8세의 어린 나이에 기적에 오르고, 12세에 남자와의 잠자리를 강요당한다. 15세에 해주에서 명선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자신이 소원하던 남자를 만나지 못해 한탄한다. 16세에 고대하던 정인, 즉 새로 부임한 사또의 막내동생 김진사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명선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사또의 갑작스러운 경질로 인해 김진사도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헤어지던 날 김진사는 명선을 한양으로 부르겠다고 약속하고 떠난다. 김진사의 아이를 임신한 채 홀로 남겨진 명선은 김진사를 향한 일편단심과 절개를 다짐한다. 그리하여 손님도 받지 않고 새 사또의 수청까지 거절한다. 어머니가 이를 타일러보지만 명선은 듣지 않고 절개를 실천한다. 그 과정에서 명선의 김진사를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의 노래는 점점 더 깊고 슬퍼진다. 마침내 명선의 긴 기다림은 행복한 결말을 보게 된다. 명선은 김진사를 꼭 닮은 아들을 낳아 그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게 된다. 명선의 이야기는 그와의 상봉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작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서술자의 논평에서는 춘향이와 비교하여도 절부로서 손색이 없는 명선의 이야기를 통해 해주 교방의 후배 기녀들에게는 교훈과 자긍심을, 남성 객들에게는 기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작품을 썼다고 밝힌다.

편찬자는 해주의 관아를 중심으로 전승되었거나 혹은 구전되었을 명선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리하여 자기만의 스타일로 글을 바꾸어서 이 책에 수록하고 있다. 30면에 달하는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에 <춘향전>과 같은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담아 단번에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밝히고 있다. '서술자의 논평' 부분을 재인용하여 편찬자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ᄃᆡᄀᆡ 너이 죵긔한 바 화안월ᄐᆡ와 난지혜질은 화쳥구비을 살지다 나물할 거시요. 셤셤죽순과 칙칙금면은 한궁비련을 경쳡다 우살지라. 알운쳥가와 편쳔포무난 가이 일셰을 긔우릴 거시오. 쳥ᄃᆡ단군과 유요옥질이 가이 쳥누긔관 되미 졍이 붓그렵지 아니ᄒᆞ니 쇼활다졍한 쳔셩작인이며 월미셩안은 중낭의 ᄋᆡ을 ᄉᆞ르며 교언영식은 이랑의 마음을 썩여 화류와ᄉᆞ의 아무라 ᄒᆞ무로 반싱을 지닐가 ᄒᆞ여드니, (<소1, 31~32>)

2
능이 연화을 버셔나 안연이 졀부의 일을 무란이 효칙하고 만일 셔진 시의 싱ᄒᆞ여든들 금곡 예졀을 녹주의게 ᄉᆡ양ᄒᆞ며 아국 츈향의 일홈이 홀노 악부의 올나실이요. 진실노 홍인의 부복낙간과 예양의 탄탄위아난 유쇽 ᄉᆞᆼᄉᆞ라. 가이 죱분 빅희와 환비 ᄃᆡ가로 빗틀 다톨 듯. 그 졀을 의논할진ᄃᆡᆫ 수양고봉을 엇지 놉다 이르며 그 뜻슬 싱각할진ᄃᆡᆫ 연평ᄃᆡ히을 엇지 푸르다 ᄒᆞ리요마난, (<소1, 32~33>)

3
가셕할ᄉᆞ 형ᄉᆞᆫ 빅옥이 은독의 감최이고 능언잉무가 농 쇽의 드렷난 듯. 인싱 ᄉᆞ셰의 너의 옥부향신을 졉지 못ᄒᆞ며 단졍 옥노을 맛보지 못할진ᄃᆡᆫ 셰ᄉᆞᆼ의 난 것시 허수ᄒᆞ고 죽어도 너을 말ᄆᆡ아마 죽지 못한직 쥭어도 죽난 거시 가련ᄒᆞ도다. 만일 벽셩 호긱의 일분 다졍한 지ᄌᆞ가 이슬진ᄃᆡᆫ 널노 말ᄆᆡ아마 ᄉᆞᆼ심젼망할 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멧멧치 될 중 알이요마난 셰강쇽박ᄒᆞ고 인불여고라. 져의 범ᄐᆡ육골과 쇼간치히로 지졍슈취와 봉친합의을 아난 지 뉘라 ᄒᆞ리요. 싱각난 ᄇᆡ 역불과졍죵공방이요. 취ᄒᆞ은 ᄇᆡ 또한 순홍치빅이라. 황혼낙일ᄋᆡ 목양ᄒᆞ난 아희가 왕숀인 줄 뉘려 알며 졀아산ᄒᆞ 나물 키난 여ᄌᆞ 그 경국지식인 줄 뉘려 알이. 빅니히의 뜻지 굿ᄒᆞ여 진국의 잇지 안이ᄒᆞ나 그 아난 ᄌᆞ 업슴이라 ᄒᆞ거니와, (<소1, 33~34>)

4
ᄃᆡ져 엇지ᄒᆞ면 니널노 ᄒᆞ여금 후셰에 녹을 먹고. 그 인국을 ᄇᆡ반ᄒᆞ며 유중촌혈ᄒᆞ난 음부 출녀를 붓그럽게 ᄒᆞ노라. (<소1, 34>)

서술자는 1에서 자신이 기녀에 대해 가졌던 일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녀는 타고난 외모의 아름다움과 재예 그리고 말솜씨로 기방을 찾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과 함께 평생 유흥을 즐기면서 노류장화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다고 한다. 이것은 기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다수 남성의 인식과 서술자 자신의 인식도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한 것이다.

2에서 서술자는 한 기녀가 기녀답지 않게 정인을 향한 절개를 지킨 사례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기녀는 바로 명선으로 서술자는 명선을 절개와 관련된 역대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이것은 기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남성들에게 기녀의 우월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이상적인 기녀상으로 명선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3에서 서술자는 명선이와 같은 훌륭한 기녀가 있음을 몰라주는 당시 세태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형산의 백옥이 궤에 감추어지고 말하는 앵무새가 새장 속에 갇힌 것과 같다고 한다. 그리고 명선이와 마찬가지로 해주 교방의 기녀들 또한 가치 있는 존재들인데 어리석은 남성들이 그것을 몰라준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기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자신이 명선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밝힌 것이다.

4에서 서술자는 청자이자 일차 독자인 해주 기녀들을 향해 걱정과 경계를 동시에 한다. 서술자는 해주 기녀들을 향해 명선이처럼 좋은 짝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과 명선의 이야기를 통해 문란한 행동을 일삼는 일부 기녀들을 경계하려 했다고 말한다.

1~4에는 편찬자가 기녀와 관련해서 느꼈던 문제의식과 그가 주장하고자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대다수 남성은 기녀를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후자는 명선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녀는 매우 훌륭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편찬자의 이러한 문제의식과 주장은 이 작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3편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먼저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를 제시하여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지 그 이유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기녀에 대한 편찬자의 주장과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만한 이야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서사편'으로 볼 수 있다.

(2) 본사편(1) - 기녀 가치 논쟁

모두 6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작품은 제2편 <중안호걸(長安豪傑)이 회양ᄒᆞᆫ당(會養閑堂)ᄒᆞ여 여슈ᄉᆞᆷ명긔(與數三名妓)로 논충가지미(論娼家之味)라>, 제3편 <죵순(從順)이라>, 제4편 <찬일도미ᄋᆡ(讚一道美兒)타가 탄미문감탄셩(歎未聞感歎聲)이라>, 제5편 <ᄃᆡ다졍ᄉᆡ자(對茶亭侍者)ᄒᆞ여 작구압가인셔(作舊狎佳人書)라>, 제6편 <답중(答狀)> 그리고 제7편 <수ᄉᆞᆷ셩충(數三成娼)이 회양한당(會養閑堂)ᄒᆞ여 탄화로졉불ᄂᆡ(歎花老蝶不來)라>이다. 이 중 다수의 작품은 『소수록』의 공간적 배경인 '양한당'과 관련이 있다. 해당 작품들은 기녀의 가치를 긍정하는 존재와 부정하는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및 대화를 통해 서사편에서 했던 편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독자들이 가지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사편에 이은 『소수록』의 본사편(1)으로 보도록 하겠다.

② 제2편 - 기녀 존재 가치와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

제2편 <중안호걸(長安豪傑)이 회양ᄒᆞᆫ당(會養閑堂)ᄒᆞ여 여슈ᄉᆞᆷ명긔(與數三名妓)로 논충가지미(論娼家之味)라>는 '장안호걸이 양한당에서 모여 3인의 명기와 더불어 기생집의 맛을 논하다'라는 뜻으로 장안호걸과 3인의 명기가 기녀와 기방유흥의 가치에 대해 논쟁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논쟁은 '장안호걸→ 명기1(옥소)→ 명기2→ 명기3→ 장안호걸'의 차례로 이어진다. 먼저 장안호걸이 기녀는 부정적인 존재라고 비판하고 그런 하찮은 존재가 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들을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라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한다고 질책한다. 이에 먼저 명기 옥소가 나서서 반박한다. 역대 명기들의 구체적인 업적 나열을 통해 장안호걸의 기녀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난하는 남성들 역시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비판한다. 이어서 '명기2'가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비록 몸을 파는 창기이긴 하지만 그들도 아무나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기녀가 정말로 사랑하는 남자는 애부이고 돈이 많고 풍채가 좋아 기녀들에게 인기가 많은 남자는 정부이며 서로 그리워하지만 잘 만나지 못하는 사이는 미망이라고 한다. 또 기녀를 지성으로 섬기는 남자를 화간이라고 하고 기녀에게 미혹된 바보 같은 남자는 치애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전대 소설 <이와전>, <금병매>, <서상기>, <매유랑독점화괴>,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명기3'은 믿을 수 없는 남성과의 사랑보다는 돈이 더 가치 있다고 하면서 남성들을 향해 기방 유흥의 맛에 흠뻑 빠져보라고 독려한다. 지켜보던 청중들은 명기들의 훌륭한 논변을 칭찬하고 기녀들의 유혹에 동조한다. 이때 장안호걸이 다시 등장하여 기녀들을 응원하는 청중들을 향해 마지막 충고를 던진다.

> 고금의 격언이라/ 죠간이 층션ᄒᆞ니/ 쵸불입이 제갈양이라/ 영웅이 뉘이시며/ 미혼단은 니모로나/ 함인ᄒᆞ난 항은 이거시라/ 근묵ᄒᆞ면 거머지고/ 근주ᄒᆞ면 북난다니/ 근이원지 ᄉᆞᆼ칙이라 (<소2, 52>)

장안호걸은 흥분한 청중들을 향해 <삼국지연의>의 고사를 예로 들어 조조가 유비의 촉나라를 쉽게 침범하지 못한 것은 모두 제갈량이 있어서라고 말한다. 그리고 기녀는 남성들을 수렁에 빠뜨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방 놀음은 적당히 즐기는 것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장안호걸의 최종 발언은 시작 부분에서 보여주었던 기녀를 향한 거침없는 비판과 비교하면 조금은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녀를 여전히 "함인ᄒᆞ난 항"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기녀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작품은 하나의 주제 또는 화제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논쟁을 하는 토론 형식의 수필이다.[209] 여기서 장안호걸은 기녀에 대해 극단

209) 정선태,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소명출판, 1999, 164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일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3인의 명기는 이런 인물과의 논쟁을 통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어낸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러한 논쟁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밑줄 친 부분의 서술자의 입장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서술자는 논객 간 논쟁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서술할 뿐 직접적으로 어느 쪽의 입장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명기들의 논박에 이 작품 분량 중 90% 가까이를 할애한 것을 보면 편찬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녀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서사 전략은 장안호걸과 같이 기녀를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녀의 입을 통해 기녀의 우월한 가치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기녀 독자들의 공감과 호응까지 얻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기녀 존재를 긍정하자는 서사편에서의 편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독자들이 가지는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제시된 근거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녀 가치 논쟁'을 다룬 『소수록』의 본사편(1)으로 볼 수 있다.

③ 제3편 - '기녀 보물론'을 따르라

제3편 <죵순(從順)이라>는 '순순히 따름이라'라는 뜻으로 '갑'과 객이 등장하여 기녀 존재 가치에 대해 논쟁하는 내용이다. 논쟁의 구성은 매우 간단하다. '갑'이 먼저 기녀 존재에 대해 비판을 하고 이어서 객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한 후 기녀는 천하의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결론짓는다.[210]

1

ᄃᆡ져 ᄌᆞ고이ᄅᆡ로 가인 미희을 ᄭᆞᆺ셰 비ᄒᆞ며, 혹 옥의 비ᄒᆞ며, 혹 금의 비ᄒᆞ며, 혹 향난의 비ᄒᆞ며, 혹 셜중숑국의 비ᄒᆞ며, 심지여 운월셩ᄉᆞ의 비ᄒᆞ여스나, 고금은 수이ᄒᆞ니 그 일홈은 한갓지라. 진약 그 고우미 ᄭᆞᆺ과 갓트며, 그 말오그미 옥과 갓튼며, 그 향그러오미 향난과 갓트며, 그 닝낙ᄒᆞ미 숑쥭셜국과 갓트며, 그 표일춘유ᄒᆞ미 진실노 그 운월셩신과 갓ᄒᆞ여, 그리 이른 말인지, 위ᄌᆞ표양ᄒᆞ여 이른 말인지, 이으관지ᄒᆞ면, 그 승연구구함과 향안암탐ᄒᆞ미 불과 유유유탕ᄒᆞ난 호리요, 분분무량한 모쵸리라. 졔 불과 망국ᄒᆞ난 요물이요, 함인ᄒᆞ난 굴암이라. (<소

210) 정병설은 이 작품에 대해 "이 글은 '갑'의 말을 '객'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제목이 '죵순이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갑은 바로 기생 종순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은 기생 종순의 말에 남자 손님이 답하는 글"이라고 하면서 "기생 종순의 자기비판은 기실 손님의 두둔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기방어"라고 해석했다. 정병설, 앞의 책, 20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52~53>)

2

긱월, 우습다, 그ᄃᆡ 말이 편협ᄒᆞᆫ 여ᄌᆞ로다. 꼿셰 비ᄒᆞ물 과타 ᄒᆞ나 꼿시 고으나 불과 불그면 불고 희면 흘 다름니지 엇지 그 요요년년ᄒᆞᆫ 여유빅안과 도화양협에 비ᄒᆞ며, 옥의 비ᄒᆞ믈 옥니 과타 ᄒᆞ나 옥니 희면 희고 ᄎᆞ면 출 다름이지 엇지 그ᄐᆡ 업고 교교하여 온유겸양ᄒᆞᆫ ᄃᆡ 비ᄒᆞ며, 금이 귀타 ᄒᆞ나 불과 산을 킈여 어드면 견강할 다름이지 엇지 구ᄒᆞ여 엇지 못ᄒᆞ고 능유능강한 옥모월ᄐᆡ의 비ᄒᆞ며, 향난이 향그럽다ᄒᆞ나 …(중략)…ᄯᆞᆫ난 망국ᄒᆞ난 요물이라, 함인ᄒᆞ난 굴함이라 ᄒᆞ나 긔 역 쇽ᄌᆞ의 우언이라. 주불취인 인지취라 식불미인 이ᄌᆞ미을 가인 미희의 홀노 함이 안이라. …(중략)…이러무로 호긱과 중부의 호화을 도을 다름이니라. 이러무로 천ᄒᆞ디보난 미식인가 ᄒᆞ노라. (<소3, 53~56>)

1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화자 '갑'이 기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갑은 기녀 존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기녀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꽃, 옥, 금, 난초, 눈 속의 소나무와 대나무, 구름, 달, 별 등에 비교하였는데, 자신은 그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갑은 기녀에 대해, 사람의 혼을 빼는 여우, 음란하게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메추리,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물 그리고 사람을 빠뜨리는 수렁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기녀 요물론'을 주장한다. 갑이 가진 부정적인 기녀 인식은 앞 편의 장안호걸과 동일하다. 이 작품에서 따로 '갑'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주제를 두고 논쟁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을 보면 아마도 '갑'은 제2편의 장안호걸일 것으로 짐작된다.[211]

2의 두 개의 밑줄 친 부분은 '객'이라는 화자가 '기녀 요물론'을 주장하는 갑을 향해 한 말이다. 객은 기녀를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갑을 향해 '편협한 소견을 가진 여자'와 같다고 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답답한 사람들이 하는 아둔한 말'이라고 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리고 '갑'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한 후, 최종적으로 "이러무로 천ᄒᆞ디보난 미식인가 ᄒᆞ노라"라고 하여 '가인천하보물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죵순이라'는 객의 '가인천하보물론'을 '갑'과 독자 모두가 따르라는 의미의 '從順'이다.

211) 기존 연구에서는 '갑'을 기생 '종순'으로 보았고 이 작품을 기생의 자기비판이 담긴 서사라고 보았다. 정병설, 앞의 책, 203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작품은 '갑'과 객을 등장시켜 제2편에 이어 기녀 존재 가치에 대해 그들이 벌이는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기녀 존재 가치를 긍정하자는 편찬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제2편과 마찬가지로 '기녀 가치 논쟁'을 다룬 『소수록』의 본사편(1)으로 볼 수 있다.

④ 제4편 - 기녀의 외모와 재예를 예찬하다

제4편 <찬일도미인(讚一道美兒)타가 탄미문감탄셩(歎未聞感歎聲)이라>는 '한 도(道)의 미인을 찬양하다가 감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 탄식하노라'라는 뜻으로 남성 화자가 어떤 기녀를 보고 그녀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가무의 탁월함에 대해 예찬하는 내용이다.

> 션연ᄒᆞ다 미ᄐᆡ도야/ 아로식인 옥이로다/ 중단이 격중ᄒᆞ고/ 체지가 합도로다/ 달갓치 둥근낫슨/ 복디가 완연ᄒᆞ고/ …(중략)…/ 단아 포셕은/ 눈가운ᄃᆡ 민화로다/ 보리 경쳡은/ 금누 반비요/ 무수 젼젼은/ 한궁 비련이라/ 가셩은 쳥아ᄒᆞ여/ 단구의 봉이울고/ 어음은 징징ᄒᆞ여/ 옥반을 울니난듯/ 추파을 일젼ᄒᆞ면/ 중부가 질식ᄒᆞ고/ 향구을 잠기ᄒᆞ면/ 호걸이 낙박이라 (<소4, 56~57>)

남성 화자는 기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한 번 보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 뚜렷하고 얼굴은 복스럽고 몸매는 딱 적당하다고 말한다. 생략된 부분에서는 기녀의 윤기 나는 검은 머리, 선이 예쁜 귀밑머리, 샛별 같은 까만 눈동자, 백옥 같은 흰 귓불, 앵두 같은 입술, 가지런한 하얀 이, 죽순처럼 고운 손가락, 작고 앙증맞은 예쁜 발, 끊어질 듯한 가는 허리 등을 나열하여 기녀를 예찬한다. 그리고 단정하게 앉은 기녀의 모습은 눈 가운데 매화와 같고 가벼운 걸음걸이는 금으로 만든 연꽃 위를 걸어 다녔던 반비(潘妃)와도 같으며 노랫소리는 봉황의 울음소리처럼 맑고 청아하다고 한다. 또한 기녀의 목소리는 옥쟁반을 울리는 듯하고 그녀가 보내는 은근한 눈빛은 마주하면 숨이 멎을 듯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가 말이라도 걸어오게 되면 대다수 남성은 모두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작품은 바로 앞편에서 객이 결론 지은 "이러무로 쳔ᄒᆞ디보난 미식인가 ᄒᆞ노라"라고 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앞 편의 주장을 보완하고 있다. 남성 화자가 칭찬한 이 기녀는 옥소선일 것이라고 창작 배경을 다루는 장에서 추정한 바 있다. 이 작품은 실재하는 장안 제일 기녀를 세세히 묘사하여 독자들에게 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녀의 우월한 가치를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편찬자의 답답한 심정은 제목을 통해서 드러난다. 자신은 기녀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한탄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남성 화자의 입을 통해 기녀 외모의 아름다움과 재예의 탁월함을 예찬하여 보여줌으로써 편찬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제2, 3편과 마찬가지로 '기녀 가치 논쟁'을 다룬 『소수록』의 본사편(1)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6편 - 객의 잠자리 구애와 기녀의 거절

제5편 <ᄃᆡ다졍ᄉᆡ자(對茶亭侍者)ᄒᆞ여 작구압가인셔(作舊狎佳人書)라>는 '다정의 시자를 마주하여 전에 알던 기녀에게 편지를 쓰노라'라는 의미로 한 남성이 기녀에게 보내는 잠자리 구애의 편지글이다. 여기에는 기방을 드나드는 경박자(輕薄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에게 유독 차갑게 굴면서 잠자리를 허락하지 않는 기녀에게 온갖 구애의 수사를 나열하여 자신과 한 번만 자달라고 떼를 쓰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6편 <답중(答狀)>은 '답장'으로 남성의 편지를 받은 기녀가 쓴 답장이다. 기녀는 자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물로만 취급하는 남성을 향해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두 작품은 단순히 남성 객이 구애를 하고 기녀가 거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편찬자는 제5편의 남성 객을 제시하여 편지글을 통해 기녀가 싫어하는 남성 유형인 "투향하는 무리"와 "지정식취와 방친합의를 모르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 객:
> 노류중화로 인긔가졀은 호긱의 ᄉᆞᆼᄉᆞ로다. ᄉᆞᆷ연을 경영ᄒᆞ여 화괴랑 득졈키난 졍원화의 진심이라. (<소5, 58>)

> 기녀:
> 미류랑 졍원화을 일너스나, 진약 미류랑 갓치 본졍을 긔우리면, 졍원화 갓치 쥰마를 쥭일진ᄃᆡ, 단심이 쳔신을 격동ᄒᆞ려던, ᄒᆞ물며 장낭부이랑쳐ᄒᆞ난 긔물를 염예ᄒᆞ여 말ᄉᆞᆷ이 이 갓치 번거ᄒᆞ시오? …(중략)… 충긔라 ᄉᆞ람을 이 갓치 수이 아라 노류중화라 ᄒᆞ엿난지. 나을 뉘 굿ᄒᆞ여 충여 아니라 ᄒᆞ 리 업시리, 굿ᄒᆞ여 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을 거지라 ᄒᆞ여든 공편한 거시 아니여날, 노류라 중화라 지명한 거슨 무엇슬 위ᄒᆞ며 누구을 잇겨 ᄒᆞ신 말숨이신지. (<소6, 63>)

기녀와의 하룻밤 잠자리가 목적인 남성 객은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노류중화로 인긔가졀은 호긱의 숭ᄉᆞ로다”라고 하면서 “노류중화”, 즉 “창기”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그동안 자신의 구애를 거절해 온 기녀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낸다. 또 “숨연을 경영ᄒᆞ여 화괴랑 득졈키난 정원화의 진심이라”라고 하면서 전고를 인용하여 자신의 유식함을 뽐내고자 하였지만 <매유랑독점화괴>의 전고를 활용하면서 <이와전>의 정원화라고 착각하여 적어 놓는다. 이에 기녀는 틀린 전고를 바로 잡고 자신을 여인이 아닌 창기로 대하는 남성을 향해 달변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다.

객:
옥빈홍안 묘한 ᄐᆡ도 ᄂᆡ 간중의 칼이 되고, 화안셩모 말근 죠격 미혼하난 약이른 듯, 금옥졀ᄀᆡ 잠굴ᄒᆞ여 양ᄃᆡ운우 허락ᄒᆞ면, 비취금 원낭침의 옥비을 한게 ᄒᆞ고 향신을 접할진ᄃᆡᆫ 함수추향과 옥쇼지셰연을 ᄂᆡ 역시 우실연만, 일표한 그 셩정의 난봉 오작 협의ᄒᆞ여 닝연이 물일진ᄃᆡᆫ, 춘풍 호졉이 실시ᄒᆞ미 이슬여 듯. (<소5, 60>)

기녀:
풍유 반셰의 이붓치 간특한 말숨을 쳐음 드름이 아니로되, 쳐음은 그런가 역여더니, 조금ᄒᆞ여 지ᄂᆡ보니, 이 불과 여풍과이라. 굿ᄒᆞ여 죽난 이도 못 보옵고, 굿ᄒᆞ여 치병ᄒᆞ신 이도 못 보와ᄉᆞ온즉, 죠련이 그 양반 말숨이라 진실한 줄을 어이 졍ᄒᆞ오며, 옥빈홍안이라 화안셩모라 ᄒᆞ신 말숨은 지졀층금이 아니면 이셕비옥이온 듯 춤이 불안ᄒᆞ오며, 긔산이 아니여든 무숨 봉황이라 오죽이라 말숨은 과이 황숑ᄒᆞ오. (<소6, 66>)

남성 객은 기녀의 성적 매력을 한껏 칭찬하면서 기녀에게 자신과 하룻밤을 함께 해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탁을 기녀가 거절한다면 몹시 실망이 클 것이라고 한다. 이에 기녀는 기방을 드나드는 남성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는 “간특한 말숨”이라고 하면서 역시 달변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객:
만일 오호지탄이 이실진딘, 계로 말미아마 죽난 나도 닉연이와, 빅인이 유아ᄉᆞ로, 일분인 인졍이 이슬진딘, 항여 후회ᄒᆞ난 마음이 업지 아니할 듯, ᄉᆞᄌᆞ난 불가부싱이라. 불힝이 셰ᄉᆞᆼ을 바릴진딘 추회ᄒᆞ면 무엇ᄒᆞ나. (<소5, 61>)

기녀:
게 죽으면 죽을 다름이요 죽난 그 ᄉᆞ람이나 스ᄉᆞ로 불ᄉᆞᆼᄒᆞ엿지 형젹 업난 일의 무엇시 닉게 치칙이 이슬이라 언연이 ᄉᆞ람을 공동ᄒᆞ여 게시며, 진실노 말미아마 쥭난다 하여든 ᄌᆞᆼ부의 긔십으로 인병치ᄉᆞ란 말ᄉᆞᆷ이 비록 ᄉᆞ훗라도 임마의 ᄯᆞᆷ이 나려든, 무엇시 빗난 말ᄉᆞᆷ이라 이 갓치 ᄉᆡ담을 필지 어겨 ᄒᆞ엿난지. (<소6, 67>)

남성 객의 기녀를 향한 구애는 간절하다 못해 협박조를 겸한다. 남성 객은 만약 자신이 상사병으로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기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기녀는 당신의 죽음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의 구애를 냉정하게 거절한다.

두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구애하는 남성과 거절하는 기녀의 애정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구애를 거절하는 기녀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남성들이 자신들을 창기가 아닌 여인으로서, 동등한 인간으로서 대해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들 작품은 서사편에서 서술자가 해주 기녀들을 향해 “져의 범ᄐᆡ육골과 쇼간치ᄒᆡ로 지졍슈취와 봉친합의을 아난 ᄌᆡ 뉘라 ᄒᆞ리요.”라고 하면서 대다수 남성들이 기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몰라준다고 비판한 내용의 근거가 되는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녀가 원하는 이상적인 만남이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5편의 어리석은 남성의 모습을 통해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제2, 3, 4편과 마찬가지로 ‘기녀 가치 논쟁’을 다룬 『소수록』의 본사편(1)으로 볼 수 있다.

⑥ 제7편 - 성창들의 탄식

제7편 <수ᄉᆞᆷ셩ᄎᆞᆼ(數三成娼)이 회양한당(會養閑堂)ᄒᆞ여 탄화로졉불ᄂᆡ(歎花老蝶不來)라>는 ‘3인의 성창이 양한당에 모여 꽃이 시들어 나비가 날아들지 않음을 탄식하노라’이다. 양한당에 모인 3인의 성창이 나이 들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신세 한탄한 것을 기록한 가사체 수필이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녀들은 자신들을 찾지 않는 남성 객들을 향해 믿을 수 없는 남성들과의 '사랑'보다는 '돈'을 쫓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기녀의 가치가 오직 젊고 아름다운 외모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을 향한 원망이 담겨있고 늙은 육체 밖에 남은 것이 없는 선배 기녀들의 초라한 삶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껴왔었던 그녀들 속에 내면화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이다.

> 문젼이 닝낙ᄒᆞ니/ ᄎᆞ즈리 뉘이스리/ 비취금이 쳐량ᄒᆞ고/ 원앙침이 무식이요/ 연지분이 가증ᄒᆞ니/ 화류쳬경 씰ᄃᆡ업다/ 일노쳥ᄉᆞᆫ 져문날의/ 밤되난 것 민망ᄒᆞ고/ 고등잔월 요젹시의/ 쳑영숭죠 가련ᄒᆞ다 (<소, 73>)

노기는 한탄한다. 자신의 기방은 찾는 손님이 없어 썰렁하기만 하고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고운 이부자리는 무색하고 연지분과 거울도 이제는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맞이하는 자신의 밤은 쓸쓸하고 외롭다고 한다. 이렇듯 명기라 불린 그녀들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보인다. 꽃처럼 빨리 시들어버리는 미모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 가치마저 사라져버린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세를 한탄하는 일밖에 없다.

모인 장소가 제2편과 같은 양한당이고 등장하는 기녀의 숫자도 3인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제2편의 명기들과 동일인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뛰어난 미모와 재예로, 한때 모든 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지만 젊음과 미모가 사라져버린 지금, 그들의 경륜과 연륜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나이든 창기로 존재할 뿐이다.[212] 이는 기녀의 가치가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을 위무하는 데만 그 효용 가치가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작품은 노기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기녀 존재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끔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제2, 3, 4, 5, 6편과 마찬가지로 '기녀 가치 논쟁'을 다룬 『소수록』의 본사편(1)으로 볼 수 있다.

---

212) "기녀는 젊음이 시들면 풍류방은 옮겨가고, 기생은 원숙해진 풍류를 펼칠 공간을 잃어버린다. 풍류방이 되지 못하는 기생의 기방은 점점 초라한 목로주점의 형태로 변한다." 박영민, 「노기의 경제 현실과 섹슈얼리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68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본사편(2) - 기방 애정담

모두 6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당 작품은 제8편 <청누긔우긔(靑樓奇遇記)라>, 제9편 <단충화답(短唱和答)이라>, 제10편 <답죠(答調)라>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靑龍佳人寒窓歌)>, 제12편 <단충(短唱)이라>, 제13편 <답(答)이라>이다. 6편이지만 3편씩 묶어서 보아야 하는 연작 구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작품은 『소수록』의 주제의식과 관련해서 본사편(1)을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돈된 표본적 사례로서 두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소수록』의 본사편(1)에 이은 본사편(2)으로 보도록 하겠다.

⑦ 제8+9+10편 - 객과 기녀의 상사

제8편 <청누긔우긔(靑樓奇遇記)라>는 '청루에서 맺은 기이한 만남이라'는 뜻으로 고향을 떠나 북녘땅을 떠돌던 한 남성이 그곳에서 만난 기녀와 사랑하고 헤어진 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1

죠화옹의 유의한 빅 공교함도 공교할ᄉᆞ, 고향의 ᄯᆞᆺ슬 일고 막북의 더진 몸이 졍마원설의 잇 ᄯᅡ의 유락ᄒᆞ니, 신셰을 ᄌᆞ탄ᄒᆞ며 부명을 원망터니, 홍엽이 ᄆᆡ피 되고 월노가 인도ᄒᆞ여, 무ᄉᆞ의 구름이 이러나고 보림사의 ᄭᅩᆺ긔름ᄌᆞ가 동ᄒᆞ니, 이 짐짓 남교 ᄇᆡ힝이요, 동졍 낙셕이라. 유한의 쳔ᄐᆡ봉션과 됴완의 그린 계집이 어이 이의셔 더ᄒᆞ며 나의 부러할 ᄇᆡ리요. (<소8, 76>)

2

ᄃᆡ져 ᄉᆞᄉᆞ의 득의 호긱도 ᄉᆞ랑이 그 엇더ᄒᆞᆫ지 ᄉᆞᆼᄉᆞ시를 지여거던, ᄒᆞ물며 쳘니타향에 다슈다병한 긱이 어ᄂᆡ 곳을 ᄉᆡᆼ각ᄒᆞ며 어ᄂᆡ 닐에 마음을 붓칠난지. 심두에 얼킨 거슨 다만 그ᄃᆡ ᄉᆡᆼ각이요, 안젼에 버린 것신 다만 그ᄃᆡ 형용이라. 일시을 이별ᄒᆞ며 일각을 써나은 것슨 가련코 졀통ᄒᆞ려든, ᄒᆞ물며 천ᄋᆡ일벽의 긔음업난 이별을 당ᄒᆞ니 쳔ᄒᆞᄉᆞ 비록 써나면 합ᄒᆞ고 합ᄒᆞ면 써나난 거시 ᄌᆞ연한 이긔연이와 뇌봉젼별이 유쇽여ᄉᆞ라. (<소8, 79>)

3

의심컨딘 홍ᄉᆞ 중의 쳥죠 인도ᄒᆞ미 업시니 엇지 젹ᄒᆞ한 항아을 만나스며, ᄉᆞᆼᄉᆞᄒᆞ려 ᄒᆞ나 위고의셔 쳔봉명의 아니니 엇지 여교셔을 만나슬이요. 진실노 호졉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주와 중주지호접을 니 역시 분별치 못할 듯. (<소8, 81~82>)

1은 이 작품의 시작 부분이다. 남성 객은 고향을 떠나 북녘땅에서 겪은 타향살이의 고단함으로 인해 자신의 운명을 크게 비관했었다고 말한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마음이 맞는 기녀를 만나 사랑하고 위로받으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뜻밖의 사건은 월하노인의 뜻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한다..

2는 남성 객과 기녀가 헤어진 후의 상황이다. 남성 객은 기녀와의 이별 후 그녀를 향한 그리움의 감정을 글을 쓰는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만남과 이별은 자연의 이치라서 자신도 그런 과정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남성 객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상사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

3은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다. 남성 객은 기녀와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운명과도 같았던 그녀와의 만남을 장자의 호접몽에 비유하며 이야기를 마친다.[213] 이 작품은 편지 형식을 차용하여 기녀와의 행복했던 만남을 추억하여 기록한 남성 객의 상사기다.

제9편 <단충화답(短唱和答)이라>는 '시조로 화답하노라'이다. 이 작품은 제8편과 제10편의 남녀가 상사의 감정을 시조로 화답한 것이다.

제10편 <답죠(答調)라>는 '답하는 노래라'이다. 이 작품은 제8편의 남성 객에게 편지를 받은 기녀가 그를 상사의 감정을 노래로 답한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객과 기녀는 기방에서의 짧은 만남을 잊지 못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가슴 아픈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만남은 제1편의 명선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언젠가 자신을 창기가 아닌 여인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이라는 당대 기녀들의 애정관을 이들의 만남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기방 남녀의 실제 애정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본사편 (2)이라 할 수 있다.

213) 정병설은 이 부분의 해석을 남성이 "내가 파랑새의 인도를 받지 못했으니 선녀를 만났는지 어찌 알겠으며 위고 만큼 훌륭한 인물이 못되니 명기를 만났는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했다. 이를 통해 붙잡는 기생을 뿌리치는 영원한 절교의 편지로 보았다. 정병설, 앞의 책, 266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⑧ 제11+12+13편 - 청룡가인과 청주선달의 상사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靑龍佳人寒窓歌)>는 '청룡가인의 유랑 노래'라는 뜻으로 안성 청룡사 사당이 청주선달과의 짧은 만남 후에 그를 잊지 못해 다시 만나줄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형식의 가사다.[214]

청룡가인은 청주선달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 청룡가인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돌아다니며 몸을 파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늘 소망했던 일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정인을 만나 남은 생을 함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안성을 떠나 청주에 들른 어느 날 그녀는 드디어 소망하던 정인(청주선달)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청주선달은 짧은 만남에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내 그와 헤어지게 되었고 헤어진 후 그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다시 만나고자 하는 생각에서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제12편 <단충(短唱)이라>는 청룡가인이 청주선달에게 보내는 상사의 노래이다.

제13편 <답(答)이라>는 청룡가인에게 편지를 받은 29세 청주선달이 쓴 답장이다. 선달은 청룡가인을 향해 자신도 청룡가인과 같은 심정이라는 말로 편지를 시작한다. 이어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 몇 가지 사업을 거쳤지만 맞지 않아 그만두었고 십여 년을 놀이판에서 보냈지만 이제껏 마음이 맞는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청룡가인과의 만남은 자신에게도 운명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장은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서서히 재회의 때를 기다려보자고 한다. 마지막에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청룡가인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서로 같음을 확인했으니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215]

편찬자는 기방에 떠도는 애정담을 보거나 듣고서 편지 형식을 차용하여 이처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짧은 만남 후 긴 이별에 가슴 아파하는 남녀의 모습을 연작구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이들 작품 역시 앞의 제8, 9, 10편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창기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사랑해 주는 남성을 만나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이라는 당대

214) 정병설은 이 작품을 청룡가인이 청주선달을 향해 자신을 첩으로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라고 보았다. 정병설, 앞의 책, 234면.

215) 정병설은 청주선달이 답장에서 청룡가인의 호소를 향해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다. 위의 책, 265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녀들의 애정관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앞의 제8, 9, 10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본사편(2)이라 할 수 있다.

(4) 결사편 - 호명의 의미

해당 작품은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海營名妓點考呼名記)라>이다. 이 작품은 서사편(1), 본사편(1) 그리고 본사편(2)를 통해 기녀의 우월한 가치에 대해 이미 주장하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여 기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결사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겠다.

⑨ 제14편 - 해주 감영의 기녀 40명을 호명하다.

제14편 <히영명긔졈고호명긔(海營名妓點考呼名記)라>는 '해주 감영의 기생 점고라'이다. 이 작품은 해주 감영의 기녀 40명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지은 것이다.

기녀는 관에 소속된 노비이므로 명부가 있고 수시로 인원 점검을 받는다. 이때 기생의 명부를 기생안[216]이라고 하고, 인원을 점검하는 것은 점고(點考)라고 한다. 이 기생점고는 보통 이름과 연관된 한시나 고사, 유래, 관용어 등을 앞서 내세워 부른다. 그러나 『소수록』의 호명기는 점고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호명기와는 다르다. 『소수록』의 호명기는 이름의 각 글자를 가사 시행의 첫 글자로 삼아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서 지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호명기와 차별되고 아울러 가사체로 쓰인 흔치 않은 호명기라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13편을 통해 기녀에 대해 사회가 가졌던 편견과 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기녀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와서는 그 기녀들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여 기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호명 의식(儀式)은 기녀들로 하여금 기녀로서, 여성으로서, 인간

216) '기생안(妓生案)'은 '관노비안(官奴婢案)'의 '관기(官妓)', '기생질(妓生秩)', '주탕비(酒湯婢)' 등으로 명명된 기생기록 부분을 박영민이 처음 명명한 것이다. '관노비안'은 기본적으로 관노비의 이름과 역을 기록하였고, 추가적으로 동기(童妓)의 가관(加冠), 동기와 장기의 구분, 기생의 연령, 기명과 기명 수식어 등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박영민, 「기생안을 통해 본 조선후기 기생의 공적 삶과 신분」,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230~231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로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인 셈이다.[217] 따라서 결사편(제14편)의 역할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소수록』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3단 구성을 통해 드러나는 14편의 주제 지향과 유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소수록』은 전체적으로 기녀의 가치를 높이고 예찬하기 위한, 즉 기녀 존재 가치를 긍정하자는 그런 취지나 의도로 편찬된 책이다. 이러한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서사편(제1편)'에서는 대표성을 띤 명선이 얘기를 부각시켜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어놓고 있다. 그리고 논평 부분에서는 기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녀의 우월한 가치를 알아주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지는 본사편(1)은 이러한 주장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나열하였다. 제2편에서는 장안호걸과 명기들의 치열한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기녀의 우월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하였고, 제3편에서는 두 명의 논객이 벌이는 논쟁의 과정을 통해서 '가인천하보물론'이라는 결론을 얻어내어 앞 편에서 시작된 논쟁을 완결하였다. 제4편에서는 기녀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재예의 탁월함을 예찬하여 제2, 3편의 논거를 보강하였다. 제5편과 6편에서는 남성 객과 기녀 간 대화를 통해 기녀를 창기가 아닌 여인으로,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제7편에서는 나이든 기녀들의 한탄을 통해 젊음과 미모로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기녀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본사편(2)은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두 쌍의 애정담을 통해 보여주었다. 제8+9+10편은 객과 기녀가 상사하는 애정담을 제시하였고 제11+12+13편은 청룡가인과 청주선달이 상사하는 애정담을 제시하여 기방에서 만난 남녀의 애절하고도 안타까운 사랑의 상황들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녀를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는 남성을 만난다면 기녀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 결사편(제14편)에서는 기녀들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217) 기녀는 '낙인 효과[stigma effect]'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낙인 효과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행태가 나쁜 쪽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소수록』의 편찬자는 이와는 반대로 기녀들에게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실천하고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여 기녀의 자존 의식을 높여주었다.

2) 편찬 의식

작품 내용은 필연적으로 작가의 인간관 및 세계관과 연결된다. 때문에『소수록』14편에도 편찬자의 의중이 은연중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편찬자의 편찬 의식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몇 작품을 골라 그것을 추출해보기로 하겠다. 작품 선정은 화자의 기녀 인식이 편찬자와 같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는가가 기준이 된다. 제1편의 논평 부분의 서술자와 제3편의 객 그리고 제4편의 남성 화자와 제14편의 서술자는 모두 기녀 존재를 긍정하고 있고 나아가 기녀들을 적극적으로 걱정 · 옹호 · 찬양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나타난 편찬자의 기녀에 관한 의식이나 태도를 분석해보기로 하겠다.

> 1
> 셰강쇽박ᄒᆞ고 인불여고라. 져의 범ᄐᆡ육골과 쇼간치ᄒᆡ로 지졍슈취와 봉친합의을 아난 ᄌᆡ 뉘라 ᄒᆞ리요. 싱각난 ᄇᆡ 역불과쳥죵공방이요. 취ᄒᆞ은 ᄇᆡ 또한 순홍치빅이라. (<소1, 33>)

> 2
> 긱월, 우습다, 그ᄃᆡ 말이 편협ᄒᆞᆫ 여ᄌᆞ로다.
> 긔 역 쇽ᄌᆞ의 우언이라. (<소3, 53~54>)

1과 2는 기녀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주는 남성들을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다. 1에서 서술자는 절부 명선은 물론이고 그녀와 똑같이 가치 있는 존재인 해주 기녀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몰라준다고 남성들을 비판한다. 어리석은 그들은 오직 기녀의 육체를 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기녀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2는 기녀를 요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남성들을 향해 '편협한 소견을 가진 여자'와 같다고 하고 '속인들이 하는 아둔한 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두 작품은 기녀에 대해 편견을 가진 남성들을 향해 기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입을 통해 그들을 비판함으로써 기녀 독자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고 평소 편찬자가 이 문제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이렇듯 편찬자는 기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을 향한 비판을 통해서 기녀 존재를 강하게 긍정하고 옹호하고 있다.

3
능이 연화을 버셔나 안연이 졀부의 일을 무란이 효칙하고 만일 셔진 시의 싱ᄒᆞ여든들 금곡 예졀을 녹주의게 시양ᄒᆞ며 아국 츈향의 일홈이 홀노 악부의 올나실이요. 진실노 홍인의 부복낙간과 예양의 탄탄위아난 유쇽 ᄉᆞᆼᄉᆞ라. 가이 죱분 빅희와 환비 ᄃᆡ가로 빗틀 다톨 듯. 그 졀을 의논할진ᄃᆡᆫ 수양고봉을 엇지 놉다 이르며 그 뜻슬 ᄉᆡᆼ각할진ᄃᆡᆫ 연평ᄃᆡ히을 엇지 푸르다 ᄒᆞ리요마난 (<소1, 32~33>)

4
주불취인 인지취라 식불미인 이ᄌᆞ미을 가인 미희의 홀노 함이 안이라. 위중강 반쳡여난 만고 가인이나 천지의 풍유로되 그 집을 업치미 업스니 엇지 미인과 가인을 탓할리요? 왕망 동탁과 치경 진히 등이 미식되여 한숑을 망케 ᄒᆞ여스며, 난영 지빅과 이ᄉᆞ 죠고 등이 다 가인로 몸이 망ᄒᆞ엿난가? 홍망셩쇠와 공명현달이 다 ᄯᅢ가 이스니 엇지 져의을 탓ᄒᆞ리요? 이러무로 호긱과 중부의 호화을 도을 다름이니라. 이러무로 천ᄒᆞ디보난 미식인가 ᄒᆞ노라 (<소3, 53~56>)

5
션연ᄒᆞ다 미ᄐᆡ도야/ 아로식인 옥이로다/ 중단이 격중ᄒᆞ고/ 체지가 합도로다/ 달갓치 둥근낫슨/ 복디가 완연ᄒᆞ고/ …(중략)…/ 단아 포셕은/ 눈가운ᄃᆡ 미화로다/ 보리 경쳡은/ 금누 반비요/ 무수 젼젼은/ 한궁 비련이라/ 가셩은 쳥아ᄒᆞ여/ 단구의 봉이울고/ 어음은 징징ᄒᆞ여/ 옥반을 울니난듯/ 추파을 일젼ᄒᆞ면/ 중부가 질식ᄒᆞ고/ 향구을 잠기ᄒᆞ면/ 호걸이 낙박이라 (<소4, 56~57>)

3은 서술자가 기녀 명선이 절개를 실천하여 사대부가의 첩이 되어 간 일을 칭찬하는 대목이다. 서술자는 절개와 관련 있는 역대 인물들인 녹주, 춘향, 홍인, 예양, 백희, 환비와의 비교를 통해 명선의 절개가 그들 못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아울러 자연물인 수양산의 봉우리와 연평대해까지 가져와서 명선의 절개를 칭찬하여 기녀의 우월한 가치에 대해 독자들이 느끼게끔 하고 있다.

4는 기녀는 '망국하는 요물'이고 '남자를 빠뜨리는 수렁'이라고 비판한 갑을 향해 객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대목이다. 객은 술에 취하고 색에 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는 일은 술과 기녀(가인·미희)의 탓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 즐기는 남성의 탓이라고 반박한다. 그리고 갑의 논리에 문제가 있음을 다음 인물들을 예로 들어 항변한다. 먼저 임금에게 버림받아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만 했던 미인들인 위장강(衛莊姜)과 반첩여(班婕妤)의 예를 든다. 이어서 이들과는 대조되는 인물로, 포악하고 간사하여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한 남자들, 즉 왕망(王莽)과 동탁(董卓), 채경(蔡京)과 진회(秦檜), 난영(欒盈)과 지백(智伯), 이사(李斯)와 조고(趙高) 등을 예로 들어 남자들이 기녀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장부의 공명현달은 기녀와 무관한 일이며 기녀는 호객과 장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로운 존재이기에 천하의 보물이라고 할 만하다는 '가인천하보물론'을 주장한다.

따라서 제목의 '죵순이라'는 기생 '종순'이 아니라 '순순히 복종함'이란 의미를 지닌 '從順'으로 풀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독자가 '종순(從順)'해야 할 것은 바로 객이 주장하는 '가인천하보물론'이다. 이 작품은 분량은 짧지만 제목과 내용이 강제하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작품에서 객은 기녀를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우매한 남성들을 향해 강한 계몽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렇듯 논리적이고 공격적으로 기녀를 위해 변론하는 객의 모습에서 편찬자의 강한 기녀 옹호를 느낄 수 있다.

5는 남성 화자가 기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가무의 탁월함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다. 남성 화자는 한 기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노래와 춤에 대해서도 칭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녀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탄식한다. 그러한 편찬자의 심정은 '한 도(道)의 미인을 찬양하다가 감탄하는 소리를 듣지 못해 탄식하노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자세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앞의 제2, 3편에서 주장한 '가인천하보물론'을 보완 · 입증하고 있다. 이렇듯 편찬자의 기녀 옹호는 기녀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6

도리춘풍 ᄌᆞ랑마쇼/ **화**노ᄒᆞ면 졉불ᄂᆡ라/ 여류광음 덧업시니/ ᄆᆡ양으로 미들숀가 도화. (<소14, 120>)

옥쇼을 부난곳시/ **션**동의 유련쳐요/ 쳥숑 녹임ᄒᆞ난/ 학의깃시 분명ᄒᆞ다 옥쇼션. (<소14, 1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7

ᄃᆡ져 엇지ᄒᆞ면 니널노 ᄒᆞ여금 후셰에 녹을 먹고. 그 인국을 비반ᄒᆞ며 유중츈혈ᄒᆞ난 음부 출녀를 붓그럽게 ᄒᆞ노라 (<소1, 34>)

6의 서술자는 해주 기녀들 40명을 이름의 각 글자를 가사 시행의 첫 글자로 삼아 지어서 불러주고 있다. 이때 이름을 수식하는 방식은 가능한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녀들로 하여금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자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편찬자의 기녀에 대한 애정이 담겨있다.

7의 서술자는 청자인 해주 기녀들을 향해 걱정과 경계를 동시에 하는 대목이다. 서술자는 해주 기녀들을 향해 명선이처럼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명선의 이야기를 통해 문란한 행동을 일삼는 일부 기녀들을 경계하려 했다고 말한다. 이렇듯 편찬자는 기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통해서 기녀를 옹호하고 있다.

몇 편의 작품 분석을 통해 편찬자의 기녀 의식을 살펴본 결과, 편찬자는 기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을 향한 비판을 통해서, 기녀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와 찬양을 통해서, 기녀에 대한 애정과 걱정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어 독자들이 기녀를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것은 편찬자가 가지는 기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조건적인 긍정 의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제1편과 제14편의 서술자는 편찬자로 보아도 무방하다. 서술자는 곧 작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3편의 객은 편찬자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인물이거나 작품 속에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허구적 인물을 등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편의 남성 화자 역시 제3편의 객과 동일인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제1, 3, 4, 14편의 서술자와 화자들은 모두 편찬자로 볼 수 있다.

기녀는 관에 소속된 관비로 천민이자 여성이다. 이러한 조건은 오랜 세월 동안 기녀를 고통받게 하였다. 그들은 신분적 차별 때문에 인간적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지 못했고 아울러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이라는 이중의 질곡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했다. 그리하여 '요물', '여우', '애물', '기화' 등으로 불리며 사회의 '악'으로 규정되어 기녀들은 그들의 가슴속에 말로는 다하지 못한 억울함과 원통함이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들만의 '시름'을 가졌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편찬자는『소수록』전편에서 가장 천한 존재인 기녀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녀들에게 너희들은 다른 인간적 존재와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존재이고 잘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라고 북돋워주고 있다. 이것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편찬자의 의식이다.

아울러 이러한 편찬자의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의 편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양반과 천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든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신분 차별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야담, 판소리, 소설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명선의 서사와 유사한 <춘향전>의 경우 수청을 강요하는 변사또를 향해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과 '열녀불경이부절(烈女不更二夫節)'을 외치며 수절에는 상하가 없다고 항변했던 춘향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찍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근대적 인간관을 경험했었다.『소수록』이 중세와 근대의 교차점인 19세기 후반에 나온 책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기녀 존재를 긍정하자는 이 같은 주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녀는 인간 평등이라는 근대적 인간관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존재였다. 신분제도의 철폐의 범위에서도 기녀는 예외였던 것이다. 조선의 관기 제도는 신분제도 철폐 이후에도 1909년까지 지속되었고 관기 제도 철폐와 동시에 기녀는 조선총독부의 '기생 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이라는 또 다른 이름 아래 단속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이는 허구화된 소설 속에서 인간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소수록』은 이와 사정이 다르다. 오랜 기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축적된 기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춘향전>과는 달리 기녀들의 현실이었다.『소수록』이 <춘향전>과 같은 허구적 세계와 다르게 편찬자의 기녀에 대한 평등 의식이 돋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편찬자는 실재하는 기녀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 정교하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일관되게 14편이라는 글을 통해 기녀 존재는 가치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찬자의 기녀관은 인간에 대한 이해 위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당대 지식인 계층 내부에서 기녀에 대해 이 정도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나아가 이것을 우리가 사는 현재로 가져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편견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는 타자를 대할 때 말로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하며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역시 여전히 강자와 약자가 구분되고 많은 다수에 끼지 못하는, 그들의 세계에 편입되지 못한 소수자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데 약 150년 전에 존재했던『소수록』의 편찬자는 그러한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기녀들을 따뜻하게 포용하려는 자세를『소수록』에서 보여주고 있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문학사적 의의

『소수록』은 19세기 중 · 후반 풍류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편찬된 자료이다. 수록된 14편은 전편이 기녀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기녀를 찬미하는 전과 기녀와 기방문화를 옹호하는 대화체 작품들 그리고 기방의 애정담과 호명기 등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이들 작품 중 일부는 흥선대원군 소유의 양한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 책이 당시 최고 풍류 공간을 누빈 최상급 예인들의 의식을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일인의 편찬자에 의해 엮어진 기녀 및 기방 관련 자료라는 점에서 청루 관련 문학서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책은 또 다른 의미를 생산한다. 일인의 작가에 의해 온전히 기녀 및 기방문화를 다룬 책은『소수록』이전과 이후 단 2권의 책이 있을 뿐이다.

『소수록』보다 이전 시기에 산출된 청루 관련 문학서는 한재락(韓在洛, 1775~1883)의『녹파잡기(綠波雜記)』가 있다.『녹파잡기』는 19세기 초 · 중반 평양 교방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한문산문으로서 중국 여회(余懷)의『판교잡기(板橋雜記)』의 영향 아래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소수록』이후 산출된 책으로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발간된 역대 기녀들의 실상을 상세히 밝힌 이능화의『조선해어화사(朝鮮解語花史)』가 있다.『소수록』의 경우 19세기 중 · 후반 해주 교방을 기반으로 하여 산출된 책으로 시기적으로 이 두 권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단순히 기녀와 관련된 글을 실은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천민계층인 기녀들의 독특한 정서를 이해하고 상처받았던 그들의 감정을 위로하려고 쓴 글들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수록된 14편은 인물전, 편지 형식의 수필, 편지 형식의 가사, 시조, 호명기 등으로 다양하다. 14편의 이야기들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되었거나 사실 지향적인 서술 태도를 보여준다. 모두 주변에서 보고 들은, 또는 직접 겪은 일들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문학적 허구를 포용[218]하기도 한다. 그리고 표기 방식은 한글로 표기되었다. 따라서『소수록』은 기녀 관련 한글잡록이다.[219] 아울러 한문잡록은 흔하지만 한글잡록은 흔치 않은

218) 현혜경,「16세기 잡록 연구」,『한국고전연구』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88면.
219) 잡록(雜錄)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 '잡다한 기록', '붓 가는 대로 기술한 것'을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료라는 점에서 『소수록』은 유일한 한글잡록이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잡록적 성격과 관련하여 『소수록』은 매우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220] 가사 속에 시조와 산문 문장을 삽입하고 산문체와 가사체를 혼용하고 있으며 가사와 논평을 결합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수록』의 전고 역시 독창적인 활용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 전고도 이제껏 우리 문학사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전고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장르의 정형성을 탈피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 의의가 있다. 이처럼 편찬자가 장르와 문체 그리고 소설을 창의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기녀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창작방식은 20세기 초반 문예물과 상당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개화기 신문 중 하나인 『대한매일신보』의 토론 형식의 단형 서사와 시조들, 신작구소설의 장르 혼효 현상들 그리고 『조선미인보감』만의 독특한 서술방식 등에서 유사한 성격이 포착된다. 이것은 당시 창작을 주도하던 지식인 계층의 이러한 창작방식의 시도는 이미 『소수록』이 창작되던 19세기 후반부터 시도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근대와 근대를 어느 한 시기를 기점으로 나누어 단절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소수록』의 문학사적 의의는 다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소수록』은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19C 후반 기방의 풍속을 반영한 청루 관련 문학서이다. 둘째 『소수록』은 유일한 한글잡록이다. 셋째 『소수록』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다.

데 묶은 일련의 저작물을 말한다. 김준형, 「조선전기 필기 · 패설의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소, 『새민족문학사 강좌』 1, 창비, 2009, 187~199면.

220) 잡록은 글의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 볼 때 다양성(多樣性) · 포괄성(包括性) · 개방성開放性)을 특징으로 한다. 정성훈,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92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Ⅴ. 결 론

기녀 관련 자료인 『소수록』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다룬 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이 책에 실려 있는 전체 작품을 고찰한 후 성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특정 작품을 고찰한 후 이를 일반화하여 책 전체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고는 『소수록』의 정확한 성격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Ⅱ장에서는 『소수록』의 서지적 특징들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이 책의 창작 배경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소수록』의 서지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록』은 '시름을 해소하는 기록'이란 뜻의 '消愁錄'임이 뒤표지의 한자 표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소수록』은 가사집보다는 세책본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특히 기녀와 관련된 특이한 한 · 중 애정담이 전고로 많이 인용되었다. 셋째 『소수록』은 한글로 기록되었지만 14편의 소제목과 작품 전체 서술에서 한문 관련 문체나 표현법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소수록』에 수록된 상당수의 작품이 문체적 측면에서 보면 가사체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가사라고 할 만한 작품은 제11편 <청뇽가인한충가>로 한정되었다. 다섯째 수록된 14편은 시조 21수를 포함하여 모두 신출 작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어서 이 책의 창작 배경으로 주목되는 공간으로 제1편과 14편의 배경장소인 해주와 제2, 3, 4, 7편의 배경장소인 양한당을 주목하였다. 이 중 양한당은 추적 결과 양주에 있는 홍선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직곡산장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해주와 홍선대원군의 별장인 양주의 양한당을 함께 공유했던 인물이나 그룹에 의해 편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앞에서 파악한 서지적 특징들은 편찬자 문제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컸다. 이 책은 운문과 산문, 한글과 한문이 섞인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편찬자는 이런 복잡성을 능수능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당대에 이런 능력을 갖추었을 만한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나 그룹으로 '승평계'를 상정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2편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서 논객으로 등장했던 장안호걸과 옥소의 정체에 대해 추적해 본 결과, 둘 다 승평계 그룹의 일원으로, 전자는 기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어떤 인물일 것으로, 후자는 흥선대원군의 총애와 안민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해주 명기 옥소선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아울러 편찬자 또한 승평계의 일원으로 장안호걸과는 달리 기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사람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Ⅲ장에서는 『소수록』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한 후 이를 통해 확인된 편찬자의 편찬 의식까지 살펴보았다.

1절은 잡록적 성격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전체 구성에 나타난 잡록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소수록』의 작품 개관을 통해 이 책은 글의 종류가 각각 다른 14편을 모아 놓은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글의 종류는 인물전, 편지 형식의 수필, 편지 형식의 가사, 시조, 호명기 등으로 다양하였다. 따라서 기녀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들을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소수록』을 기녀 관련 '잡록'으로 보았다. 그런데 『소수록』의 잡록적 성격은 14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러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수록』의 대다수 작품은 문체적 측면을 보면 가사체와 산문체가 혼용되어 있었고 여러 장르가 뒤섞여서 하나의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앞에서 언급한 개별작품의 장르 착종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1편 <촌히영명긔명션이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가사체로 서술된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와 산문체로 서술된 '서술자의 논평'으로 이루어졌고, 또다시 '해주 명기 명선의 서사' 속에는 시조 5수와 상당 분량의 산문체가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기녀 자술가 및 가사작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인물전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소수록』은 전체 구성의 측면과 개별작품의 측면 모두에서 그 잡록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잡록적 성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이 작품은 누군가 구전되어 떠도는 명선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리하여 자기만의 스타일로 글을 바꾸어서 이 책에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2절은 애정담 수용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소수록』의 애정담 수용과 전고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록』에는 기녀와 관련된 한 · 중 애정담이 전고로 많이 활용되었고 활용된 전고들은 우리문학사에서 흔히 전고로 인용되지 않았던 것들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들 애정담의 전고 활용 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수록』의 대다수 전고는 단순 비유 차원의 전고 활용 방식에 해당하였지만 유독 제2편 <논창가지미>의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서의 독특한 전고 활용 방식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를 검토한 결과 기녀의 다섯 가지 남성 유형, 즉 애부, 정부, 미망, 화간, 치애는 『소수록』의 편찬자가 전대의 소설 <이와전>, <금병매>, <서상기>, <매유랑독점화괴>, <무숙이타령>과 <강릉매화타령>의 소설 독서경험을 바탕으로 <논창가지미>에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 낸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소수록』에만 전고로 수용된 『금고기관』 소재 <매유랑독점화괴>와 <두십낭노침백보상>의 전고 활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편찬자는 이들 작품을 이야기를 구성하는 서사 원리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록』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거나 등장인물의 인물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편에서 반복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애정담 수용의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이 책은 소설의 특징이나 소설적 관습에 굉장히 익숙했던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자료라는 점이다.

3절은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소수록』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을 단어의 예와 전례의 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수록』에서만 쓰인 독특한 단어들이 여러 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았고 또한 우리 문학사에서 흔히 인용되지 않은 전례를 가져와 여러 편에서 적절히 변용한 특이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작품 간 유사 표현의 반복적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수록』은 유사한 구성과 표현들이 여러 편에서 대거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조에 나타난 특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수의 시조가 종장 첫 구에 주로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시조임에도 분절 방식은 가곡의 5장 형식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모든 시조는 종장 말구가 생략되어 있었다. 이런 특징들은 시조 21수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아울러 시조 21수는 모두 신출 작품으로서 시조 간 정감이 유사하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서술 방식과 표현의 특징을 통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이 책은 상당한 문학적 소양을 지닌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되었다는 것이다.

4절은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지향과 편찬 의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소수록』은 한 사람에 의해 편찬된 자료라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편에 나타난 주제의식은 기녀 존재 가치를 긍정하자는 것이었다. 책의 이러한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소수록』 전편은 서사-본사-결사의 정교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사편(제1편)'에서는 대표성을 띤 명선이 얘기를 부각시켜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논평을 통해 기녀를 바라보는 남성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어서 서사편에서의 편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본사편(1)(제2, 3, 4, 5, 6, 7편)을 제시하였다. 이들 6편은 기녀의 가치를 긍정하는 존재와 부정하는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 및 대화를 통해 독자들이 기녀의 우월한 가치를 느끼게끔 하였다. 본사편(2)(제8, 9, 10, 11, 12, 13편)에서는 편찬자의 주장이 본사편(1)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돈된 표본적 사례로서 2쌍의 애정담을 보여주었다. 이들 6편은 기방 남녀의 실제 애정의 사례를 통해 기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남성상은 자신을 창기가 아닌 여인으로서, 동등한 인격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남성이면 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마지막 결사편(제14편)에서는 이러한 기녀들의 가치를 확인하고 드높인다는 차원에서 해주 기녀 40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기녀 스스로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이어서 이렇게 파악된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록』의 편찬 의식을 살펴보았다. 편찬자는 전편을 통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기녀의 가치를 긍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기녀들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당시 가장 천대받던 존재인 기녀를 이처럼 따뜻하게 포용하고 옹호하는 모습에서 편찬자의 기녀 의식은 인간애에 기초한 평등 의식의 발현으로 파악되었다.

Ⅳ장은 Ⅱ장과 Ⅲ장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수록』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소수록』은 우리 문학사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글잡록이고 19C 후반 기방의 풍속을 반영한 청루 관련 문학서이며 장르의 정형성을 탈피한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결론적으로 『소수록』은 일인의 남성 작가가 기녀 존재 가치를 높이고 찬양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14편의 글을 엮은 것이며 가사집이 아닌 한글잡록으로 확인되었다. 또 남성 작가는 안민영과 옥소선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당시 최고의 풍류 가단으로 인정받았던 승평계의 일원으로 파악되었다.

유일본인 『소수록』은 단어의 오기와 구절의 탈락이 적지 않은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의 결점으로 인해 본고의 일부 해석에 미흡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추후 이보다 나은 이본이 발견되어 본고의 미진함을 채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1. 자료

『소수록』,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한국고전종합 DB.

2. 논저

1) 단행본

고려대학교 고전문학 · 한문학연구회 편, 『19세기 시가문학의 탐구』, 집문당, 1995.
김기형 역주, 『적벽가 · 강릉매화타령 · 배비장전 · 무숙이타령 · 옹고집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5.
김병국 외, 『장르교섭과 고전시가』, 월인, 1999.
김준형, 「조선전기 필기 · 패설의 전개 양상」, 민족문학사연구소, 『새민족문학사강좌』 1, 창비, 2009.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_____,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노자영 편, 『사랑의 불꽃』, 범우, 2004.
민관동 · 정영호 · 김명신 · 장수연 공저, 『중국통속소설의 유입과 수용』, 학고방, 2014.
서영숙, 『조선 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4.
소소생, 강태현 옮김, 『금병매』, 솔, 2002.
신경숙 · 이상원 · 권순회 · 김용찬 · 박규홍 · 이형대 著,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신경숙・이상원・권순회・김용찬・박규홍・이형대 著,『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신해진,『조선조 전계소설』, 월인, 2003.
박재연 · 김영 · 이수진 교주,『금고긔관』,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
박제형 저, 이익성 역,『근세조선정감』上, 탐구신서, 1975.
박희병,『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_____,『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안민영 원저, 김신중 역주,『역주 금옥총부』, 박이정, 2003.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시정40년사』제1권,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2004.
의정부시 · 의정부문화원,『의정부시사』제6권,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2014.
이능화 지음, 이재곤 옮김,『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이상원· 김진욱· 김미령 지음,『주해 고가요기초』, 보고사, 2009.
이윤석,『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2010.
이윤석 · 대곡삼번 · 정명기 편저,『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이임수,『한국시가문학사』, 보고사, 2014.
왕실보, 양회석 옮김,『서상기』, 진원, 1996.
장사훈,『국악 명인전』, 세광음악출판사, 1989.
장성남,『대한매일신보 시가 연구』, 보고사, 2010.
정병설,『나는 기생이다: 소수록 읽기』, 문학동네, 2007.
조동일,『제4판 한국문학통사』권4, 지식산업사, 2005.
_____,『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조령암 역,『금고기관』, 정음사, 1963.
최기숙,『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최진아,『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문학과 지성사, 2008.
한재락 지음, 이가원 · 허경진 옮김,『녹파잡기 - 개성 한량이 만난 평양기생 66인의 풍류와 사랑』, 김영사, 2007.
황문환,『(조선시대의 한글편지) 언간』, 역락, 2015.
허경진,『조선위항문학사』, 태학사, 199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논문

강전섭, 「『추풍감별곡』의 원전 모색」,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1995.

고순희, 「19세기 장르 간 교섭의 한 양상 - 현실 비판가사를 중심으로」, 『한국시가문화연구』 5, 한국시가문화학회, 1998.

권오경, 「19세기 고악보 소재 시조 연구」,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가학회, 2002.

김기동, 「<채봉감별곡>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국대학교 논문집』 1, 동국대학교, 1964.

김대행, 「시조 · 가사 · 무가 · 판소리 · 민요의 교섭 양상」, 『한국학연구』 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김동욱, 「배진공의환원배(裵晉公義還原配)의 국역 양상 비교」,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2011.

김석배, 「승평계 연구」, 『문학과 언어』 25, 문학과 언어학회, 2003.

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소설 독서 - 규장각본 『형세언』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김신영, 「기녀가사에 나타난 기녀의 자기존재의 표출방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연호, 「『금고기관』의 번역 양상 - 고대본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27, 민족어문학회, 1987.

김정석, 「기녀가사의 내면 의식과 태도 고찰」,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김용찬, 「안민영과 승평곡」, 『시조학논총』 26, 한국시조학회, 2007.

_____, 「안민영과 홍선대원군」,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김유경, 「편지 왕래형 구애 가사」, 『연민학지』 5, 연민학회, 1997.

김혜영, 「『소수록』의 성격과 작자 문제」, 『어문론총』 61, 한국문학언어학, 2014.

_____, 「『소수록』의 소설 수용과 그 의미 - <논창가지미>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48, 한민족문화학회, 2014.

박상석, 「번안소설 『백년한』 연구」, 『연민학지』 12, 연민학회, 2009.

박수진, 「『소수록』에 나타난 기생들의 내면 의식과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국언어문화』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_____, 「<ㅊ힐영명긔명션이라>의 욕망 구조 고찰 - 그레마스 행위소 모형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47, 온지학회, 2016.

_____, 「나 아닌 또 다른 나 - 기생의 호명(呼名)」, 『문헌과 해석』 76, 태학사, 2016.

박애경, 「조선 후기 장편가사의 생애담적 기능에 대하여 - <이정양가록>과 <소수록>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8, 열상고전연구회, 2003.

_____, 「'록자류' 가사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연구』 26,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3.

박영민, 「기생안을 통해 본 조선후기 기생의 공적 삶과 신분」,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_____, 「노기의 경제 현실과 섹슈얼리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박혜숙, 「여성 자기 서사체의 인식」, 『한국여성문학연구』 8,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02.

_____, 「기생의 자기서사 - 기생 명선 자술가와 내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박혜숙 외,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한국여성문학연구』 7,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학회, 2002.

서대석, 「신소설 『명월정』의 번안 양상」, 『국어국문학』 72, 국어국문학회, 1976.

서영숙, 「여성일대기 가사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어문학』 80, 2003.

서인석, 「<구운몽> 후기 이본의 문체 변이와 그 의미」, 『인문연구』 1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3.

_____, 「가사와 소설의 갈래 교섭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성무경, 「『금옥총부』를 통해 본 '운애산방'의 풍류 세계」, 『반교어문연구』 13, 반교어문학회, 2001.

손병국, 「한국 고소설에 미친 명대 화본소설의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개화기 신문연재소설에서의 명대 백화단편소설 수용 양상」, 『동악어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학집』 35, 동악어문학회, 1999.
_____, 「벽부용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_____, 「『청텬빅일』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5,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5.
_____, 「『원앙도』연구」, 『한국어문학연구』 4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7.
송재연, 「『소수록』을 통해 본 기녀의 가사 창작 양상과 그 의미」, 『한국시가학회 제45차 발표회 논문집』, 한국시가학회, 2007.
신경숙, 「안민영 예인집단의 좌상객 연구」, 『한국시가연구』 10, 한국시가연구학회, 1999.
_____, 「안민영과 예인들 - 기악연주자들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41, 안암어문학회, 2000.
_____, 「19세기 일급 예기의 삶과 섹슈얼리티 - 의녀 옥소선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_____, 「안민영 사랑 노래의 생산적 토대」, 『한성어문학』 24,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2005.
안대회, 「평양기생의 인생을 묘사한 소품서 녹파잡기 연구」, 『한문학보』 14, 우리한문학회, 2006.
안외순, 「대원군의 사회적 기반과 지지세력」, 『동방학』 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0.
엄태식, 「『九雲夢』의 異本과 典故 硏究」,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여승환, 「송대 '瓦舍・勾欄'의 유래고찰」, 『중국문학연구』 31, 한국중문학회, 2005.
유기옥, 「<님낭자가라>의 서사적 사건 구성양상과 의미」, 『온지논총』 30, 온지학회, 2011.
윤재환, 「단국대학교 소장 한문본 「倡善感義錄」 소재 삽입 한시의 기능과 미감」, 『동양고전』 59, 동양고전학회, 2015.
윤지양, 「18세기~20세기 초 서상기 국내 수용 양상 고찰」, 『대동문화연구』 8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3.
이경림,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한국근대문학회, 2013.
이기대, 「근대 이전 한글 애정 편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상원,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학회, 2018.

이혜순, 「신소설 『행락도』 연구」, 『국어국문학』 80, 국어국문학회, 1980.

이화형, 「기생 시가에 나타난 자의식 양상 고찰 - 작가의 자기 호명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4, 우리문학회, 2011.

정규복, 「<추풍감별곡>의 신연구 - 문헌학적 검토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2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89.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總量 · 刊所(刊記) · 流通樣相을 중심으로」, 『古小說硏究』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정병설, 「해주기생 명선의 인생 독백」, 『문헌과 해석』 15, 2001.

_____, 「기생이 본 다섯 유형의 남자」, 『문헌과 해석』 16, 2001.

정성훈, 「홍대용과 박지원의 작가정신 비교 연구 : 『의산문답』과 『열하일기』를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정준식, 「열녀설화의 장르 확산과 열녀 이미지의 변모 과정」, 『구비문학연구』 18, 한국구비문학회, 2004.

_____, 「<박만득전>에 나타난 갈래 교섭 사례」, 『한국문학논총』 53, 한국문학회, 2009.

정영호 · 민관동,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 『三言』 · 『二拍』 · 『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4, 중국인문학회, 2013.

정우봉, 「조선시대 기생 시첩의 존재 양상과 문화사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조상준, 「『녹파잡기』 속 경화세족과 어울리던 평양 명기들의 풍속연구」, 『아태연구』 16권 2호,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2009.

조태흠, 「안민영 시조의 연행 양상과 그 의의」,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2011.

증천부, 「한국소설의 명대 화본소설 수용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채송화, 「『을병연행록』과 여성 독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비평』 46, 창작과비평사, 197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재남, 「박효관의 필운대 풍류와 이유원의 역할」, 『한국시가연구』 36, 한국시가학회, 2014.

함복희, 「서사가사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황혜진, 「조선시대 기생의 몸에 대한 자의식」, 『古典文學硏究』 46, 한국고전문학회, 2014.

허경진, 「『녹파잡기』를 통해 본 강남 서적의 유입과 그 영향」, 『중국학논총』 29,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현혜경, 「16세기 잡록 연구」, 『한국고전연구』 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0.

Collection @ chosun